

東學革命 100周年紀念
洪州戰鬪實況學術發表會

主題發表

- 傳統思想과 東學理念의 具現/朱 遜 魯
- 東學革命의 洪州戰鬪/李 道 行

主催：東學革命 100周年紀念事業會

主管：洪州 鄉土文化研究會

傳統思想과 東學理念의 具現

朱 鎰 魯

(前晉阜高等學校長)

목 차

1. 한국사상	3
2. 샤마니즘적 고유사상	4
1) 단군사상	4
2) 제천의식에 도사린 사상	5
3) 삼국이래의 사상	6
4) 문헌상으로 본 사상	7
5) 승화한 한국적인 불교·유교사상	8
3. 실학적 사상	8
4. 동학사상	11
5. 동학사상의 이념(세가지 요체)	13
1) 시천주(侍天主)와 수심정기(修心正氣)	13
2) 무위이화의 화권(化權)	14
3) 척왜양이(斥倭洋夷)의 민족주체사상	15
6. 동학사상과 혁명의 개념	16
1) 봉건타파의 분출구	16
2) 동학개념의 전이	17
3) 동학농민운동의 요약(국정교과서 내용)	18
7. 동학사상 이념의 구현	19
1) 집강소의 설치와 농민통치	19
(1) 읍폐민막의 교정사례	20
(2) 집강소의 조직	22
(3) 폐정개혁	22
2) 갑 오 경 장	25
(1) 집강소와 갑오경장	25
(2) 폐정개혁의 기본내용	26
(3) 갑오개혁의 내용과 결과	27
※ 표 (1), (2)	30

器具下

此器具之功用，在於測量土地之面積，其法如下：
 一、將土地分為若干小塊，每塊面積相等。
 二、將每塊土地之面積，分別測量之。
 三、將各塊土地之面積，相加，即得總面積。
 此法之優點，在於測量簡便，且能節省時間。
 茲將測量土地之器具，分述於後：
 一、測量尺：用於測量土地之長度。
 二、測量繩：用於測量土地之寬度。
 三、測量器：用於測量土地之面積。
 四、測量表：用於記錄測量之數據。
 五、測量圖：用於繪製土地之測量圖。
 以上各器具，均為測量土地所必需者。
 茲將測量土地之方法，分述於後：
 一、測量土地之長度：用測量尺測量之。
 二、測量土地之寬度：用測量繩測量之。
 三、測量土地之面積：用測量器測量之。
 四、記錄測量之數據：用測量表記錄之。
 五、繪製土地之測量圖：用測量圖繪製之。
 以上各方法，均為測量土地所必需者。
 茲將測量土地之器具，分述於後：
 一、測量尺：用於測量土地之長度。
 二、測量繩：用於測量土地之寬度。
 三、測量器：用於測量土地之面積。
 四、測量表：用於記錄測量之數據。
 五、測量圖：用於繪製土地之測量圖。
 以上各器具，均為測量土地所必需者。
 茲將測量土地之方法，分述於後：
 一、測量土地之長度：用測量尺測量之。
 二、測量土地之寬度：用測量繩測量之。
 三、測量土地之面積：用測量器測量之。
 四、記錄測量之數據：用測量表記錄之。
 五、繪製土地之測量圖：用測量圖繪製之。
 以上各方法，均為測量土地所必需者。

傳統思想과 東學理念의 具現

朱 鎣 魯
(前폴무高等學校長)

1. 한국사상(韓國思想)

우리 인간(人間)이 살아가려면 크고 작은 여러가지 많은 문제(問題)들을 풀어야 한다. 우리 인생(人生)이란 바로 끊임없는 문제해결(問題解決)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생활(生活)의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생활의 앞날 향상(向上)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문제(問題)들을 풀어야 한다. 그저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도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으로는 잘 생각해야 하고 밖으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사람의 모든 행동(行動)에는 반드시 생각이 함께 따르게 된다. 곧 육체적인 행동에는 꼭 정신적인 사고(思考)가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비교적 뚜렷하고 짜임새 있는 것을 특히 사상(思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問題)들을 풀어야하고 문제(問題)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잘 생각해 낸 비교적 뚜렷한 짜임새있는 생각들을 특히 우리의 사상(思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민족(民族)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도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도 앞으로의 큰 발전(發展)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 왔으며 지금도 풀고 있으며 앞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민족(民族)이 많은 문제(問題)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생각해 낸 비교적 뚜렷하고 짜임새있는 생각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사상(思想) 곧 한국사상(韓國思想)이라고 말할 수 있다.〈전통사상과 동학사상: 최동희 교수〉에서 인용—

2. 샤머니즘적 고유사상

우리 民族이 새로운 국가체제(國家體制)를 마련하고 고구려(高句麗)·백제(百濟)·신라(新羅)의 삼국(三國)으로 나뉘어져 서로 맞서게 된 뒤에는 외래종교(外來宗教)를 받아들이고 또는 문물(文物)도 크게 발달하여 사상(思想)도 이에 따라 발전(發展)하게 되었다. 그 이전의 고유사상(固有思想)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것을 직접 알려주는 문헌(文獻)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중국문헌(中國文獻)과 후대문헌(後代文獻)에 나타나는 자료(資料)를 통해 우리 민족(民族)의 원시신앙(原始信仰)을 알아내고 이 신앙(信仰)속에 깃들여 있는 사상(思想)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날 단군신화(檀君神話)와 남북방계(南北方系)의 건국전설(建國傳說)을 분석함으로써 원시신앙의 일면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제천의식(祭天儀式)과 제신숭배(諸神崇拜)의 분석을 통해서도 원시신앙(原始信仰)의 일면(一面)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족연맹(部族聯盟)의 법속(法俗)을 분석하여 우리의 고유사상(固有思想)을 엿볼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원시신앙(原始信仰)이나 원시법속(原始法俗)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우리의 원시적(原始的)인 신앙(信仰)이나 법속(法俗)이 대체로 샤아머니즘의 성격(性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려고 한다. 예컨대 단군신화(檀君神話)에 있어서도 환웅(桓雄)은 샤아먼의 성격(性格)을 잘 나타내고 있다. <환웅(桓雄)이 무리 삼천(三千)을 거느리고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와 신시(神市)라 이르고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 풍백(風伯)·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명(命)·병(病)·형(刑)·선악(善惡)을 다스려 인간(人間)의 삼백육십(三百六十)여가지 일을 모두 맡았다.>

1) 단군사상(檀君思想)

환웅(桓雄)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릴뿐만 아니라 곡물(穀物)·수명(壽命)·형벌(刑罰)·선악(善惡)까지도 맡아 다스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임금일뿐만 아니라 초인적(超人的)인 능력(能力)을 가진 「샤아먼」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단군신화(檀君神話)가 샤아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을 엿볼 수 있다.

우리 민족(民族)은 일찍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광명(光明)을 높이 숭상하는 습속(習俗)이 있었다. <십이월(十二月)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었다. 이것을 영고(迎鼓)라고 불렀다. [후한서 동이전 부여국조(後漢書 東夷傳 扶餘國條)]>

2) 제천의식(祭天儀式)에 도사린 사상(思想)

제천의식(祭天儀式)은 부여(扶餘)·고구려(高句麗)·예(濊)·마한(馬韓)에서 다같이 거행되었다. 부여(扶餘)에서는 영고(迎鼓)라고 하였으나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이라 하고 예(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이름이 서로 다르고 제사를 지내는 달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제천의식(祭天儀式)도 샤아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듯하다. <혼신(鬼神)을 믿고 나라의 고을에 저마다 한 사람을 내세워 천신(天神)에 제사지내는 일을 맡게 하였다. 이 사람을 천군(天君)이라고 불렀다. 또 여러나라에 저마다 별읍(別邑)이 있는데 이것을 소도(蘇塗)라고 부른다. 대목(大木)을 세워 방울·북을 걸어놓고 귀신(鬼神)을 섬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마한조(三國志 魏志 東夷傳 馬韓條)]>

이렇게 마한이 각읍마다 한 사람을 내세워 천신(天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를 천군(天君)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 천군(天君)이란 샤아먼(무당)일 것이다. 그리고 소도(蘇塗)·방울·북도 샤아머니즘과 관계되는 것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時代)의 정치(政治)도 샤아머니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남해거서간(南海居西干)은 또 차차웅(次次雄)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존장(尊長)의 칭호이다. ... 혹은 차차웅(次次雄)이라고 이르고 혹은 자통(慈充)이라고도 한다. 김대문(金大問)은 차차웅(次次雄)이란 방언(方言)인데 무당을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무당으로서 귀신(鬼神)을 섬기고 제사(祭祀)를 올리므로 그를 두려워하고 공경했다. [삼국사기권일 신라본기(三國史記卷一 新羅本紀)]>

이것은 신라(新羅)의 시조(始祖)인 역거세(赫居世)의 뒤를 이은 남해차차웅(南海次次雄)에 관한 기록이다. 차차웅(次次雄)은 자충(慈充)이라고도 하는데 무당을 가리키는 방언(方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존장(尊長)을 부

르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존장(尊長)은 부족장(部族長) 혹은 부족연맹(部族聯盟)의 맹주(盟主)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위정자(爲政者)가 무당이기도 하다는 것을 뜻하며 정치(政治)와 샤아머니즘이 얼마나 깊이 관계되어 있느냐를 잘 보여준다.

부족연맹시대(部族聯盟時代)에는 샤아먼(무당)이 정치(政治)를 하고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豫言)을 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샤아머니즘이 이 시대(時代)의 생활(生活)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샤아머니즘 속에 들어있는 사상(思想)이 우리 고유사상(固有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샤아머니즘 속에 들어 있는 사상(思想)을 구체적으로 찾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천(千)여년 동안에 상당히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히 발전하였으리라고 믿어지는 우리의 샤아머니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샤아머니즘은 동북(東北)아시아 일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시적 종교형태(原始的 宗教形態)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새로운 국가체제(國家體制)를 마련하고 외래문화(外來文化)를 받아들이기까지 천(千)여년 동안 전개하여 온 샤아머니즘은 분명히 우리 민족적(民族的)인 샤아머니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샤아머니즘속에 들어있는 사상(思想)이 곧 우리 고유사상(固有思想)일 수 있다.

3) 삼국(三國) 이래의 사상(思想)

우리 샤아머니즘은 새로운 국가체제(國家體制)를 갖춘 이른바 삼국시대(三國時代)이후에도 우리 민족(民族)이 생활(生活)속에 길이 남아 있으면서 다소간의 영향을 주고있다. 고려시대에도 샤아머니즘은 광범위하게 생활(生活)을 지배하고 있었다. 크게는 나라 행사(行事)에서 작게는 개인(個人)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도 샤아먼의 힘이 널리 요구되었다. 예컨대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기우의식(祈雨儀式)에 샤아먼이 참여한 기록(記錄)이 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조시대(李朝時代)에도 성숙청(星宿廳)·활인서(活人署) 같은 샤아먼을 맡아보는 관청(官廳)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기 1765년(영조(英祖) 41년)에 영조(英祖)는 「民間에서는 병이 있는 사람은 지체없이 무당을 쓴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민중(民衆)속에 얼마나 샤아머니즘이 침투했

느냐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世紀)말엽부터 일어난 개화운동(開化運動)은 오랜 전통의 샤아머니즘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서기 1882년(고종(高宗) 19년)에 활인서(活人署)를 없애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서양(西洋)의 근대문화(近代文化)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육제도(教育制度)를 통해 과학사상(科學思想)이 보급된 뒤에도 샤아머니즘은 그 자취를 아주 감추지는 못했다. 서기(西紀) 1930년에 실시한 조사통계(調查統計)에 의하면 우리나라안에 일만 이천(一萬二千)여명의 무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학사상(科學思想)이 보급되어도 샤아머니즘은 민중(民衆)속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 수 있다.

4) 문헌상(文獻上)으로 본 사상(思想)

끝으로 우리 문헌(文獻)에 나타난 기록(記錄)에 의해서도 저 천(千)여년 동안에 전개된 우리 샤아머니즘의 구체적인 내용(內容)을 알 수 없고 오늘날 남아 있는 무속(巫俗)을 통해서도 그것을 대충 알 수 있다. 특히 홍성 이고장에는 최영장군이 홍북면 노은리에서 탄핵하였다. 고려말의 무장이었던 이분은 살아서 고려를 건진 명장이요, 죽어서는 덕물산과 홍성의 삼봉산 사당에 신명으로 거하여 지금까지도 무속의 최고신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천(千)여년 동안 전개된 샤아머니즘속에서 성장한 우리 고유사상(固有思想)이 유교(儒敎)·불교(佛敎)·도교(道敎) 등 외래종교(外來宗敎)와 만나게 될때 이것을 수용(受容)하여 새로운 발전을 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샤아머니즘의 어떤 고유사상(固有思想)이 외래종교(外來宗敎)를 받아들여 새로 발전함으로써 우리 사상사(思想史)를 전개한데 대하여 이미 활력(活力)을 잃은 나머지 샤아머니즘이 우리 사상사(思想史)의 변두리에 남아 있는 것이 후대(後代)의 샤아머니즘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유사상(固有思想)은 오히려 외래사상(外來思想)을 받아들여 소화(消化)하면서 저 삼국(三國)이후의 사상사(思想史)를 면밀히 연구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샤아머니즘 속에 있던 고유사상(固有思想)중에서 역사(歷史)를 전개한 부분(部分)을 이해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部分)의 이해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5) 승화한 한국적인 불교(佛敎) 유교사상(儒敎思想)

4세기 쯤에 우리 민족(民族)은 대체로 철기문화(鐵器文化)를 누리게 되었고 사회적(社會的)으로는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인 정치체제(政治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방향(方向)에서 더욱 발전(發展)해 나갔다.

이러한 문화적(文化的)·사회적(社會的)인 단계(段階)에 알맞는 사상(思想)의 발전(發展)을 이룩하게 되었다. 곧 동양(東洋)의 선진사상(先進思想)인 유교(儒敎)·불교(佛敎)·도교(道敎)를 받아들여 이들을 통해 우리 민족(民族)의 사상(思想)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저 삼국(三國), 통일신라 고려·이조중기에 이르는 이 단계에 우리 민족(民族)은 깊고 넓은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사상(思想)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저 원효(元曉)·지눌(知訥)·퇴계(退溪)같은 사람을 그 한 보기로 들 수 있다.

이 단계를 다시 주로 불교(佛敎)를 통해 종교적(宗敎的)인 사상(思想)을 전개한 시기(時期)와 주로 유학(儒學)을 통해 윤리적(倫理的)인 사상(思想)을 전개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고려말기(高麗末期)를 고비로 하여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단계에도 우리 민족은 독자적(獨自的)인 민족사상(民族思想)을 전개하여 역시 사상적(思想的)인 주체성(主體性)을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저 불교사상(佛敎思想)을 발전(發展)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적(韓國的)인 유교(儒敎)를 전개했기 때문이다. 저 원효(元曉)와 울곡(栗谷)을 그 한 보기로 들 수 있다.

3. 실학적 사상(實學的 思想)

실학(實學)은 대체로 17세기로부터 시작하여 18세기에 크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1800년에 정조(正祖)임금이 돌아가자 갑자기 정치세력 분포가 달라져 곧 실학은 드러내 놓고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사사롭게 몇 사람들만이 연구하여 뒷날에 남겨 주었을 뿐이다. 이러다가 대체로 19세기 후반에 개화운동으로 이어져 실학 자체는 그 구실을 마치게 되었다.

실학사상의 내용을 엿보기 위해 여기서는 서학(西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로 한다. 여기서 서학이란 서양의 종교와 철학, 과학을 통털어 부르는 이름이다. 이 서양의 종교는 천주교(가톨릭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은 일찍부터 비판되어 왔다. 천주교 신부로 외국에 유학간 초창기의 삼대신부가 옛 홍주땅 사람이었다. 김양업신부와 그의 4촌은 홍주 황성사람이었고 김대건신부는 그 당시 함덕에서 500m 떨어진곳에서 탄생하였다.

실학은 대체로 서양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의 철학·과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곧 과학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었고 철학에 대해서는 조심하면서도 그 영향은 뜻밖으로 크게 받았다. 하나의 보기로 어떤 사람은 서학의 영향을 받아 이기설(理氣說)이나 음양오행설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 이른바 리(理)라고 하는 것은 기(氣)가 좋으면 그것도 좋고 기(氣)가 나쁘면 그것도 나쁘다고 한다. 이것은 리(理)가 말아 다스리는 힘이 없고 기(氣)가 하는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홍대용(洪大容 1731~1783) 이기설(理氣說)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나타냈다.)

어떻게 형체가 없는 것을 리(理)라 하고 바탕이 있는 것을 기(氣)라 하고 하늘이 내린 본성(本性)을 리(理)라 하고 감정이 나타난 것을 기(氣)라고 할 수 있는가?

〈홍주찰방을 역임한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이기설(理氣說)〉

이러한 이기설(理氣說)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에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1610)가 쓴 「天主實義」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이기설(理氣說)이 내세우는 리(理)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꺾하였다. 곧 리(理)는 어떤 실체일 수 없는 실체에 딸려있는 속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리(理)는 아무래도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다. 하나의 보기로 말의 빛깔이나 이치(理)는 말이라는 실체에 딸려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이치는 말 같은 실체에 딸려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은 말 따위의 사물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홍대용(洪大容)은 오행설(五行說)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의문을 나타냈다. 〈저 불은 해고 물과 흙은 땅이다. 나무나 쇠(목(木)·금(金))와 같은 것은 해와 땅이 낳은 것이므로 이 세가지와 함께 원소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리하

여 하늘은 기(氣)일 뿐이고 물은 불(火)일 뿐이고 땅은 물과 흙(수:水·토:土)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오행설(五行說)에서 말하는 다섯가지 원소(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가운데서 나무(木)와 쇠(金)는 원소가 될 수 없고, 불, 물, 흙(火, 水, 土)만이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氣)라는 원소를 더한 기(氣), 화(火), 토(土)의 네가지 원소(四行)가 만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약용(丁若鏞)도 음양설(陰陽說)을 비판하고 오행설(五行說)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더우기 오행(五行)은 만물 가운데 있는 다섯가지 물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만물과 같은 물건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역시 통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오행설(五行說)과 음양설(陰陽說)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에서도 저 「천주실의(天主實義)」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오행설(五行說)에 맞서 불, 공기, 물, 흙(火, 氣, 水, 土)의 사행설(四行說)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음양설(陰陽說)도 서양사람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실학사상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겨레는 중국의 유교사상 특히 주자사상(朱子思想)에 너무나 굳게 매달려 있었다.

다시 전출되었던 최동희 교수의 실학사상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6세기부터는 우리사회 현실도 많이 달라져 갔다. 이러한 현실은 아랑곳도 없이 그저 유교사상만을 받들고 그것만을 밝히고 따지기만 했다. 이려고 있는 판에 우리 겨레는 서학(西學)을 만나게 되었다. 이 서학은 적어도 우리 겨레를 주자(朱子)사상속에 빠져있는 깊은 잠을 깰 수 있게 하는데 크나큰 몫을 다했다. 따라서 제대로의 실학은 서학의 영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기설(理氣說)이나 음양오행설 같은 낡은 사상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제대로 실학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학이 적어도 서학의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전통적인 사상이 사회 현실의 큰 변화와 마주쳐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을 때 마침 서학에 크나큰 자극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인(仁)은 두 사람이 서로 관계하는 것이다. 아버이를 섬기는 효가 인(仁)이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 두 사람이다.

효를 참된 덕이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 두 사람이라고 한다. 아버지와 자식의 어느 한쪽이 없어도 효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효를 포함한 참된 덕인 인(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벼슬아치와 백성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였다. 벼슬아치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하는 것이 인(仁)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산(茶山)에 따르면 인(仁)은 사람의 참된 본성이 무르익는 경지라고 한다.

이렇게 벼슬아치와 백성, 혹은 임금과 신하는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값어치를 다룰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관이 그 무렵의 우리 사회현실에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이 그 무렵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이었다』

4. 동학사상(東學思想)

수운은 1860년 4월 5일에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체험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먼저 수운 자신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나로부터 이 영부(靈符)를 받아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건져주고 나로부터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여라. (『동경대전포덕문(東經大全布德文)』)>

여기서는 수운이 한울님으로부터 영부와 주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영부는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어떤 부작(符作)이다. 주문은 사람들이 한울님을 위하게 하는 놀라운 글이다. <지금 너에게 무궁하고 무궁한 가르침을 내려 주었으니 이것을 익히고 잘 닦으라. 그리고 그 글을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익히는 방법을 잘 마련하여 그 덕을 세상에 퍼라. (『동경대전(東經大全)』 논문학(論學文))>

여기서는 수운이 한울님으로부터 '무궁하고 무궁한 가르침' (無窮無窮之道)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글' (其文)은 바로 윗 구절로 미루어 무궁하고 무궁한 가르침을 나타낸 글인 듯하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구절로 미루어 그것은 주문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여기서는 무궁하고 무궁한 가르침을 간추려 나타낸 글이 바로 주문이며 이것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문은 한울님이 수운에게 짓도록

했다는 것이다.

주문 '열석 자'는 주문의 뒷 구절을 말한다. 곧 주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목을 가리킨다. 수운은 여기서 주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힘주어 외치고 있다. 이것은 주문이 동학이라는 종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수운 자신이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문이란 과연 어떠한 글일까? 이 글은 여덟 자로 된 뒷 귀절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수운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 열석 자로 된 귀절만을 살펴보고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인간관을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열석 자로 된 귀절을 우리 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한울님을 모시면 조화(造化)가 저절로 얻어지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진다. (「대천주造化정영세불망만사지(待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얼핏 보면 한울님을 모시고 길이 잊지 말라는 것 뿐이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어찌하여 주문이라고 했을까? 그러나 수운에 따르면 한울님을 모시기만 하면 조화까지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한울님의 숨씨를 말하는 듯하다.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어서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 취원(捨近取遠)하단말가 (「용담유사」) 교훈가)

여기서는 한울님을 네 몸에 모셨다고 한다. 이렇게 몸에 가까이 모신 한울님을 버리고 먼데서 헛되이 찾아 헤매지 말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운은 여기서 한울님을 몸에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5. 동학사상의 이념(세가지 요체)

1) 시천주(侍天主)와 수심정기(修心正氣)

수운은 『동경대전』, 『논학문(論學文) : 동학론(東學論)』에서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리고 『용담유사』, 「교훈가」에서 “나는 도사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었어라 네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 하단말가”라는 표현을 통하여 종래 우리 민족이 경건하게 모셔오던 ‘하늘님’과 인간이 둘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즉 수운은 오랜 수련 끝에 1860년 4월 5일 ‘하늘님’과 내면적 일체화를 이루는 극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시천주’를 체험해 내었다. 이때 수운이 체험한 ‘하늘님’은 어떤 초월성을 가지고 천상에 존재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하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수운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동학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수련을 행하면 시천주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늘님’과 내면적 일체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자기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신분과 남녀의 차별, 노소의 구별이 엄격했던 당시 사회에서 신분의 고하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학의 가르침을 통하여 수련하게 되면 ‘시천주’, 즉 ‘하늘님’과 일체화가 될 수 있고, 자기 안에 모셔진 ‘하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시천주사상이야말로 조선왕조 신분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평등사상을 확립하게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수운이 천명한 ‘시천주’를 근거로 하여 확립된 동학의 평등사상은 수운의 사후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을 통해 ‘베짜는 며느리가 바로 하늘님이며’,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다’라는 범천론적(汎天論的) 동학사상으로 확대되어 민중들 속에서 실천됨으로써 1984년 동학농민봉기 당시 동학조직이 민중들을 광범위하게 결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학의 가르침 속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근거가 되는 ‘시천주(侍天主)’, 즉 ‘하늘님’과 일체화를 이루고, 내가 바로 ‘하늘님’이 되는 구체적

실천방법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내 안에 모실 수 있을 것인가. 수운은 ‘시천주’, 즉 ‘하늘님’과의 일체화, 다시 말하자면 자기 안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을 체험하는 구체적 수행 방법론으로 ‘수심정기’라는 수행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함으로써 시천주(侍天主), 즉 ‘하늘님’과의 일체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수운은 수심정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으로서 ‘지기금지 원위대항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21자 주문을 열심히 독송하는 방법과 함께 성경신(誠敬信)을 통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2) 무위이화(無爲而化)의 화권(化權)

수운은 자신이 각득(覺得)한 무극대도(無極大道)야말로 각자위심의 낡은 시대를 종식시키고 동귀일체의 새 시대로 만들며, 개벽후 오만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낡은 시대를 다시 개벽하는 가르침이라고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수운 자신이 확립한 동학사상이야말로 최초의 개벽후 오만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기존의 낡은 문명사회를 해체시키고 다시 오만년 동안 지속될 새로운 문명사회를 열기 위한 그 ‘무엇에 비길 수 없이 큰 도(무극대도)’라고 천명하고 있다.

수운은 그 ‘무엇에 비길 수 없이 큰 도’의 근본원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무위이화’라고 말하고 있다. 원래 유위(有爲) 또는 인위(人爲)에 대한 강력한 비판·극복의 의미를 가진 무위의 개념이 문제된 것은 도가의 노자에 의해서였다. 한마디로 노자의 무위는 도인 자연으로부터 일탈하여 많은 문제를 낳는 인간의 유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운이 제시하고 있는 ‘무위이화’의 개념 역시 노자의 무위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노자의 그것과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간적 현실의 면에서 노자의 무위는 동향문명권에 한정된다면, 수운의 무위는 동·서 양대문명권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노자가 말했던 무위는 노자가 생존하던 당시 중국 중심의 ‘천하대란의 현실’인 유위를 비판하고자 제기되었다면, 수운이 말한 무위는 서구문명의 동점현상에서 초래된 조선반도의 위기현상, 즉 ‘동서문명의 충돌에서 초래된 조선반도 위의 천하대란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수운이 주창한 ‘무위이화’의 속뜻은 당시 동점해 오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침략에서 비롯된 모순을 무위화(無爲化)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운이 제시한 무위이화를 ‘하는 일없이 저절로 이룬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배제하는 운명론적 견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운이 강조한 ‘무위이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른바 도 또는 자연한 경지로부터 일탈한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 침략행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민유방본(民惟邦本)이라는 왕정의 이상에서 벗어나 가렴주구와 수탈을 일삼고 있던 조선왕조의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운이 제시한 ‘다시 개혁’과 ‘무위이화’는 천도(天道)로부터 일탈함으로써 빚어진 모순으로 가득한 낡은 시대와 낡은 문명을 극복하고, 천도에 일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명을 열고자 하는 현실부정, 현실비판 사상이자 천도를 회복하는 새 시대 새 문명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진보사상의 일면이 들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지상선경의 건설이 가까이 움을 느낀다.

3) 척왜양이 민족주체사상

수운은 자신이 제정했던 동학의 주요 의례인 검무(劍舞)와 검가(劍歌)를 통하여 당시 조선을 향해 밀려들고 있던 서양 오랑캐(洋夷)를 제압하고자 하였다. 검가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투적 의지를 고양 시키는 한편, 평소 검무를 통한 수련을 한 다음 유사시에 일제히 일어나 오랑캐를 물리치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자신의 가르침을 동학이라 명명한 것은 동국(東國)의 이름을 딴 것으로서 동국의 학인 동학으로 민중들 사이에 널리 침투되고 있던 서학을 제압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동학사상이 지니고 있는 반침략적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왜의 침략을 상기하는 내용이 담긴 가사를 남기면서 동학은 바로 임진년의 원수인 ‘개같은 왜적놈’들을 소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수운의 척왜양사상은 그후 줄곧 동학의 기본사상

으로 계승되어 개항 이후 공공연하게 전파되고 있던 서학교도와의 충돌을 가져오기도 하고, 왜양의 침략이 갈수록 노골화되던 1892·3년에 전개된 대선생 신원운동에서는 척왜양의 요구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1892년 10월 최초의 신원운동인 공주취회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난 척왜양사상은 당시 일반적이었던 민중들의 배외주의와 결합하여 1893년 3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기치로 내걸고 약 3만여의 민중들이 모여 20일 이상 집단시위를 전개하는 호서의 보은취회와 약 1만여명의 민중이 모여든 호남의 금구 원평취회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18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포고되는 수많은 격문과 포고문 속의 반침략적 요구조항으로 이어지게 된다.

6. 동학사상과 혁명의 개념

1) 봉건타파의 분출구

1894년 농민전쟁은 봉건모순과 민속모순을 극복하여 근대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반봉건(反封建) 반제(反帝)운동이었다. 조선후기 군현단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농민항쟁의 흐름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종합하여 봉건모순의 척결을 촉구하는 한편 개항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전쟁에 의하여 아래로부터 분출되어 나온 반봉건적 변혁의지는 개혁에서 개량적으로 수용되었고, 농민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일어난 청일전쟁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일본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제국적 침략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한국 근대사의 출발을 봉건체제의 타파와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의 시작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1894년은 그러한 전환기에 처해 있었다. 이후의 한국 근현대사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모순의 해결을 시대적 과제로 삼았고, 1894년은 그 출발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94년 농민전쟁은 한국 근현대사가 안고 있는 민족적 모순과 계급모순의 해결을 목표로 한 최초의 변혁운동이었다. 오늘의 민족적 계급의 현실에 있어서 1894년 농민전쟁은 하나의 모범과 역사적 교훈을 보여준 것이다.

2) 동학개념의 전이

1894년의 농민전쟁에 대하여서는 일제시기에는 동학당의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1940~1959까지는 「갑오동란」·「동학농민란」·「동학란」의 성격 등의 이름으로 책자가 나온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해방 후 1950년대를 거치면서 반봉건 반침략운동의 성격이 부상되고 농민전쟁으로서의 역사적 의의가 부각되면서 1972년경부터 「갑오동학혁명」·「동학혁명의 운동」 등 책자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는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연구가 활성화 되면서 사회경제적 사정에 입각하여 농민전쟁의 폭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근대민족운동사의 핵심적 줄기로서 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는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경부터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위치」·「동학농민혁명」 등 무수한 책들이 우후죽순과 같이 쏟아져 나왔다.

동학혁명 관계 책자의 일람표가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펴냄 1993. 12)이란 책에 게재되어 있기로 이를 참고삼아 정리하여 표1에 제시하였다. 1002권이 넘는 책 가운데 홍성동학혁명에 관한 책은 홍성여자중학교 이도행 교사가 펴낸 논문 한 권 뿐이다. 그리고 홍주가 원고항이면서 1866년 이전에 진천(鎭川)·진주(晋州)·영해(寧海)에서 작변(作變)한 『이필제(李弼濟)의 난(亂)』 연구본이 여러 벌 나와 있는 것이 특이하다.

동학농민운동이 고부(古阜)농민봉기로 시작됐지만 으레 민란이라 해 왔고 동학란이라 하여 왔다. 여기에서 고부농민봉기를 민란이라고 보기에에는 다소 견해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그 고을 사람들이 군아에 몰려가서 군졸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소원이자 한이 맺혀있는 만석보 수세를 다 거둬서 농민군들에게 모두 환원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해산하지 않고 백산성에서 성을 쌓는 등 집강소일을 보며 두어달 동안이나 해산 안했으니 민란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여기에서 학교의 국정교과서에서는 무어라고 규정짓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1992년 국정교과서에는 동학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1993년 3월 1일자로 나온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운동 또는 동학혁명 등으로 표기되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동학농민운동 또는 동학혁명이니 하는 개념이 무엇인

가를 중학교 국사책에서 대략 줄거리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60대 70대 노인들에게는 동학민란 하다가 동학란, 그리고 동학란 하다가 동학혁명 또는 동학농민운동 아니면 동학농민전쟁이라 하니 충청도 양반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에 맞아들지 않는다. 강연의 주제를 들고 나온 저 역시 75가 넘는 사람이라 동학혁명을 떠들어야 하나 그 생경한 이미지가 부드럽지 않은 지라 함께 공부 삼아서 표준이 되는 중학교책에서 동학의 사상적 연맥보다도 동학사건의 요체를 더듬기로 한다.

3) 동학농민운동의 요약(국정교과서 내용)

우선 동학농민운동 요점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원인으로서는 ① 일본의 경제침투로 농민의 불만이 조장되면서 경제회복을 도모하려는 자각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② 교조신원운동이 실패하면서 외세배격 사상이 점차 고조되자 동학의 교세가 확장되어 나갔다. ③ 그때 마침 조병갑의 비행으로 전봉준의 고부민란이 일어났다.

다음 그 결과는 제1차 봉기에 이어 제2차 봉기까지 일어났다. 1차 봉기에서는 부패정치개혁을 주장하는 농민에 호응하여 정부에서는 내정개혁을 약속하였다.

집강소를 설치하여 신분제 폐지, 토지의 균등분배 등 개혁의 추진을 보았다. 2차 봉기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웠다. 우금치전투, 세성산전투, 마지막으 홍주성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완전 패망하였다.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는 대내적으로 갑오개혁이 추진되었고 대외적으로 청일전쟁이 초래되었다. 이때 외세에 대항한 팀은 농민이 주축이 되었던 바 이 운동은 근대사회로 전진하는 계기를 만든 대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여기에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일어난 두드러진 일은 청일전쟁이요, 홍범 14조의 발표 그리고 갑오개혁이었다.

다음으로 중학교 국사문제 출제의 비중을 보면 동학관계가 31문항이고 의병관계가 1문항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참고로 다섯 가지를 선택하여 동학농민운동 이해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① 동학농민운동이란 개념의 정의는? : 농민이 주축이 되어 외세에 대항하고

근대사회로 전진하는 계기를 만든 대규모의 근대적 민족운동이다.

②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일본의 경제적 침투, 관리들의 착취와 횡포,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일어났다. 1893년의 무역량을 보면 수출에 있어서 일본의 비율이 90.9%이고 총수입의 50%가 일본이 차지했다. 이 비율표는 1893년의 무역량에서 나타나 있는 바 아래의 표(2)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③ 방곡령 선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일본의 경제적 침투로 농촌이 파탄이 될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었다.

④ 위정척사운동과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는가? : 외세의 침투에 항거한 점이다.

⑤ 동학농민운동의 자치기구 집강소에서는 무엇을 하였는가? :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각지에 개혁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신분제의 폐지와 토지의 균등한 분배 등을 목표로 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농민들의 집강소운영의 실적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집강소에 관한 단행본과 논문들이 7~8권 이상 출판되었다. 여기에서는 서울대학교 신용하 교수의 저서 세 권에 의거하여 논제의 중심을 이끌면서 주변을 다듬는 의미로 일본 세고 여사가 쓴

『갑오농민전쟁기의 집강소에 대하여 : 1982』와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본 133집 1992』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기록으로는 『갑오약력』, 『동학란 기록』과 『오하기문(梧下記聞)』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騰錄)』 등에서 뽑았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3의 2) 「갑오경장」에서는 역사문제연구소장 이이화(李離和)저서와 정진상의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1992』,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에서 대부분 인용하였다.

7. 동학사상 이념의 구현

1) 집강소의 설치와 농민통치

『오하기문(梧下記聞)』은 5월분의 기록에서 동학농민들이 각군에 ‘집강’을 둔

사실을 기록하여 설명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봉준은 그후 열읍(列邑)을 순시하다가 남원에 도착하자 6월 15일경에 김개남과 함께 동학농민들의 남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전봉준은 각읍(各邑)의 동학포(東學包)에 명령을 전하여 각읍에 도소(집강소)를 설치해서 그 친당을 세워 수령의 일을 행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때부터 도내의 군마와 전곡(錢穀)이 모두 동학농민군의 소유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단순한 ‘난민’이 아니라 이미 ‘역모’가 성립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은 전주화약 성립 후 전주성을 관군에게 비워주고 자진해산의 형식을 취하여 자기 고을에 돌아가자 무장을 풀지 않고 그대로 동학농민군으로 주둔하면서 자기의 출신 고을에서 ‘면·리집강’과 ‘군·현집강’을 임명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지방행정의 핵심적 기본단위는 군현이었으므로 동학농민들이 원하는 폐정개혁을 단행하거나 그 단행을 감독하려면 ‘면·리집강’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군·현집강’을 임명해야 비로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비워주고 자기 고을로 돌아가자 전라관찰사 김학진이 허용한 면리집강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제1차 농민전쟁 때의 동학농민군 점령지에서의 읍폐민막 교정을 위한 ‘집강’임명의 전통과 방식을 계승해서 군현집강을 임명해 나간 것이었다.

즉 동학농민군은 점령하는 매읍에 통치를 담당하기 위한 접을 설치하고 한 사람의 접주를 뽑아 ‘태수’(=守令·守宰)의 일을 보게 하면서 이를 ‘집강’이라고 불렀으며, 동학농민군의 ‘집강’의 임명은 그 고을의 수재가 도망하고 없거나 또는 남아 있거나를 불문하고 그에 관계없이 동학농민군이 점령지에 일방적으로 임명하여 읍폐민막을 고치고 ‘취치(就治)’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에 ‘집강’은 임명되었지만 그의 읍폐민막 교정의 농민통치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집강소’라는 통일된 명칭은 없었다. 그 대신 집강이 점령지의 임시 통치를 담당하는 곳을 대도소(大都所), 도소(都所), 대의소(大義所), 행군의소(行軍義所) 등으로 불렀다.

(1) 읍폐민막의 교정사례

제1차 농민전쟁 시기의 ‘집강’의 점령지에서의 읍폐민막 교정의 통치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3월 21일부터 4일간 동학농민군이 고부를 점령하여 단행한 다음과 같은 읍폐민막의 교정활동에서 그 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

① 탐관오리의 처벌 : 관속 중에서 안핵사 및 군수에게 부하뇌동하고 탐학한 자 수명을 색출하여 처벌.

② 군기고를 열어 총창(銃槍)과 탄약을 수습해서 동학농민군의 무기를 보충 강화.

③ 동학농민군 지원자의 증모와 농민군 병력의 강화.

④ 읍내에 있는 청죽(靑竹)을 베어서 죽창을 만들어 총 없는 농민을 무장시킴.

⑤ 옥문을 열어 고부민란으로 투옥된 농민들과 기타 억울하게 투옥되어 있는 농민들을 석방.

⑥ 식량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휼.

⑦ 고부읍의 폐정을 대략 교정.

이상의 고찰을 간단히 요약하면 ① 동학농민군은 제1차 농민전쟁 때 점령한 읍에서 읍폐민막을 교정하는 책임자로서 '집강'을 임명했는데 이것이 집강소의 주된 기원이 되었고, ② 5월 7일 전주화약 때에 목계된 것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관군에게 내주고 자진해산하여 각각 자기의 출신지역에 돌아가는 대신 동학농민군은 '면리집강소'를 임명하여 관변측이 폐정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감시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③ 5월 8일부터 동학농민군은 귀향하자 무장을 풀고 농민군을 해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무장한 채 동학농민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는 '군현집강소'를 설치해 나갔으며, ④ 6월 15일 남원대회에서 동학농민들은 전라도 53개 군현 모두에 군집강소를 빠짐없이 설치하여 혁명적인 과감한 폐정개혁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농민통치의 실시를 결정하였고, ⑤ 얼마 후에 일본군의 서울에서의 궁궐침범과 내정간섭의 변란이 일어나자 6월말 경에 전라관찰사 김학진은 농민군 총대장 전봉준 등을 전라감영에 초청하여 관민상화지책을 의논한 결과 전봉준측의 제의에 따라 이미 대부분 설치된 '군집강소'를 사후적으로 공인하여 합법화시켜 주고 동학농민군과 힘을 합하여 일본침략군으로부터 전주를 공수하기로 해서, 집강소는 성립되고 공인된 것이었다.

(2) 집강소의 조직

동학농민혁명운동(또는 갑오농민전쟁) 시기의 집강소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 ① 집강소의 집행기관
- ② 의시기관
- ③ 집강소 호위군
- ④ 방조기관(幫助機關)

집강소의 집행기관은 「갑오약력(甲午略歷)」에 의하면, ① 집강(執綱), ② 서기(書記), ③ 성찰(省察), ④ 집사(執事), ⑤ 동몽(童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집강'은 집강소의 총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집행기관의 책임자였다. 집강은 주로 동학의 접주 중에서 임명되었다.

(3) 폐정개혁

동학농민군이 호남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농민통치를 실시하면서 단행한 폐정개혁의 중요한 것들을 항목화하여 간단히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탐관오리의 징계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하자마자 먼저 탐관오리들을 색출하여 징계하였다. 동학농민군이 고을 수령들을 힐책한 '조매관장(嘲罵官長)'이나 부정부패하고 탐학한 이서들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다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고을의 집강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주목할 것은 집강소가 종래 농민들의 힘이 미치지 못했던 수령급 탐관들에 대한 징계를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② 신분해방운동과 사회신분제도 폐지

집강소는 양인신분층과 노비를 비롯한 천민신분층의 신분해방 및 사회신분제도 폐지운동을 과감하게 전개하였다. 『오하기문(梧下記聞)』은 이 운동의 일 단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③ 삼정(三政)의 개혁과 무명잡세(無名雜稅)의 철폐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의 삼정을 개혁하였다.

집강소는 우선 먼저 농민의 관아에 대한 고리채로 되어 있는 '환곡(還穀)'을

무효화하고 ‘환곡제도’를 영구히 폐지하였다. 또한 『동학사』 초고본에는 ‘군안(軍案)’을 불태워 버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군포세(軍布稅)의 폐지 또는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성의 동학농민군의 죄목에는 ‘공납(公納)을 저알(沮遏)’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세와 군포세 등 국공과(國公課)를 삭감하여 정부의 부과액대로 납부하지 말도록 한 것이었다.

호남의 집강소의 농민통치를 본받아 강원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단행하기 시작한 폐정개혁을 보면, 그후 동학농민군은 강릉을 점령하자마자 9월 5일 동문(東門)에 “삼정의 폐막을 교혁(矯革)하고 보국안민한다”는 방문을 붙였다. 동학농민군은 영월·평창·정선을 점령했을 때에도 “삼정을 마음대로 정했으며〈창정정삼정(昌定政三政)〉” 강릉의 “부중(府中)에 4~5일 유주(留住)하는 동안에도 군포세와 환곡을 바로 잡아서 삼정을 임의로 삭감”하였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의 강원도에서의 활동이었지만, 그 활동은 호남의 집강소를 본받은 것이므로 삼정의 개혁은 집강소 농민통치에서는 최우선 개혁정책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집강소의 농민통치가 삼정의 개혁과 동시에 무명잡세를 모두 혁파했음은 물론이다.

④ 고리채의 무효화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환곡을 무효화하고 환곡제도를 영구히 폐지함과 동시에 이왕의 모든 사적 고리채도 모두 무효화하였다. 집강소의 이 대개혁으로 지주와 부호들의 부채농이 되어 간혹한 고리채로 착취당하던 가난한 농민들이 모두 부채에서 해방되었다. 음력 7월초에 전봉준이 각 읍 집강소에 보낸 통문에서 “사채는 시비를 물론하고 절대로 시행치 못하게 하며 이 지시를 어기는 자는 마땅히 영(營)에 보고하고 처벌하라”고 엄명한 곳에서 고리채의 무효화와 고리대부의 엄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⑤ 미곡의 일본에의 유출 방지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해안지방에서 미곡을, 무역을 통해서든지 아니든지간에 일본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해안의 선박들을 검색하여 일본으로 실어가는 미곡들은 압류하였다. 집강소의 이러한 활동은 미곡의 각종의 통로로 일본으로 유출되어 국내의 미가를 앙등시킴으로써 빈민들의 민생이 어려

위침을 경험하고, 이것을 일본의 일종의 경제침략으로 간주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것이었다.

⑥ 인민소상(人民訴狀)의 처리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백성들이 제출한 '소장(訴狀)'을 백성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당하게 처리하여 그 동안 농민들이 관과 양반과 토호들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숙원', '억원'을 모두 집강소의 농민권력에 의하여 풀어주고 해결해 주었다.

『동학사』에서 집강소의 활동을 기술하는 중에 “일변으로 인민의 소장을 처리하며”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 김윤식(金允植)이 “호남의 비도들은 …백성들이 면소(冤訴)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판결해서 도리어 민심을 얻고 있다고 한다”고 기록한 것도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위정척사파 유생 정석모(鄭碩謨)가 “천민이 함께 모두 도량(跳梁)하여 비단 토재(討財)만 할 뿐아니라 숙원(宿怨)을 갚으려 기도해서 호남 일대가 혼돈의 세계가 되었다”고 기록한 것은 집강소의 인민소장의 처리가 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방향에서 실행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⑦ 관리의 문부(文簿)의 검열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관리들이 과거에 작성한 문부와 집강소 설치 후 집강소의 방조기관으로 일하는 관리들이 작성한 문부를 날날이 '검열'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고 농민통치를 엄정하게 하였다. 『동학사』에서 “일변으로 관리의 문부를 검열하며”라고 한 것은 이를 가리킨 것이다.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과거의 관리들의 문부도 검열했고 또 스스로 동학농민군의 문부도 작성하였다. 관군측은 후에 이를 압수해서 보고 “출납(出納)에 답인성책(踏印成冊)한 것의 자세함이 관부(官府)의 문부와 같았다”고 보고하였다.

⑧ 군수전(軍需錢)과 군수미(軍需米)의 비축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증강된 동학농민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수전과 군수미의 조달에 노력하였다. 집강소의 군수전과 군수미의 조달방법은 ① 관곡(官穀)과 관전(官錢)을 징발하여 사용하는 방법, ② 적대세력인 부호와 양반으로부터 '토재(討財)'하여 군수전과 군수미를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 ③ 일정

한 규정을 만들어 민간인으로부터 군수전과 군수미를 할당해서 징수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집강소의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의 일전이 감지되자 조달된 군수전과 군수미를 집강소 지배하의 은밀한 곳에다 '비축'하였다. 예컨대 김개남은 구례의 화엄사에 군수미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은밀하게 비축하여 그 종질이 되는 접주에게 관장케 하였다.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일본침략군과의 일전이 불가피하게 다가옴을 예견하고 제2차 농민전쟁 봉기의 준비도 폐정개혁과 함께 감행했던 것이다.

2) 갑오경장

(1) 집강소와 갑오경장

집강소의 농민통치 내용과 갑오경장(甲午更張)의 내용이 매우 많이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오직 완전히 다른 것은 집강소의 농민군 강화, 무기와 마필의 공급, 군수전과 군수미의 비축 부분뿐이다.

특히 집강소의 신분해방(身分解放)과 사회신분제 폐지의 활동은 갑오경장(甲午更張)에 있어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6월 28일의 사회신분제(社會身分制) 폐지(廢止)의 의안(議案) 및 7월 2일의 이를 칠반천인(七班賤人)에게 확대하여 보완하는 의안(議案)과 완전히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집강소(執綱所)는 5월 8일부터 시작하여 5월말까지 호남의 다수의 지역에서 설치되었고, 갑오경장의 개화파 정부는 6월 23일(양력 7월 25일) 수립되었으며, 군국기무처가 수립된 것은 6월 25일이고 군국기무처가 중앙관제의 개혁 등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것은 6월 26일부터이며, 사회신분제(社會身分制)의 폐지 등 대개혁정책을 단행하기 시작한 것은 6월 28일부터이어서, 집강소의 폐정개혁의 농민통치가 갑오경장(甲午更張)보다 약 50일 앞선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집강소(執綱所)의 폐정개혁(弊政改革)의 농민통치가 갑오경장의 대개혁의 단행을 불가피한 것으로 밀으로부터 밀어올린 원동력이었으며, 갑오경장은 갑오농민전쟁의 농민의 요구와 집강소(執綱所)의 폐정개혁의 농민통치를 흡수하고 개화파식으로 확대해서 번역하여 집행한 것이 대부분이었음을 시

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강소의 농민통치와 갑오경장은 구조적으로 상호보완적이었으며, 실제로 집강소의 농민통치는 갑오경장의 대개혁정치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일본 「조일신문(朝日新聞)」 기자의 취재기록에는 “금회(今回) 조정(朝廷)의 개혁(改革)에는 동도(東徒)가 자못 찬성(贊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는 기록도 있다.

집강소(執綱所)의 농민통치와 갑오경장의 대개혁정치가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을 보인 것은, 집강소의 농민군축에서는 갑오경장 정부에 대한 일본군(日本軍)의 간섭과 그에 굴복한 것으로 비추인 정부의 태도이었고, 갑오경장 정부측에서는 집강소의 전쟁 준비이었다. 이 측면이 갑오경장 정부와 집강소가 서로 융화하지 못한 측면이었다.

(2) 폐정개혁의 기본 내용

이들 폐정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정치적 요구조항이다. 처음부터 행동목표로 진멸권귀(盡滅權貴)에 두고 있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 홍선대원군을 옹립하고 민씨정권을 타도하려는 의지는 폐정조항보다 그들의 격문 창의문(倡義文) 등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민씨들의 반동적 정치형태는 여기에서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다만 홍선대원군의 옹립은 적어도 그들의 개혁요구와 상통한 바가 있다. 홍선대원군은 사창(社倉)의 설치, 동포(洞布)의 실시, 사색(四色)의 등용 등 민막을 해결했으며, 척화정책을 통해 농민군의 반외세 지향과도 연관된다. 그러나 홍선대원군이 경복궁쿠데타 이후 개화정권의 이용물이 되자, 비록 세밀하게 연합전선을 모색했으나 농민군 지도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었다.

둘째는 국가수취와 관련된 폐정개혁 요구이다. 여기에는 물론 전통적인 삼정 관련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잡세·연역(烟役) 등 광범위한 징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는 국가제도와 관련된 폐정개혁 요구이다. 전운영(轉運營), 균전사(均田使)의 폐지를 요구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는 국가정책에 관련된 폐정개혁 요구이다. 윤회선(輪回船)·진고(賑庫)

· 전보국(電報局)의 폐지 요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는 관리의 부정이 관계되는 내용들이다. 이는 상충부의 매관매직의 시정, 수령·이서의 부정, 보부상의 작폐, 토호의 횡포까지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는 선주(船主), 객주(客主) 등 도가상인(都賈商人) 또는 고리대업자의 폭리와 능탈(勒奪)을 막아달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국상인의 상행위 관련조항이다. 이는 첫번째 폐정조항을 제시한 제중의소(濟衆義所) 격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① 타국잠상(他國潛商)이 높은 값으로 쌀을 사는 것, ② 각 포구의 무미상(買米商)은 모조리 금단할 일, ③ 각 포항의 잠상들이 쌀을 사는 것은 모조리 금단할 일, ④ 각 포구의 사사로운 무미(買米)는 엄금할 일, ⑤ 각국 사람의 상가(商賈)는 각 항구에서 매매하고 도성(서울)에 들어와 시장을 벌이지 말며 각처에 나와 임의로 행상하지 말 것, ⑥ 대동미 상납(大同米 上納) 전에는 각 포구의 잠상들이 쌀 사는 것을 금단할 것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상을 비롯한 청상 등이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곡물을 사들이고 잡화(雜貨)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잠상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조약상 인정되어 있지 않은 잠무(潛買), 즉 밀무역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장시질서 바깥에서의 매매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준가무미(峻價買米)는 전대(前貸)의 청전매(靑田買), 즉 입도선매(立稻先買)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아무튼 이들 폐정개혁은 소리(小吏), 중소농, 소상의 보호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고 근본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농민·상인의 경제적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에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반외국 상인에 대한 여러 조항은 그들의 반외세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3) 갑오개혁의 내용과 결과

군국기무처에서 낸 첫 의안은 이러하다.

- ① 지금부터 국내외의 공사문첩(公私文牒)에는 개국기년을 쓸 것.
- ② 청국과는 약조를 개정하고 다시 특명전권공사를 여러 나라에 파송할 것.
- ③ 문벌과 반상의 등급을 깨부시고 귀천을 가리지 말고 인재를 뽑아 쓸 것.

- ④ 문무는 존비의 구별을 폐지하고 품계에 따라서만 서로 의식을 거행할 것.
- ⑤ 죄인은 자기 외에는 연좌율을 일체로 베풀지 말 것.
- ⑥ 적첩(嫡妾)에 모두 아들이 없는 뒤에야 양자를 허락하는 옛 법을 밝힐 것.

⑦ 남녀의 조혼은 엄금하고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가 지난 뒤에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허락할 것.

⑧ 과부의 재가는 귀천을 가릴 것 없이 자유에 맡길 것.

⑨ 공사노비의 법은 일체로 혁파하고 사람의 판매를 금할 것.

⑩ 비록 평민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 편한 의견이 있는 자는 군국기무처에 상서(上書)하여 회의에 붙일 것.

⑪ 각 아서(衙署)의 조예(皂隸)는 필요한 수량을 헤아려 가감해서 설치할 것.

⑫ 조관(朝官)이나 사서의(士庶人)의 관복(官服)이나 사복(私服)도 편리하게 고치고 장졸(將卒)도 이동(異同)도 두지 말아야 한다.

일본측은 군국기무처에서 직접 발언권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7월 20일에 대조규개를 통해 외무대신 김윤식과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을 맺어 다시 다짐을 하고 있다. 이 전문에 “조선국의 독립과 자주의 큰 기반을 기획하여 다시 공고에 이르게 하고 아울러 통상무역의 길을 장려하고 확충하여 양국의 교의(交誼)를 도모함에 더욱 돈독을 더하게 한다”고 밝히고 7개항을 열록(列錄)하였는데 그 2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때부터 일본국정부는 조선국정부의 내정개혁을 깊이 바라고 조선국정부도 그 급무를 잘 알아 권면(勸勉), 여행(勵行)하기에 이르렀으니 각 절목(節目)을 반드시 밝혀서 차례로 시행한다.

② 일본국정부는 평소 조선국 돕기를 원해서 독립자주의 공독(功篤)을 이루게 하였기 때문에 장래에 조선국의 독립자주를 공고히 하는 데에 상관되는 사의(事宜)는 양국 정부의 파원(派員)이 회동하여 서로 상의해서 정하게 한다. 가 갑오개혁의 그 대강의 요지이다.

이와같은 갑오경장은 조선개국 이래 500년을 이어온 구제도를 일선한 제도상

- ④ 문무는 준비의 구별을 폐지하고 품계에 따라서만 서로 의식을 거행할 것.
- ⑤ 죄인은 자기 외에는 연좌율을 일체로 베풀지 말 것.
- ⑥ 적첩(嫡妾)에 모두 아들이 없은 뒤에야 양자를 허락하는 옛 법을 밝힐 것.

⑦ 남녀의 조혼은 엄금하고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가 지난 뒤에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허락할 것.

⑧ 과부의 재가는 귀천을 가릴 것 없이 자유에 맡길 것.

⑨ 공사노비의 법은 일체로 혁파하고 사람의 판매를 금할 것.

⑩ 비록 평민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 편한 의견이 있는 자는 군국기무처에 상서(上書)하여 회의에 붙일 것.

⑪ 각 아서(衙署)의 조예(皂隸)는 필요한 수량을 헤아려 가감해서 설치할 것.

⑫ 조관(朝官)이나 사서의(士庶人)의 관복(官服)이나 사복(私服)도 편리하게 고치고 장졸(將卒)도 이동(異同)도 두지 말아야 한다.

일본측은 군국기무처에서 직접 발언권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7월 20일에 대조규개를 통해 외무대신 김윤식과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을 맺어 다시 다짐을 하고 있다. 이 전문에 “조선국의 독립과 자주의 큰 기반을 기획하여 다시 공고에 이르게 하고 아울러 통상무역의 길을 장려하고 확충하여 양국의 교의(交誼)를 도모함에 더욱 돈독을 더하게 한다”고 밝히고 7개항을 열록(列錄)하였는데 그 2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때부터 일본국정부는 조선국정부의 내정개혁을 깊이 바라고 조선국정부도 그 급무를 잘 알아 권면(勸勉), 여행(勵行)하기에 이르렀으니 각 절목(節目)을 반드시 밝혀서 차례로 시행한다.

② 일본국정부는 평소 조선국 돕기를 위해서 독립자주의 공독(功篤)을 이루게 하였기 때문에 장래에 조선국의 독립자주를 공고히 하는 데에 상관되는 사의(事宜)는 양국 정부의 파원(派員)이 회동하여 서로 상의해서 정하게 한다. 가 갑오개혁의 그 대강의 요지이다.

이와같은 갑오경장은 조선개국이래 500년을 이어온 구제도를 일선한 제도상

의 근대적 개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이는 오로지 동학이념의 구체적인 구현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표 1〉 동학관계 서적

· 동학관계 참고 문헌	626
· 단 행 본	248
· 박사논문	10
· 석사논문	65
· 일본인저서	33
· 이북쪽저서	20
○ 합계	1002

〈표 2〉 1893년의 무역량 비교

국 별	수출					수입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청 나라 ㉠						7.9%							
													49.1%
일 본 ㉡													90.9%
													50.2%
러 시 아 ㉢						1.2%							
													0.7%
총 계	총 수입액 3,880,155달러 총 수출액 1,698,116달러												

東學革命의 洪州戰鬪

李道行

(洪城女中 教師)

목 차

머 리 말	1
I. 충남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4
1. 충남 서북부 지역(내포지역)의 특징	4
2. 동학교세의 성장	7
II. 충남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12
1. 제1차 농민전쟁기의 충남 동학농민군	12
2. 제2차 농민전쟁기의 충남 서북부 지역 동학농민군	17
(1)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의 진로	20
가. 동학농민군의 진로	20
나. 관군의 진로	22
다. 일본군의 진로	24
(2)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27
1) 제1기	27
가. 태안·서산의 봉기	27
나. 보령·남포의 봉기와 광천전투	30
다. 목소대도소 전투	32
2) 제2기	34
가. 승전곡 전투	34
나. 구만포 전투	36
다. 예산산성 전투	38
라. 덕산역말 전투	41
마. 홍주 전투	42
3) 제3기	47
가. 해미전투	48
나. 서산 매현 전투	49
다. 보령·남포지역의 움직임	50
맺 음 말	52
참 고 문 헌	55
ABSTRACT	57

[부록] 충남 서북부지역의 동학농민전쟁 관련 금석문 자료 소개	57
1. 招討使李公勝宇清德碑	58
2. 行牧使兼招討使李公勝宇斥邪善政碑	59
3. 觀察使朴公齊純愛民善政碑	60
4. 招討使李公碑	61
5. 行牧使兼招討使李公勝宇百世不忘碑.....	62
6. 行牧使兼招討使李公勝宇清德永慕碑	63
7. 儒會長幼學朴舜熄著德碑	64
8. 湖沿招討使李公勝宇紀蹟碑	65
9. 贈軍務參議金公秉喙有公之碑	66
10. 義士韓基慶旌閭記	68
11. 贈軍務參議金公秉喙忠節戰忘碑	69
12. 七義碑	70
13. 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	71
14. 春菴上師朴寅浩遺墟碑	73

그림목차

[그림 1] 1차 봉기시의 충남 동학농민군 움직임	14
[그림 2]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이동로	22
[그림 3] 호연초토사 이승우와 이두황 장위영 관군의 진로	24
[그림 4] 일본군의 진로	26
[그림 5] 광천전투 상세도	31
[그림 6] 목소대도소 주변상세도	33
[그림 7] 송전곡 전투상황도	36
[그림 8] 구만포 주변 상세도	37
[그림 9] 예산산성 주변 전투 상세도	40
[그림10] 덕산 역말 상세도	41
[그림11] 홍주전투 상세도	44
[그림12] 해미 전투 상세도	48

INDEX

Introduction	1
Chapter I	10
Chapter II	25
Chapter III	40
Chapter IV	55
Chapter V	70
Chapter VI	85
Chapter VII	100
Chapter VIII	115
Chapter IX	130
Chapter X	145
Chapter XI	160
Chapter XII	175
Chapter XIII	190
Chapter XIV	205
Chapter XV	220
Chapter XVI	235
Chapter XVII	250
Chapter XVIII	265
Chapter XIX	280
Chapter XX	295
Chapter XXI	310
Chapter XXII	325
Chapter XXIII	340
Chapter XXIV	355
Chapter XXV	370
Chapter XXVI	385
Chapter XXVII	400
Chapter XXVIII	415
Chapter XXIX	430
Chapter XXX	445
Chapter XXXI	460
Chapter XXXII	475
Chapter XXXIII	490
Chapter XXXIV	505
Chapter XXXV	520
Chapter XXXVI	535
Chapter XXXVII	550
Chapter XXXVIII	565
Chapter XXXIX	580
Chapter XL	595
Chapter XLI	610
Chapter XLII	625
Chapter XLIII	640
Chapter XLIV	655
Chapter XLV	670
Chapter XLVI	685
Chapter XLVII	700
Chapter XLVIII	715
Chapter XLIX	730
Chapter L	745

머 리 말

朝鮮末期 민중 운동의 총합이라 할 1894년 東學農民戰爭은 탐관오리의 학정에 반발한 전 봉준의 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주 합락 및 집강소 시기(제1차 봉기)와 일본을 비롯한 외세로부터 민족의 자주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항일전쟁시기(제2차 봉기)로 나누어 정리될 수 있다. 東學農民戰爭은 안으로는 조선의 부패와 모순을 시정하여 새 사회를 이루기 위한 반 봉건적 성격을, 밖으로는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경계하고 나선 반침략적 성격을 지닌 운동이었다.

東學農民戰爭에 관해서는 諸學者의 연구에 의해 이제까지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으며, 1) 동학농민전쟁 발발 100 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그러나 충남 지역에 한정하여 기술된 논고는 극히 적다. 2) 이는 동학농민전쟁이 全琫準의 南接 學義가 主流를 이루었기 때문에 北接 지역은 관심의 圈外에 속해 있었다는 점과 충남 지역의 농민 전쟁에 관해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갑오년 2차 봉기 시 남·북접이 합류한 농민군의 주력이 公州로 진격하고 있을 때, 崔漢圭는 3천군을 거느리고 공주 유구 방면을 지키었고, 鄭元俊은 5천군을 거느리고 옥천·영동·황간 등을 지키었고, 金福用·李熙人 등은 4천군을 거느리고 목천 細城山방면을 지키었고, 박덕철·박인호 등은 7천군을 거느리고 홍주·예산 등 방면을 지키었다는 3) 사실

1)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 검토와 1차 사료의 소개는 다음을 참조

- 양상현, 「1894년 농민 전쟁과 항일의병전쟁」, (『남북한 역사 인식 비교 강의』, 일송정역사신서 7, 1989), 120-158쪽
- 김창수, 「동학혁명 연구사론」, (『신인간』, 1988, 1.)
- 박맹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 1991.)
- 이이화, 「현존 농민전쟁관련사료」, (조선일보 1993. 7.13.)
- 박맹수, 「사료로 읽는 동학혁명」, (전북문화저널사 『전북문화저널』, 1993, 1-7월호) 참조.

2) 충남 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을 다룬 학술적 논고로는

洪性諫, 「1894년 집강소기 설포하의 향촌 사정 -부여 대방면 일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39집, 1983. 연세대 연구원), 65-106쪽

梁晉錫, 「충청 지역 농민 전쟁의 전개 양상」, (공주대학교교과45주년학술발표, 1993. 11. 4) 의 두 편이 있는데, 洪의 논문은 부여 대방면에서의 농민군포의 설치·운영·해체 과정을 분석한 지역 사례 연구이며, 梁씨의 논문은 충청 지역의 농민 전쟁의 면모를 밝히고자 한 것으로 지역적 사례보다 전체적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3) 吳知詒, 『東學史』, (이장희 교주, 서울: 박영사, 1974), 174쪽. 『東學史』는 농민전쟁의 참가자인 오지영에 의해 1940년 서울 영창서관에서 발행되었으며, 동학농민전쟁의 기본 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하 『東學史』로 약함

은 동학농민전쟁의 전체적 조명을 위해서는 지역적 고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충남 서북부 지역은⁴⁾ 朴熙寅(字는 德七)⁵⁾ 과 朴寅浩⁶⁾가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 농민 전쟁의 실상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못하다.⁷⁾ 따라서 이 지역의 동학 농민 전쟁의 시말을 고증하는 작업은 농민 전쟁의 전체적 실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용한 주된 사료는 첫째, 농민군 측의 것으로써 동학농민 전쟁 참여자가 남긴 기록물⁸⁾인 朴寅浩의 「甲午東學起兵實談」, 文章峻의 「文章峻歷史」, 曹錫憲의 「北接日記」, 洪鍾植의 「東學亂 實話」다. 이들 개개의 사료는 시간 서술의 부정확, 내용의 소략함 등이 있으나 4개의 자료를 종합할 때 시간적인 흐름과 내용의 보다 분명한 전개를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측 사료로써 『駐韓日本公使館記錄』⁹⁾이 있는데, 이 자료는 농민군 진압에 참여한 일본군의 전황 기록으로 무엇보다도 시간과 내용의 정확성이 두드러진다.

- 4) 여기에서 말하는 충남 서북부 지역은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온양, 신창, 예산, 홍성, 보령, 남포 등지를 말한다. 이를 '내포 지역' 또는 '홍주목 주변 지역'이라고 지칭해도 되겠다.
- 5) 『동학사』에 당진 면천에서 기병한 것으로 전하는(164쪽) 湘菴 朴熙寅은 禮包 大接主로서 한때 龜菴 金演局과 同軌에 있던 관계로 동학의 正統을 이은 천도교의 기록에서 많이 누락되었다. 그런데 朴熙寅은 朴寅浩와 함께 洪州 전투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다.
- 6) 春菴上師 朴寅浩(1855~1940)는 덕산군 장촌면 막동에서 출생하여 1883년 29세에 동학에 입도하였다. 이후 갑오년에는 德義大接主로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고, 1908년 천도교의 4대 大道主가 되었다. 또한 3.1운동 때는 48인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고, 교육, 문화,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朴來源, 「춘암상사의 생애와 사상」, 『신인간』, 1970.1, 천도교신인간사) 21~29쪽 참조
- 7) 崔玄植 著 「甲午東學革命史」(정주: 鄉土文化社, 1980)에는 관한 사료를 이용하여 예산, 홍주, 해미, 서산의 농민군 진압 상황이 정리되어 있고, 具良根 著 「甲午農民戰爭原因論」에는 "洪州戰"이란 제목으로 일본 신문용 인용 2쪽 분량이 서술되어 있으나, 전후 관계 연결이 안되어 있다. 한편 朴商健의 「唐津地域 中心의 東學農民戰爭」, 『內浦文化』, 제4호 1992. 당진향토문화연구소. 38~56쪽)은 자료의 이용이 불충분하지만 충남 서북부 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 8) 충남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이 남긴 1차 사료는 다음과 같다.
 - A) 朴寅浩, 「甲午東學起兵實談」, 『中央』 16, 1935.2 조선중앙일보사) 46~48쪽. 이하 「甲午東學起兵實談」으로 약함
 - B) 文章峻, 「文章峻歷史」, 『新人間』 372, 1979.11) 이하 「文章峻歷史」로 약함
 - C) 曹錫憲, 「北接日記」-원명은 창산후인 조석헌 역사록, 『韓國思想』 13, 1975.12) 이하 「北接日記」로 약함
 - D) 洪鍾植 구술, 春波記, 「동학란 실화」, 『나라사랑』 제15집, 1974) 이하 「동학란 실화」로 약함, 본 자료는 「新人間」 34, 1929.4에 처음 기록되었다.
- A) 자료는 기자에 의해 기록된 덕포 대접주이자 농민군 지도자인 朴寅浩의 회고 필담인데, 날짜는 분명하지 않으나, 해미 여미평 집결에서 홍주 전투까지의 상황이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B) 자료는 都執 문장준의 고목으로 1923년(포덕64)에 처음 기록되었으며, 내용은 소략하나 날짜 정리가 상세하다. C) 자료는 서산에서 출생하여 朴熙寅에게서 동학을 전수한 曹錫憲이 갑오년 9월부터 1931년까지 38년간의 경험을 일기로 남긴 신빙성이 높은 자료다. D) 자료는 농민전쟁 당시 德包 접주로서 활약한 홍종식의 구술로 날짜는 부정확해도 갑오년 초의 정세를 잘 기록하고 있다.

9) 國史編纂委員會,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 1986~1991년 간행 이하 「公使館記錄」으로 약함.

세계로 『官報』¹⁰⁾와 『日省錄』¹¹⁾ 등의 관찬 사료로 연대기의 정확성은 인정할 만하나 내용이 소략한 편이다. 上記한 일본측 사료와 관찬 사료는 내용이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동학농민전쟁 전개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유림들의 기록¹²⁾과 촌로들의 구전을 바탕으로 본고를 정리하고자 한다.

10) 『舊韓國官報』, 한국학자료총서 제1권, 아세아문화사, 1973. 이하 『官報』로 약함

11) 東學亂史料, 『日省錄編』 其 一~三, (『亞細亞研究』 3:1~2, 4:1), 1960.6~12.6.16 이하 『日省錄』으로 약함

12) 이 지역의 유림 중 復菴 이 설(1850~1906)은 승정원 우부승지로 있다가 갑오년 6월에 낙향하여 洪州 목사 이 승우의 농민군 토벌에 관여했다. 『復菴集』에 실린 『與洪牧書』는 북암이 홍주목사에게 보낸 편지로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못했는데, 김상기, 『復菴 이 설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고찰』, (『于江權兌遠先生定年紀念論叢』, 1994.2 출간 예정)에 약간 인용되고 있다.

I. 충남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1. 충남 서북부 지역(내포 지역)의 특징

1894년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 지역은 지금의 태안군·서산군·당진군·아산군·예산군·홍성군·보령군을 포함한다.¹³⁾ 이 지역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해 알아보는 것은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이해에 보탬이 될 것이다.

충남 서북부 지역은 地圖에서 一見 확인할 수 있는바, 예산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안선을 넓게 끼고 있다. 오서산(791미터), 가야산(678미터) 주변을 제외하고는 평야 내지는 저산지로 이루어져 어업과 농업이성한 곳이다. 갑오년 당시만 해도 충청도는 조선 각도 중 인구가 稍密하고 교통이 비교적 양호하였다.¹⁴⁾ 충청도의 인정, 풍속, 언어는 대개가 京畿와 비슷하며 예로부터 所謂 양반의 근거지인 고로 階級의 사상이 많고, 또 遊逸, 安易한 풍속이 있으며, 虛文虛禮를 숭상하였다.¹⁵⁾

梅泉 黃 玹(1855~1910)은 충청도 지방 동학란의 원인에 대해서,

“호서는 본래 사대부가 모여 사는 곳이요, 훈척과 향재들의 원림이 서로 바라보여서 봉당을 이루고 있다. 또 무단이 풍속을 이루어서 억지로 장사를 사고 남의 산지를 억지로 빼앗아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집이나 서민의 집에서는 원통한 호소가 뼈에 사무치고 있었다. 이런 때에 동학이 일어나자 어깨를 치켜올리고 한번 소리치면 여기에 호응하는 자가 백만이나 되었다. 이리하여 김씨, 송씨, 윤씨의 세 대족 및 그 밖의 재상의 이름난 집이나 부자로 살던 집이 줄지에 피폐함을 당한 사람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¹⁶⁾

라고 말함으로써 충청도의 동학란 발발의 1차 원인으로 양반들의 횡포를 들고 있다. 따라

13) 갑오년 당시 행정구역은 홍주목, 결성현, 은양군, 신창군, 덕산군, 대흥군, 당진군, 면천군, 서산군, 해미군, 태안군, 서천군, 비인군, 남포군 등이다.

14) 경부선은 1905년에, 그리고 천안~장항까지의 장항선은 1931년 8월이 개통되었는데, 이는 철도 교통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당시에 이 지역은 해로 또는 육로로 서울과 가까운 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5) 「兩班의 淵藪인 忠南地帶」, 『개벽』, 1924년 제 4월호, 109쪽

16) 황 현저, 이민수 역, 『東學亂(東匪紀略草藁)』, (서울: 을유문화사, 1985.) 122~123쪽

서 충청도는 일차적으로 “兩班의 淵藪”였다는 사회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동학 농민전쟁 과정에서 있었다는 다음과 같은 구전물로도 확인된다.

‘우리는 중놈이다’¹⁷⁾라는 제목의 동학농민전쟁 관련 구전 기록물은 홍성 갈산에 안동 김씨가에 문천교와 이승범이란 종이 있었다 한다 이들은 양반의 핍박과 억압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동학에 입도 하였고 그동안 누적된 불만의 표현으로 주인의 고환을 제거했다고 한다 사실의 고증은 차치하더라도 이는 충청 지역에서의 양반 세도와 횡포에 대한 불만이 계급 투쟁적 양상의 사건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생존을 위협하는 이들에 대한 양반들의 저항 또한 컸으리라 짐작하게 한다.

갑오년 당시의 충남 서북부 지역의 經濟的 狀況은 어떠했으며, 의견상 나타나는 경제적 상황이 과연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까?

예산·홍주·서산·태안·아산·보령·서천 등지를 포함하는 충남 서북부 지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충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과 어업이 성할 수 있는 넓은 해안선과 넓은 평야가 있는 地理的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米·麥·豆·煙草·牛皮·魚類 등이 많았다. 조선 상인들은 경성·인천으로부터 金巾·紡績絲·石油 등을 수입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米穀과 매대 교환하여 인천·경성에 수출했다. 이 지역의 주산물인 米·煙草 등은 지역에 따라 당시만해도 배가 드나들던 항구인 예산의 新浦와 蒼村, 德山의 九萬浦, 아산의 屯浦, 結城의 成湖, 광천의 웅암 등지를 통해 인천으로 수출되었다. 이 지역에서의 외국 상품은 일본 상인보다 淸商들에 의해 주로 수입되었으며, 그 수에 있어서도 淸商들이 훨씬 많았다. 청국 상인들은 인천항을 통해서 紡績絲·金巾·성냥·석유·染粉 등을 들여와 팔았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시장은 禮山이었는데 예산은 아산반과 인접해서 인천 개항 이후에도 京城의 화물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요충지였다. 예산 開市日에는 農商 및 遊民의 운집자가 3천 내지 6천명에 달했다. 한편 보부상의 활동도

17) 「우리는 중놈이다」, 『개벽』 통권 제65호, 1926년 1월 86~89쪽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승범은 신평이씨로서 동산에 거주했고, 상민으로서 해학가였다. 안동 김씨의 문객이었으며, 양반을 조롱하길 좋아했다 한다. (홍성 서부면 이호리 박동선옹, 갈산면 내갈리 이진업 옹의 증언). 같은 내용이 실린 다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기자, 『갑오동학과 충청남도』, 『개벽』, 1924년 1월, 123~124쪽. 청오, 『양반은 불알도 가질 수 없었다』, 『나라사랑』, 제15집, 1974 179~180쪽.

활발해서 2·3백명의 보부상들이 아산, 청양, 예산, 홍주 등의 場市에 來集했다.¹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충남 서북부 지역은 풍부한 농수산물과 유통의 활발로 전라·경상도 등 타지역에 비해 객관적으로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일본 상인의 경제적 침투는 크게 문제가 안 되었으며, 현재로써는 실증하기 곤란하지만 재지 양반들과 관리들의 하층민들에 대한 횡포가 더욱 문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¹⁹⁾

18) 吉野 誠, 『領事館報告를 통해 본 朝鮮의 內地市場 - 1900년의 忠清南道 -』,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서울: 比絳出版社, 1989), 154~160쪽 참조. 본 자료는 동학농민전쟁 6년 후의 조사 자료로서 1894년의 상황과 별차이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19) 갑오년 당시 충남 청양군 화성에 살던 유생으로 후일 홍주 의병에 참가한 林翰周는 동학란의 원인에 대해, "이 때 직위에 있는 자들이 거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사리사욕에만 급급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백성의 재물을 박탈하여, 10년 사이에 나라 형세가 날로 위태롭게 되어가니"라고 말하고 있다. 林翰周, 『洪陽紀事』,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1970), 254쪽

2. 동학 교세의 성장

1894년 농민 봉기에 있어서 東學 조직인 접과 포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에서 崔濟愚의 동학 창시(1860)에서 최시형 대의 포교 그리고 1894년에 아르는 교세 확장 및 입도 자들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며, 또한 지역적으로 충남에서의 포교에 관한 사실도 규명해야겠다.

崔濟愚(1824-1864)는 경주 지역 잔반의 후예로서 16세때 부친상을 당하고, 32세때(1855) 종교적 수도를 시작했다 37세때에는 종교적 신비를 체험하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다. 그리고 38세(1861)부터는 직접 자신의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민중 포교를 시작하였다. 포교 활동은 주로 그와 민중간의 사회 개혁 의식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최제우의 포교 활동이 관변측으로부터 서학이라는 오해를 받아 39세때 자신의 교리를 “東學”으로 명명하고 西學과 맞섰다. 또한 관의 탄압에 개의치 않고 즐기차게 布教 활동을 폈으나 최제우는 1864년(40세) 3월 대구 감영에서 사형 당했다.²⁰⁾

제2대 敎主로서 東學의 법통을 계승한 崔時亨(1827-1898)은 경주의 동촌 황오리에 있는 貧農의 집에서 태어나, 1861년 17세때 造紙所에서 도제로 일하다 동학에 入道했다. 崔時亨은 1878년에 유시현家에 개접하고 이후 1880년경부터 포교 활동을 활발히 했다. 『東經大典』과 『龍潭歌詞』를 구술로 재현시킨 최시형은 1880~1881년에는 그것을 경기도 인제와 충북 단양에서 각각 刊行했다. 또한 崔時亨은 정부의 혹심한 탄압과 추격 속에서도 태백 산맥과 소백 산맥의 산중에 피신하면서 동학의 보급에 주력했다²¹⁾.

1884년에 최시형은 교단 제도와 교도의 조직화에 노력하였다. 즉, 교인의 一團을 포(包)라 하고, 이것을 통솔하는 자를 접주, 이 접주 중에 세력이 있는자를 都接主(또는 大接主)라 하여 한 지역에 있는 각 포를 통솔 하게하였다. 道主가 그 위에 서서 이를 총괄하며, 이 실행 기관으로서 중앙 및 각 포 접주 아래 六任(敎長, 敎授, 都執, 執綱, 大正, 中正)을 두어 교단의 견고한 조직화와 교화의 신장을 꾀했다.²²⁾ 그리고 1885년에 충청도 보은 장내에

20) 李敎化, 『天道敎創建史』(경성:대동인쇄소, 1933), 49~55쪽 참조, 이하 「천도교창건사」로 약함

21) 『東學史』 76~79쪽 참조

22) 『東學史』 80~82쪽 참조

동학의 본거(법소)를 두어 각지의 포조직에 적극적으로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1860년에 창도된 東學은 1860년대에는 경상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포교되었고, 70년대에는 충청도·강원도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 이어 1880년대에는 평야 지대인 호남 지역과 경기도에 진출하였으며, 90년대에는 황해도까지 포교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충남 지방의 포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崔時亨은 1883년(포덕24) 2월에 강원도 정선에서 忠淸道 木川郡 內里로 移居하여 동경대전 천여부를 간행하여 각 포에 나누어 주었다.²³⁾ 이것은 충남과 관계된 東學의 처음 기록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東學은 충청·경기에 포교가 더욱 활발해졌다. 1885년(포덕 26)에는 충청감사와 단양 군수의 체포 위협을 피해서 최시형은 忠南 公州 麻谷里로 피신했다.²⁴⁾ 이후 崔時亨은 다시 報恩으로 이동하여 포교했다.

갑오년에 기포지로 등장하는 충남에서의 안면도·태안·서산·해미·당진·면천·신창·예산·덕산·홍주·남포·대전 등지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東學이 포교되었는지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1894년 충남지역의 기포지를 살펴볼 때, 충남의 서북부지역에 편중되어 동학교세의 성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곳은 朴寅浩(1855~1940)가 중심이 된 덕포와 朴熙寅의 예포의 휘하에 속하는 지역이다.²⁵⁾

춘암상사 朴寅浩(1855~1940)²⁶⁾는 1907년에 天道教 제 4대 교주가 된 인물로서 그의 활동을 고찰하면 忠南 동학농민운동의 始末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朴寅浩는 삼교읍 하포리에서 출생하였으며, 1883년(포덕24)에 예산에 살던 김월화의 남편 박씨로부터 동학을 소개받고 입도하였다. 1884년(포덕 25) 시월에 공주 가섭암에서 49일 기도를 하고,²⁷⁾ 최해월의 가르침을 받은 후 충남서북부 지역 동학포교에 나섰다.²⁸⁾

23) 『天道敎創建史』 제2편 30쪽

24) 『天道敎創建史』 제2편 34쪽

25) 一記者, 『甲午東學과 忠淸南道』, (『개벽』, 1924년 1월호), 123쪽

26) 박인호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박인호, 『갑오동학기병실담』, 조선중앙일보사, 『중앙』, 16, 1935.2.

박래원, 『춘암상사의 생애와 사상』, 『신인간』, 1970.1.

박래원, 『춘암상사의 행적』, 『신인간』, 1972.1~4월.

편집실, 『천도교제4세대대주 춘암상사 (1)~(5)』, 『신인간』, 1990.11 ~91.3월.

27) 여기에서 가섭암은 마곡사의 부속암자라 하는데, 『천도교창건사』에 의하면 최시형이 공주 마곡리에 간 것은

朴寅浩는 新昌에서 김경삼, 곽 완, 정태영, 이신교, 德山에서는 김원배, 최병현, 최동신, 이진해, 고운학, 고수인, 唐津에서²⁹⁾ 박용태, 김현구, 瑞山에서 장세헌, 장세원, 장세화, 최금순, 최동빈, 안재형, 안재덕, 박인화, 홍칠봉, 최영식, 洪鍾植, 김성덕, 박동현, 장희, 泰安에서 김병두, 홍주에서 김주열, 한규하, 황운서, 김양화, 최준모, 禮山에서 朴熙寅, 沔川에서 이창구, 한명순, 安眠島에서 주병도, 김성근, 김상집, 고영로, 海美에서 박성장, 김의향, 이용의, 이종보, 藍浦에서 추용성, 김기창 등을 포덕 입도케 하였다 한다.³⁰⁾

1894년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끈 朴寅浩와 朴熙寅은 동학교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박인호와 박희인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탓에 분명히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박인호는 德義大接主, 박희인은 禮包大接主였다고 하며,³¹⁾ 예포대도소는 木巢里(현 예산군 삼교면 성리 목시)에 두었다. 오지영은 朴寅浩가 서산에서 起兵했다고 하는데, 이로부터 박인호의 주된 활동지가 서산이었다 생각된다. 어쨌든 朴寅浩와 朴熙寅은 갑오년 당시에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지도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의 진행 중에 입도한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입도한 사람보다 훨씬 많으며³²⁾, 입도 동기 또한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홍종식은 자신이 동학에 입도한 갑오년 2월 이래 서산군에 동학의 포교가 활발했다고 한다. 홍종식은 수 많은 사람들의 입도 동기를 첫째, 시운이 반복하는 까닭이요, 둘째 동학이 만민평등

1885년(포덕 26) 6월경이다.(제2편, 34쪽 참조) 『동학사』에는 1884년(포덕25) 10월 崔時亨이 손병희를 데리고 익산 獅子菴에서 49일의 공부를 마치고 광제 포덕을 말하였다.(80쪽 참조) 하는 것으로 보아 기록의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28) 朴來源, 『春菴上師의 生涯와 思想』, 『新人間』 통권 271호, 1970.1), 21~23쪽. 현재로서는 1880년대의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학의 포교 상황을 알 수 있는 1차 사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29) 박상건, 『당진지역 중심의 동학농민전쟁』, 『내포문화』 제4호, 1992) 46~47쪽에 " 당진천도교회는 1882년 10월에 박용태, 김한수, 차동로, 김계근, 김현구, 신태성 등이 천도교에 입교한 것이 기원이며, 접주는 박용태였다. 또한 이 무렵 면천 천도교도 박희인, 이창구 등에 의해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박인호 입도 전인 1882년 무렵부터 충남 곳곳에서 동학이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朴來源, 『春菴上師의 行蹟(上)』, 『新人間』, 1972.1-2월), 28쪽.

31) 박래원, 『춘암상사의 생애와 사상』, 『신인간』, 1970.1), 23쪽

조석현, 『북접일기』, 『한국사상』 제13집, 1975), 402쪽 참조 그런데 『天道敎創建史』와 『東學史』에는 1893년 3월 보은 집회시 최시형이 包名을 명했다 한다. 그러나 이때 덕의대접주 박인호, 예포대접주 박희인 등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32) 1차 사료를 남긴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 접주의 입도 시기를 보면, 박인호는 1883년, 홍종식은 갑오년 2월, 조석현은 갑오년 3월, 문장준은 갑오년 2월로 파악된다. 이는 갑오년에 들어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학 입도자가 격증했음을 시사한다.

을 표방한 까닭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 주된 입도자들은 재래로 하층계급에서 불평으로 지내던 가난뱅이, 상놈, 백정, 종놈 등이었다고 한다.³³⁾

1894년 東學農民戰爭 당시 동학 교도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한 파악은 곤란하다.

34)

한편 위와 같은 東學의 수적 팽창과 더불어 농민전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1892, 93년의 교조신원 운동 전개 과정 중 東學의 성격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이다. 1892년(고종 29년) 10월에는 충청도 관찰사 조병식과 전라도 관찰사 이경식의 東學 교도 탄압에 항거하여 서인주, 서병학 등은 崔時亨 등 상층 간부에게 抗議 運動을 건의했지만 불허하여 공주집회를 계획했다. 이에 최시형은 각도에 통문을 돌려 1892년 12월 전라도에서 삼례집회를 열고 전라·충청감사에게 손천민을 代表로 보내 교조신원과 동학탄압 중지 등 종교적 要求와 수령과 鄉曲豪民의 討取에 반대하는 반봉건적 요구를 제기했는데, 동학도에 대한 박해금지 조치와 교조신원 문제는 地方官의 권한에 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고 집회를 해산했다. 삼례집회 중 교조신원을 國王에 직소하기 위해 박광호를 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상소단이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1893년 3월 공개적으로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하여 교조신원을 호소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을 위시한 외국공사관 및 교회 의인주택에 斥倭洋의 掛書 사건이 일어났다³⁵⁾. 박광호 등의 복합 상소단은 東學 탄압을 요구하는 유생의 상소와 國王의 전교에 의해 해산했다. 1893년 4월 25일(음 3. 11)에 최시형은 각 접주에 통문을 발하여 충북 보은 장내 집회를 지시했다. 5월 5일 경까지는 20,000명의 군중이 접주의 인솔하에 보은에 모였다. 이 보은 집회에서는 삼례집회 및 복합상소에서의 「교조신원」의 슬로건은 자취를 감추고 최왜양창의의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건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척왜

33) 「동학란실화」, 173~174쪽.

34) 村山智順은 1894년의 충남의 동학 교세에 대해 교구 2개에, 교도는 88명(남50명, 여 3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 하나의 통계적인 수치이지만 사실과는 너무 차이가 크다고 생각된다.

村山智順 저, 최길성·장상언 공역, 『朝鮮의 類似宗教』,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48쪽. 이하 「朝鮮의 類似宗教」로 약함.

35) 姜在彦, 「봉건체제 해체기의 갑오농민전쟁」, 『韓國近代史研究』, 서울: 청아출판사, 1982), 172쪽에는 이 폐서사건이 동학의 상층간부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일부의 포에서 독자적으로 별동대를 잠입시켜 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의 요구는 당시 조선 정부로서는 응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국왕은 동학도들의 진압을 위해 청병차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형편이었다. 흥계훈이 이끄는 600명의 정부군이 충청도 청주로 출동하였고, 양호선무사 어윤중의 해산 명령에 아무런 대항 수단을 갖지 못한 동학측은 충청, 전라 양도 관찰사가 경질된 후 20일만에 보은 집회를 해산했다.

이 보은집회를 계기로 계급적 요구가 종교적 요구를 압도하게 되었으며 이 보은집회에 참여했던 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파급된 지역과 대략 일치된다는 점에서 보은집회의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1880년대와 90년대의 朴寅浩, 朴熙寅 등의 동학 포교로 인해 충남 서북부 지방의 동학 교세는 상당히 성장했다. 이것은 교단에서 전개된 교조신원 운동과 그 성격의 변화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 발발한 농민봉기와 그 영향 등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전라도의 동학당보다는 종교적 순수성이 강했고, 아울러 북접 교단의 강한 영향하에 있었다. 이는 갑오년 10월 2차 농민전쟁 시기에 기포한 충남의 12지방, 기포수 48이 모두 崔時亨의 명에 의해 기포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³⁶⁾

36) 『朝鮮의 類似宗教』 54쪽에 나타나는 동학 농민전쟁 시기 충청남도의 기포지역과 기포수는 다음과 같다.

서산(14), 덕산(7), 신창(4), 당진(2), 예산(1), 태안(1), 홍주(5), 오천(2), 해미(4), 안면도(4), 남포(2), 대전(2)

이상 12지방 48포

II. 충남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1. 제1차 농민전쟁기의 충남의 동학농민군

일반적으로 동학농민전쟁의 전개를 4단계로 나눈다.³⁷⁾ 충남 지방은 2차 농민전쟁기에는 농민군의 활동이 분명히 나타나지만, 1차 농민전쟁기에는 전라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자극 받아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산발적인 봉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1차 농민전쟁기 충남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지 규명해 보고, 그것이 2차 농민전쟁기 충남의 동학농민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고찰해 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³⁸⁾ 따라서 전라도에서의 고부민란에서 집강소설치 및 운영에 이르는 시기에 충남 지역의 농민군의 활동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차 전쟁기 충남은 공주 이남 지역에서는 남접에 호응하려는 농민 봉기가 있어 판아를 습격하기도 하였으나, 충남서북부 지역에서는 뚜렷한 동학농민 봉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공주 이남 지역의 동향을 살펴 보면,

사례 -1) “(전략) 이날 전라도에서 동학의 난리가 크게 일어났다. (부여) 임천에서도 포수와 定速을 모 집하므로 읍내가 시끌시끌하였다.”³⁹⁾

사례-2) 전봉준이 기포하여 3월하순부터 4월초순까지 팽창한 기세로 호남의 열읍을 석권하게 되자 호서 동학도도 안연부동할 수 없다는데서 호응필거했다. 그리하여 4월 2일에 교주 최시형의 이름으로 통문을 발하여 북접술하의 동학도들 4월 7일 청산으로 소집하니 모인자가 수천명이 넘었으며, 공주목과 진잠현 경계의 성전

37) 농민전쟁과정 그 자체는 고부민란에서 본격적인 농민전쟁으로의 전초단계(제1단계), 고부·태인 봉기에서 전주 입성에 이르는 농민군의 승리적 전진단계(제2단계), 전주화약 후 집강소를 통해서 농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한 단계(제3단계), 농민군의 계기에서 공주전투를 거쳐 후퇴하는 단계(제4단계)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강재언, 앞의 논문, 217쪽 참조.

38) 아직은 충남의 동학농민봉기를 1차 전쟁기와 2차 전쟁기로 나누어 정리한 논고는 거의 없다. 이는 충남은 2차 전쟁기의 활동상과는 대조적으로 1차 전쟁기에는 주목해 볼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차 전쟁시기 기록에 나타나는 충남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39) 최덕기 저, 송창준 역, 『東學亂日記』, 1894년 4월 5일, 『향토연구』 제7집, 충남향토연구회, 1990. 이하 『東學亂日記』로 약함.

평으로 옮겨 옮겨하다가 남접 동학군의 황토현 첩보물 듣게되자, 이들은 대거하여 회덕현을 습격하였다.⁴⁰⁾

사례-3) 1894년 4월 9일 충청감사 趙秉鎬가 정부에 올린 회덕현감의 보고에 의하면, 8일밤 동학군 수천명이 현아에 쳐들어와 무기고를 파괴하고 총 44, 환도 60, 화살 300, 철추 5 등 많은 무기를 털어가지고 진잠현으로 향했다.⁴¹⁾

사례-4) 관찰사 趙秉鎬는 응급조치로 은진 파수병 100명과 청주 병영으로부터 200명을 조발하여 출동시키는 동시에 양호초토사 홍계훈에게도 타전하였다. 관군 출동의 소식이 전파되자 전년의 보은 취희매나 마찬가지로 동학도측은 관군이 도착하기전에 자진 귀화를 일컫어 해산하고 말았다.⁴²⁾

사례-1)은 전라도의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그 여파가 인접한 부여 임천에도 나타났음을 알려준다. 사례-2,3)를 종합해 볼때, 공주 주변의 회덕·문의·진잠 등지에서 농민봉기가 있었고, ([그림 1] 참조) 농민군들이 회덕현의 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했다. 사례-4)에서 알 수 있는바, 봉기한 농민군은 수일 내로 해산하였던 것이다.⁴³⁾

公州 이북 지역은 이제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東學農民戰爭의 1차 전쟁기에 충남 서북부 지역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제 資料를 통해 검토해 보자.

사례-1) 高宗 31년(1894) 2월에 충청감사 趙秉鎬가 장계를 올리 前兵使 李廷珪를 定罪했는데, 李廷珪는 德山에서 武斷虐民을 하여, 힘없는 백성에게서 錢米, 牛馬, 田畠, 家産, 山麓, 漁網, 船隻 등을 빼앗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민란이 일어나 수천명의 冤民들이 李廷珪의 집등 12戶를 불태웠다. 이 사건 후 충청감사의 장계에 따라 조정에서는 前兵使 李廷珪를 평안도 宜川으로 유배시켰다.⁴⁴⁾

40) 李瑄根, 『韓國史』(현대편), (진단학회, 서울: 을유문화사, 1963), 1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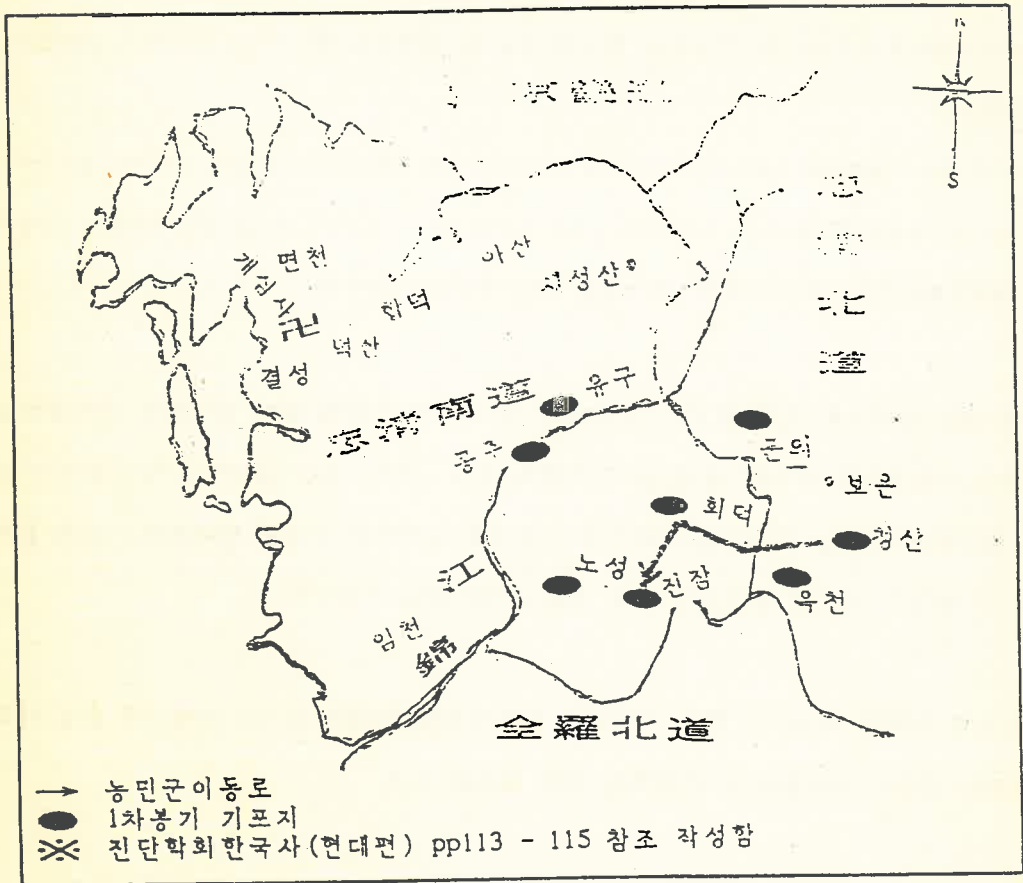
41) 崔玄植, 『甲午東學革命史』, (진주: 향토문화사, 1980), 144쪽

42) 『日省錄』, 고종 31년 4월 12일조 참조

43) 姜在彦, 앞의 논문, 199~201쪽에는 김복용은 목천 세성산에서, 최한규는 유구에서 호남군의 복상에 호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전주화약(5월 7일)에 의해 서울 진격 의도가 무너졌다고 쓰고 있다.

44) 『日省錄』, 고종31년 2월15일조, 4월11일조 참조

[그림1]제 1차 농민전쟁기의 충남 동학농민군 움직임



사례-2) “ 聞德山守，以合德民事，報營稱以亂民，合德民數百名，入官庭詢呵欲逐之，德山守遂辭僅免，金日觀，適在衙中，被縛打云，殊可該歎”⁴⁵⁾

사례-3) “ 양반 횡포가 심하기로 이름난 충청도에서 동학군이 일어나 양반에 대한 박해와 토색이 심하므로 양반들이 미리 배상금을 지급하여 모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반 중에 무예를 습득한 자가 동학군에 가담하여 보신책을 삼는가 하면 이에 대항하여 정부관헌과 보부상이며 양반층과 일반 민간에서는 「향약」을 다시금 조직하고 家童들을 모아 자위대 같은 것을 편성하여 방어책을 강구하게 되니, 면천읍에서도 郷約을 조직하였다.”⁴⁶⁾

사례-4) “ 昨日東徒百餘名來宿元坪民家，今日向開心寺，朝起見之，東徒之赴開心寺者，相續不絕，詢知爲普賢洞李進士，棄禁斥東學甚嚴，東徒怨之，將會戮於開心寺，打破其家云，內浦東學最少，今則所在彌滿，日灼月盛，此亦時運，甚可歎。”⁴⁷⁾

45) 金允植, 『沔陽行違日記』, 갑오 3월 26일, (『續陰晴史』 上, 국사편찬위원회, 1960). 305쪽 이하 『沔陽行違日記』

46) 『沔陽行違日記』, 갑오 4월 9일.

47) 『沔陽行違日記』, 갑오 4월 9일.

사례-5) " 마침 서울 양반의 후예인 이진사라는 자가 서산에 살았는데 어떻게도 동학군을 움해하며 또한 재물을 탈취하는지요. 그래서 이놈을 징벌하기 위해서 제1차로 통문을 돌려가지고 홍주 원벌 (서산군 운산면 원벌리 - 필자)에서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갑오년 7월('면양행견일기'에 근거하면 4월 8일 - 필자)인가보외다. 어디서 모여 오는지 구름 모이듯 잘도 모여들었다.순식간에 벌판을 뒤덮다시피 몇 만명이 모였습니다. 이 소문은 벌써 이진사에게 갔습니다. 이진사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곧 사죄하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집 가까이에 있는 開心寺란 절로 移陳하였습니다."⁴⁸⁾

사례-6) " 조선의 동학혁명에 관해 지난달 31일자 보고서 NO.36에서 귀하께 삼가 보고드린바 있었습디다만, 그 이후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또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반란의 무리들은 청군이 상륙(6월 8일과 12일 사이에 아산상륙...필자)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내륙쪽으로 10마일이나 후퇴했다고 합니다."⁴⁹⁾

사례-7) "전번에 임천에 갔을 때 반행곡 주점 뒤에서 結城 陽谷에 사는 韓善覺을 만났는데 ... 한생원이 말하기를 '나도 道人들의 난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 이렇게 떠돌아 다닌다.' 고 하기에 서로 개탄했다."⁵⁰⁾

위에 열거한 제 사례는 제2차 농민전쟁에 앞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가를 설명해 준다.사례-1)에 제시된 덕산에서의 前兵使 李廷珪의 탐학은 조선 사회 전 지역에 팽배한 부정과 부패가 이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정부에서 李廷珪를 유배시킨것은 흥흥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례-2)에 보이는 것처럼 자세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亂民"이라 보고한데 대하여 합덕 주민 수 백명이 덕산 군수에 항의했다는 사실은 민중의 힘이 서서히 결집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사례-3)에 의하면 충남 서북부 지역인 면천에서도 갑오년 4월에 동학군이 일어나 재지 양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이 무렵 일부 양반들은 사례-4)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학당을 금압했으나,오히려 동학당의 위협에 놀려 사죄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양반들과 지방관의 동학 탄압은 2차 농민전쟁기 이 지역의 거센 봉기를 가져 온 일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사례-6.7)은 갑오년 6-8월경에 아산·결성 등지에서도 동학군이 활약했음을 보여준다.

48) 홍중식,『동학란실화』,앞의책,174쪽.

49) 서울대학교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편,『한국근대사에 대한 자료』,(서울:신원문화사,1992),158~160 쪽.

50) 최덕기,『동학란일기』,1894년 8월 5일자.

1894년 전반기 충남 서북부 지역은 농민군이 봉기하여 관아를 습격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前兵使 이정규의 탐학에 따른 민란, 합덕민의 민요, 개심사 주변 동학당의 움직임 등으로 볼 때 동학도 또는 농민층의 불만이 누적되어 농민 봉기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제2차 농민전쟁기의 충남 서북부 지역 동학농민군

전라도의 농민군은 초토사 홍계훈과 전주화약(음 5.7)이 체결되고 그 결과 자진해산하였다. 이로써 청.일양군의 철수 조건을 만들면서 전라도 53개 군현에 執綱所를 설치하여 농민 통치를 실시했다. 텐진조약에 근거하여 파병된 일본군은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7월 25일) 한편 경성으로 입성하여 범궐을 자행하며 마음대로 정권을 농락하고 내정간섭을 자행했다.

이때 全瑋準은 새 곡식이 수확되는 9월(양력 10월)이 오기를 기다려 再起하기로 하고 각지의 동학 접주에게 통문을 띄웠다. 드디어 9월 13일(양력 10월 11일) 全瑋準은 全州에서, 손화중은 光州에서 再起包하여 삼례역으로 향하였다. 김개남은 9월 14일 南原에서 재기포하여 전주로 향하였다.

종교적 순수성을 주장한 崔時亨을 중심으로 한 北接派와 사회·정치에 적극 참여하여 군사 행동을 주장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南接派는 노선의 대립을 보이다가 吳知泳 등의 노력으로 남·북접 모두 보국안민의 기치하에 공동전선을 형성했다⁵¹⁾. 崔時亨이 起義한 것은 吳知泳의 노력도 없지 않으나 관군의 학살로부터 교도를 구하고 교조 최제우의 신원을 명분으로 孫秉熙(1861~1922)를 각포의 통솔자로 起義함에 이르렀다.

義菴 孫秉熙는 忠義大接主로서 北接의 핵심을 이룬 忠義包를 이끌었는데, 이 忠義包는 禮包의 朴熙寅과 德包의 朴寅浩 등 양인의 대접주가 主軸이 되었다. 2차 농민전쟁기에 孫秉熙가 北接統領이 되어 全瑋準과 합류하기 위해 南進했다. 이때 崔時亨은 忠義包 지휘권을 朴寅浩에게 移讓하면서, 「天不變 道亦不變」이라고 쓴 대장기를 주었다 한다.⁵²⁾ 이리하여 朴寅浩는 충남 서북부 지역 동학 농민군을 지휘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1894년 2차 농민전쟁기에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도자들은 [표 1]에 나타나는 바,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파악된다.

51) 『東學史』 159~163 쪽 참조.

52) 조석현, 「北接日記」, 『한국사상』 제13집, 1975, 402~405쪽.

[표1] 충남 지방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東學史』 ⁵³⁾	『天道敎創建史』 ⁵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⁵⁵⁾
서 산	박인호	최공순.장세화.최동빈.안재봉.안재덕.박치수.홍칠봉.최영식.김성덕.홍종식.박동현	이창구
태 안	김동두	김병두	
안면도	주병도	주병도.김성근.김상집.고영로	
덕 산	김 ? 배	김명배.이종고.최병헌.최동신.이진해.고운학.고수인	박용결
예 산			박덕칠
당 진	박용태.김현구	박용태.김현구	
면 천	박회인	이창구.한명순	이화삼
아 산			안교선
신 창	김경삼	김경삼.곽 원.정태영.이신교	
온 양			방화용
홍 주	김두열.한규하	김주열.한규복.김의형.최준모	김영필
결 성			천대철
서 천			추용성
남 포	추용성		김우경
한 산			김약선
청 양			유진하
공 주	김지택.배성천		장준환
연 기			최명기
전 의			임기준
은 진			염상원
진 잠			송석영
목 천			김형식
홍 산			김봉운
부 여			이종필

53) 오지영, 『東學史』, 164쪽 참조.

54) 이돈화, 『天道敎創建史』, 제2권 68쪽 참조.

55) 『공사관기록』, 1권, 194~195쪽.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 거의 전지역에 걸쳐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파악된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태안·서산·당진·아산·예산·홍주 지역을 포함하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지도자들이 수적인 면에서 타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朴寅浩, 朴熙寅 등의 포교 활동이 주로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야겠다. 충남 서북부 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박인호와 박희인의 포교 활동의 결과라고 가정한다면, 이 지역의 동학도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하겠다.

(1)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의 진로

1). 동학농민군의 진로

崔時亨의 명에 의하여 갑오년 10월 1일에 서산, 태안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의 거의 전지역에서 同時多發的 농민봉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써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가 어렵다. 농민군과 이들의 진압차 출동한 官軍 및 日本軍의 진로를 정리하면, 충남 서북부 지역 농민봉기의 흐름을 쉽게 간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는 10월1일(음)에 태안과 서산에서 동시적인 봉기가 있었다. 10월 8일(辛亥)에는 오천 수영에서 무기를 탈취한 한 무리의 농민군이 광천으로 진격했으나, 홍주목사 李勝宇가 이끄는 관군에 의해 격퇴되었다. 10월 15일 농민군은 재기포하여 朴寅浩 대장의 指揮로 해미 여미평(현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필자)에 집결하여 면천 사기소리 승전곡, 면천읍, 구만포, 신례원, 예산, 덕산, 홍주 등으로 이동하면서 그 軍勢를 늘려가며 관군 및 일본군과 교전했다. 이 중 신례원, 예산전투에서는 농민군이 湖沿招討使 李勝宇의 관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나, 洪州 전투에서는 관군, 일본군에 의해 농민군은 재기하지 못할 정도의 고배를 마셨다. 홍주전투 후 농민군의 잔여세력은 朴寅浩 등의 지휘부가 이탈된 가운데, 해미와 서산에서 이두황이 이끄는 관군과 접전하여 敗退했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동학농민군의 진로를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나타난 동학농민군의 進路는 태안·서산에서 출발하여 해미 - 면천 - 신례원 - 홍주 - 해미 - 서산·태안으로 돌아갔다. 이는 마치 “歸鄉”하는 모습이다. 10월 15일 再起包 후 농민군의 진로가 태안 - 서산 - 면천 - 신례원으로 진행한 이유는 농민군의 目標가 京城 함락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서산 지역에서 육로로 경성에 가려면 그 지름길이 면천 - 신례원 - 온양 - 천안 - 경성 코스가 될 것이다. 이는 朴寅浩의 다음과 같은 말이 說明해 준다.

“ 예산읍으로 들어 왔는데 ...(중략) ...이곳에서 바로 京城으로 向할까 洪州의 官軍 세력을 물리치고 나서 京

城으로갈까 議論하다가 결국 後患을 없애야 한다는데로 衆議 一決하여 洪州로 행군하였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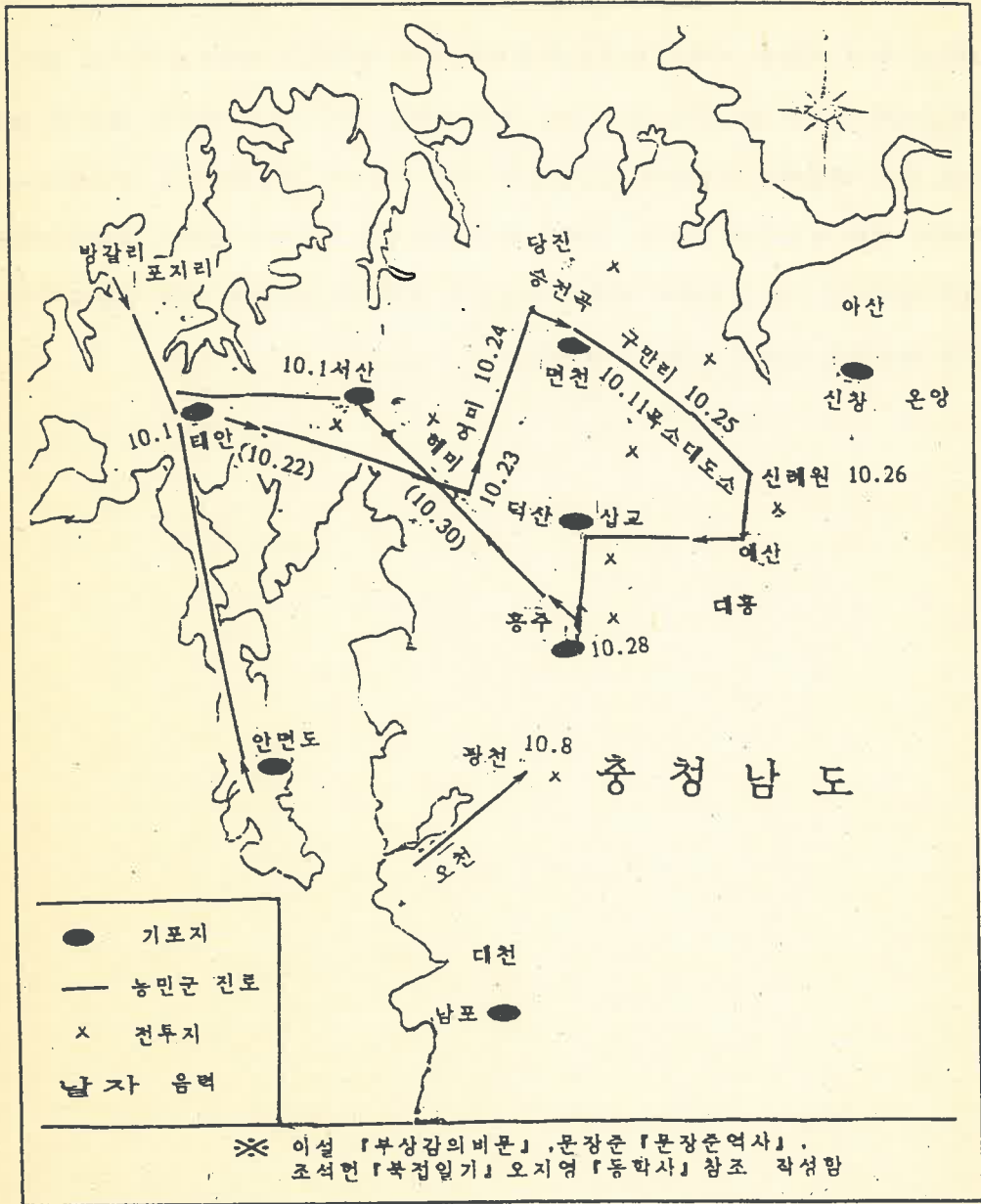
그리하여 충남 서북부 지역의 농민군은 洪州을 먼저 함락하고 경성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승리한 농민군은 곧 덕산을 거쳐 洪州로 향했다. 홍주 전투의 패배 후 朴寅浩, 朴熙寅 등이 대열에서 이탈하여 피신했다.⁵⁷⁾ 이후 농민군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으나 홍주 전투에서 패한 농민군의 다수가 10여일 이상 해미성을 점령하고 있다가 후술하는대로 李斗黃의 장위영군과의 교전에서 패하여 서산으로 도주했다. 그리하여 서산 매현에서 마지막 관군과 농민군의 접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56) 朴寅浩, 「甲午起兵東學實談」, 47쪽

「北接日記」 10월 15일자에는 新禮院 전투 직전 농민군의 戰力이 관군 및 일본군에 비해 취약하다는 판단을 내린 예산대접주 朴熙寅이 法所(최시형이 있는 곳)에 가서 이곳 동학농민군이 처한 문제를 相議하려 했다 한다.

57) 「갑오동학기병실담」, 48쪽.

[그림 2]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이동로



2). 관군의 진로

충남서북부지역 농민군 진압에 관여한 관군은 湖沿招討使 李勝宇 軍과 李斗黃의 장위영 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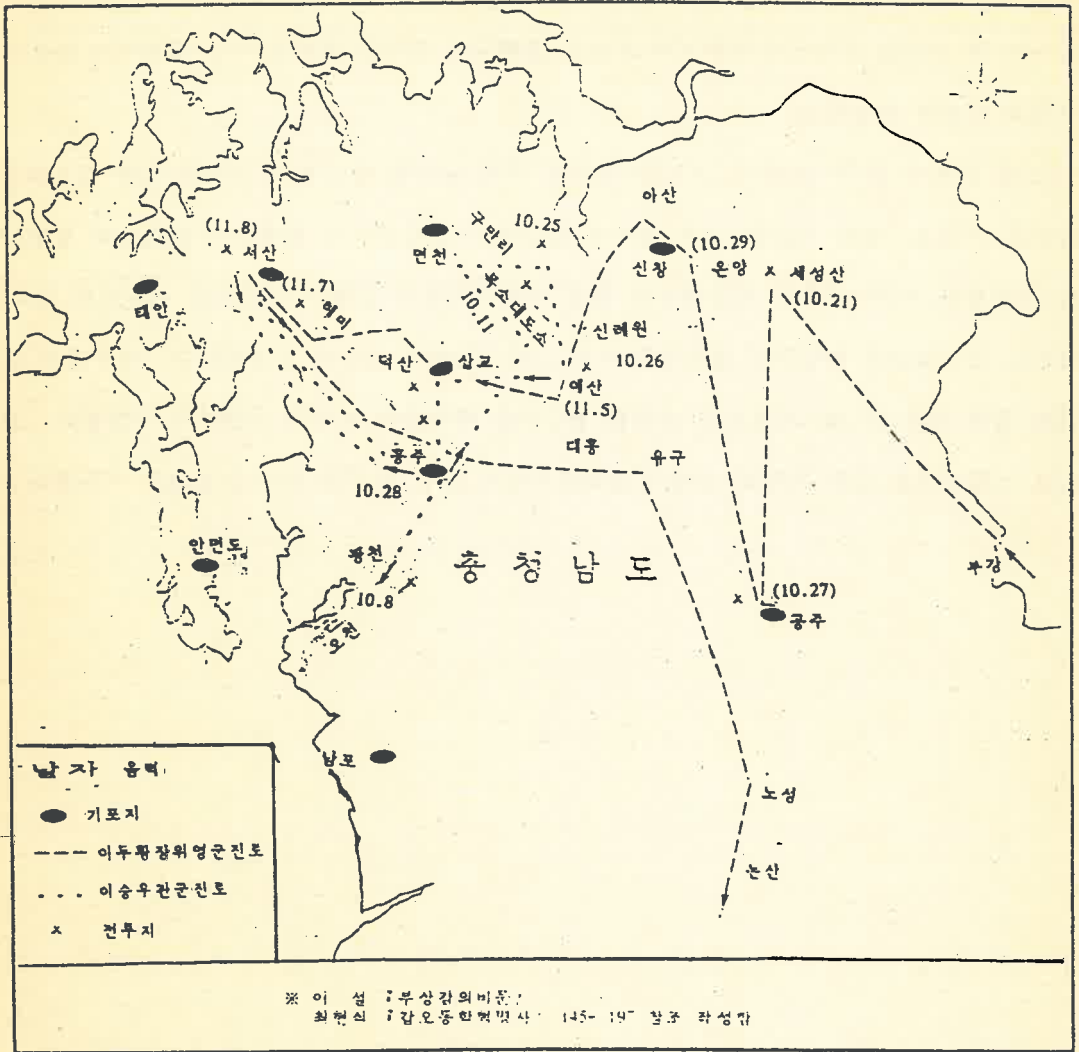
이승우의 관군은 10월 8일(음) 광천에서 농민군을 격퇴했다. 이어 11일에 목소대도소 전

투가있었고 20일에는 합포(구만포 -필자)⁵⁸⁾에서 농민군과의 접전이 있었다. 이후 신례원, 예산 전투에서 사상 最大의 참패를 당했으나, 10월28일(辛未)부터 양일간 전개된 洪州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홍주전투 후에도 李勝宇의 관군은 해미와 서산 등지에서 농민군 추격과 진압에 앞장섰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군 진압을 위해 파견된 죽산부사 장위영 영관 李斗黃은 관군을 이끌고 용인 죽산을 경유 청주에 입성했다가, 일본군과 합류하여 細城山의 농민군을 진압했다. 이후 공주로 이동했는데 충남 서북부지역의 상황이 악화되자 예산으로 왔다. 그러나 李斗黃군은 농민군의 홍주전투 후인 11월 5일에야 예산에 도착하였다. 이두황의 관군은 홍주 전투 후 해미지역으로 패퇴한 농민군을 추격하여 해미와 서산에서 진압했다. 그리고 이두황군은 공주 지역의 상황이 급박해지자 홍주, 유구를 거쳐 노성으로 이동했다.

58) 『負商感義碑』에 나타나는 “癸亥(10월 20일) 又 合浦賊連破”는 농민군의 진로물 고려할때, 朴寅浩가 말하는 10월 25일의 九萬浦(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전투를 지칭한다고 생각된다.

[그림3] 호연초토사 이승우군과 이두황 장위영 관군의 진로



3). 일본군의 진로

日本 政府는 11월 12일(음력10월 15일) 당시 용산에 주둔하고 있던 후비 보병독립 제19 대대(대대장 南小四郎 少佐)를 출동시켜 동학농민군 진압에 나섰다. 일본군은 다음과같이

동,중, 서 三路로 나누어 공주를 목표로 남하했다.

東路(兵站線) 제1중대 松本少尉.....長湖院.....經由

中路(淸州,公州) 제3중대 石黒大尉.....陽智.....經由

西路 제2중대 森尾大尉.....振威.....經由⁵⁹⁾

이때 일본군의 작전 계획은 동학농민군을 전라도 서남쪽으로 구축,격퇴하는 것이었다.

[그림 4] 에 나타난 것처럼 충남 서북부지역 농민군과 교전한 일본군 주력은 振威에서 分進한 제2중대의 지대와 후에 仁川에서 증파된 응원군이였다.

서로 제2중대의 지대는 赤松國封 少尉가 지휘했으며, 병력은 1개소대와 2개분대 약70여명이였다.⁶⁰⁾ 이 지대의 진로를 살펴보면, 11월 14일(양력) 진위에서 출발하여 16일에 아산에 도달하였고 21일(음력10월24일) 면천 사기소리 승전목에서 朴寅浩가 지휘한 농민군과 일전을 치루었다. 이후 11월 22일부터 洪州에 체재하다가 25일(음력 10월28일), 26일에는 신례원, 덕산 등을 거쳐 홍주로 내습한 농민군을 격퇴하였다. 홍주전투 후 제2중대장으로부터 公州로 이동하라는 지령을 받은 赤松國封 지대는 대홍과 유구를 경유하여 12월 7일 공주로 이동했다.⁶¹⁾

59) 최현식, 앞의 책, 173쪽 .

60) 『공사관기록』1. 213 쪽에 의하면 서로 제2중대 총병력은 조선인 수행원 포함 약 180명이였다.. 또한 적송국봉 소위의 지대 병력은 하사5명,상등병5명,병졸 59명 도합 70명 이였다..

61) 『공사관기록』6. 63-68쪽.서로 제2중대 및 지대의 진로 참조.

(2)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이제까지 살펴본 충남 서북부지역의 동학농민군과 관군, 일본군의 진로에 유의하여, 2차 농민전쟁기 농민군의 활약상을 정리함에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⁶³⁾. 제1기는 음력 9월 중순경부터 태안, 서산의 봉기와(10.1.) 광천전투,(10.8.) 목소대도소 전투(10.11.)가 있었던 10월 11일까지, 제2기는 10월 15일 재기포와 해미 여미평 집결에서 홍주전투까지(10. 28), 제3기는 홍주전투후 패주한 동학농민군의 해미(11.7.), 서산(11.8.) 전투와 보령, 남포지역 동학군의 동향이 중시되었던 11월경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겠다.

1) 제1기

가. 태안·서산의 봉기

2차 농민전쟁기 충남 서북부 지역의 최초의 봉기는 갑오년 10월 1일에 태안과 서산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지역 동학농민군의 대장이었던 朴寅浩는 동학농민봉기의 원인에 대해서

“甲午年에 東學이 蜂起한 원인은 당시 政治가 腐敗의 극에 도달하여 人民을 괴롭힘이 심하고 地方의 有司들은 東學 박멸이란 이름을 빙자하고서 迫害를 가하고 財貨를 侵漁하기를 심히 하였음에 있는 것이었오”⁶⁴⁾

라고 함으로써 충남 서북부 지역 봉기의 원인으로 政治의 腐敗와 지방관들의 동학 탄압을 들고 있다. 물론 이 지역의 봉기는 북접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갑오년 9월18일 崔時亨의 훈

62) 『공사관기록』1. 232~239쪽 참조.

63) 현재 1차사료로 남아있는 조석현, 박인호, 문장준, 홍종식 씨의 기록을 검토해 볼때 10월 1일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한 농민군을 10월 11일 이승우 관군의 목소대도소 공격 후 기포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북접일기』, 참조)는 점과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박인호는 홍주전투 후 이탈, 피신했으나, 해미, 서산지역에서 농민군과 관군의 전투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64) 朴寅浩, 『甲午東學起兵實談』, 『中央』 16, 1935.2, 46쪽.

시문이 전달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박인호의 말은 충남 서북부 지역 농민 봉기가 결코 타의적인 것 이라기보다는 봉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임박했었음을 알려 준다. 崔時亨의 기포 명령은 인편으로 전달되었기에 이 지역에 9월 30일에 도착했다. 그 주요 내용 또한 “八路의 우리 교도가 죄가 있던 없던간에 이 세상에서는 생명을 보전키 어려운 형편이라 만약 잘못되면 각처의 두령은 날날히 살해당할 지경이니 이 글을 받는 즉시 속속 기포하여 각자 소속된 接包에 모여서 자생하라.”⁶⁵⁾ 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충남 서북부 지역 동학도들에게는 시기 적절한 말이었다. 서산·태안 지역에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첫 봉기가 시작된데는 이 지역의 동학세력이 타지역에비하여 가장 강성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⁶⁶⁾ 또한 주로 어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의 누적된 불만도 있었을 것이다.⁶⁷⁾

이제 서산·태안 지역 봉기의 전개를 살펴 보자.

갑오년 9월 14일에 태안부사였던 신백희와 종친부에서 파견된 김경제는 동학교도를 탄압하고자 동학두목 30여명을 체포하여 투옥했다. 이는 이 지역 동학교도의 死活이 걸린 문제로써 不得不 蜂起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했다. 이 중대한 문제는 예포대도소에 보고되었고, 때마침 도착한 최시형의 훈시문은 봉기의 “合法性”을 부여했다. 봉기의 전개는 예산 본부가 각처에 철성을 전달하니 일시에 기포되어 삼시간에 공주, 온양, 예산으로부터 태안, 안흥군까지 300여리가 일제히 전기불과 같이 기포되었다 한다.⁶⁸⁾

이때 태안 관아에서 동학두령 30여명에 대한 처벌과 동학탄압을 논의하는 것을 엿들은 이방 김엽춘의 정보제공으로 방갈리의 문장로 접주 집에서 안재복, 문장준, 문장혁, 문장권, 문성석, 문구석, 문준보 등이 대오편성을 마치고, 기수대장에 안현묵, 서부대장에 박정백 그리고 북부대장에 이치영으로 하여 태안으로 진군하였다. 마침 태안관아서는 동학두령 30여명을 처형하려는 순간이었는데 동학농민군의 습격으로 처형직전의 동학두목 30여명은 구출

65) 조석현, 「北接日記」, 갑오 9월 30일.

66) “ 들건대 이 읍(태안읍)의 관리나 민간인은 모두 東學黨이 아닌 자가 없다는 소문이 있다.” (『公使館記錄』, 1,236쪽 참조)

67) 한우근, 「개항 후 일본 어민의 침투(1860~1894)」, 『동양학』 1권,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71, 265~276쪽에는 청국 어선의 조선 서해안에서의 도량(跳梁)이 서.태안 지역 어민의 생계를 위협했다 한다.

68) 「北接日記」, 갑오 9월 14일, 9월 30일자.

되고 泰安府使 申百熙와 종친부에서 파견한 김경제는 그 자리에서 타살되고 말았다.⁶⁹⁾ 같은날(10월1일) 서산에서도 농민군에 의해 군수 朴鉦基와 이방 송봉훈은 효수되고 관아와 관속들의 집들이 방화되었다.⁷⁰⁾ 또 농민군은 이튿날 해미를 함락시켰다⁷¹⁾.

동학농민군이 태안,서산,해미 등을 함락한 후 10여일간 농민군 지휘부였던 예포 대도소에서는 10여군에 농민군을 보내 각군의 무기를 탈취하여 대도소에 유치하였다.또한 농민군에 필요한 것은 의연금-백미, 흰소금,돈 등-으로 채워졌다. 신입 교인이 많았으나 그들 신입자는 修道하는데는 마음이 없고, 불법-私債과 충을 빼앗으며 심지어는 말과 곡식만 가질려고 함 - 을 행하는 자가 많아 규제하기 힘들었다.⁷²⁾

사례-1) 10월 5일(양 11월 2일) 새벽에는 덕산포의 동학군 수천명이 방포하면서 아산 읍내로 침입해와서 현아를 파괴하고 무기고의 무기를 모조리 탈취해 갔다고 아산 현감 梁在蹇이 보고하였다.⁷³⁾

사례-2) " 鎭伯書目 結城縣監 朴基鵬 兵符見奪 有難仍置 爲先罷黜罪狀令攸司稟處"⁷⁴⁾

사례-3) " 淸樞書目 軍器見失之 結城縣監 朴基鵬 罷黜其罪狀令攸司稟處"⁷⁵⁾

사례-1,2,3)는 충남 서북부 지역 농민군이 아산,결성 등 곳곳의 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음과 그결과로 지방관이 문책 되었음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이것은 朴寅浩 지휘의 농민군의 작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태안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농민군이 이동하는 동안 각 지역에서 기포한 농민군이 모여들어 그 수가 점증했다.

69) 「文章校歷史」,76쪽.

「日省錄」 고종 31년 10월 13일에 의하면 후임 태안 부사로 同中樞院事 李熙重이 임명되었다.

70) 서산군수의 후임으로는 당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 있던 安城 前郡守 成夏詒이 임명되었다.성하영의 서산군수로 임명된 후에도 공주,보령 등지에서 농민군을 토벌했다.(「日省錄」 고종 31년 10월 11일 갑인 조)

71) 「동학란실화」, 175쪽.

최현식,앞의 책, 134~135 쪽 참조.

72) 「북접일기」, 갑오년 10월 1일.

73) 최현식,앞의 책, 136쪽.

74) 「官報」 개국 503년 10월 13일조

75) 「官報」 개국503년 10월 17일조.

나. 보령·남포의 봉기와 광천 전투

10월 7일(양 11월 4일)에는 홍주목사 李勝宇가 湖沿招討使로 임명되었다.⁷⁶⁾ 홍주목사 李勝宇는 이에 앞서 동학군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자 갑오년 7월에 모든 관속을 소집하여 동학당 방비의 계책을 상의하였다. 그리하여 성안에 있는 관속, 백성들을 군대에 편입하고 한달 월급으로 1인당 백미 세말, 돈 석량씩을 주고 각처에 군사를 모집하여 증영, 즉 지금 참모본부와 오진을 나누어 세우고 각 군관의 부서를 작성하였다. 즉 증영에는 중군에 김병돈, 참모에 한용준, 이주승, 박봉진, 향관에 장정식, 좌수에 이진태, 이방에 이종관, 호장에 김관섭이 영솔하고, 동진에는 영관 이창욱(혹은 이종욱-필자주), 김상갑이 영솔하고, 북진에는 영관 김주현, 이계춘이 영솔하고, 중진에는 영관 이능연이 영솔하여 군율이 매우 엄숙하였다.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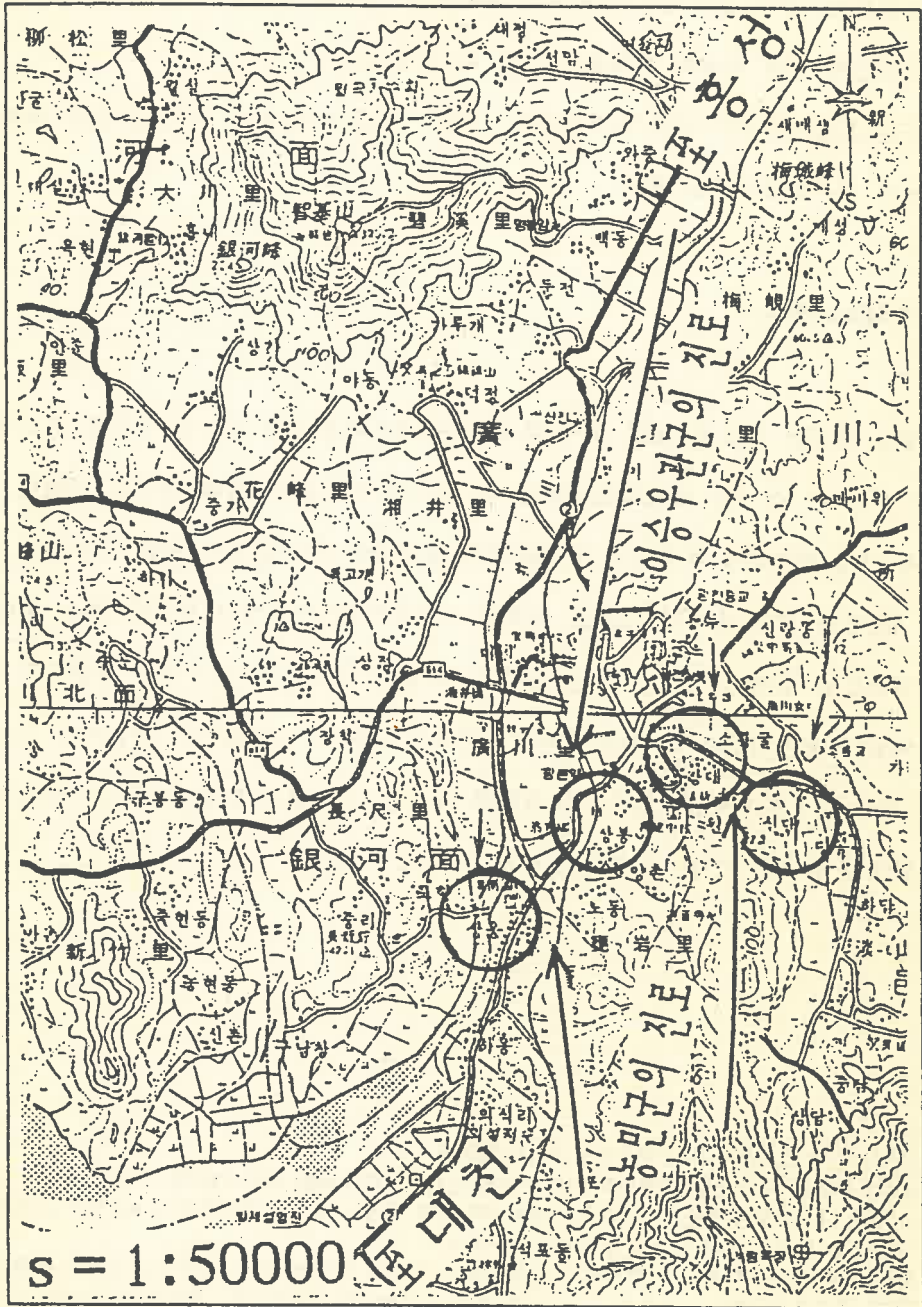
10월 1일 기포시 보령·남포지역에서 騎兵한 두령은 吏屬이었던 추용성이다. 현재로서는 출발점이 분명진 않지만 [그림5]에 나타난 것처럼 一群의 동학농민군들이 오천 수영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광천으로 진격했다.

76) 『官報』 開國五百三年十月初七日

『日省錄』 고종32년 을미 3월 29일조에 의하면 홍주목사 이승우는 갑오년 10월 7일부터 을미년 3월 29일까지 호연초토사를 겸임하면서 홍주목 주변 동학농민군을 진압했다.

77) 『洪城郡誌』 1925년 印本, 950 쪽, 본 자료는 『洪城郡誌』, (1980. 홍성군지편찬위원회)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데, 문헌상으로 남아 있는 동학란에 대한 홍성에서의 처음 기록이 아닌가 한다.

[그림5] 광천전투 상세도



이때 호연초토사 이승우는 관군을 출동시켜 광천의 시장, 신대, 상봉, 용암 등지에서 동학군을 격파하였다. 負商感義碑에 의하면⁷⁸⁾ 10월 8일에 호연초토사 이승우 관군이 광천의 동학도를 토벌하고, 대포 30여대를 노획하여 홍주성에 미비한 무기를 보충했다고 한다. 기타 관군과 동학군의 인명 피해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후 10월 21일(음)에는 남포 도화담에서 수접주 추용재, 이우삼, 이성구, 접주 추용성 등이 관군에게 체포되었다⁷⁹⁾고 한다.

다. 목소대도소전투

木巢(현재 예산군 삼교읍 성리 목시-필자주)는 예포대도소가 위치한 곳으로, ([그림6] 참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예포대도소에서 각 군아의 무기를 탈취해 가지고 있었다. 10월 11일(양력 11월 8일)경에 북접군의 청산대회가 있었다⁸⁰⁾ 공교롭게도 이날 홍주목사 이승우가 日兵 300명과 官兵 수백명 그리고 유회군 수천명⁸¹⁾을 인솔하고 목소에 있는 동학군 본진 예포대도소를 공격해 양군이 접전 3시간만에 먼저 동학군이 패주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므로써 싸움이 중단되었으며, 관군이 승승장구하여 대도소 사무실까지 쳐들어가는 곳마다 불을 질러 소탕하고 물러갔다. 조석헌에 의하면 이 때 동학농민군은 한 사람의 사상자가 없었으나 관군은 사망자 2명에 중상자 3명이었다 한다.

78) 「부상감의비문」, 대보문화연구소, 『대보문화』 제2호, 1992. 35~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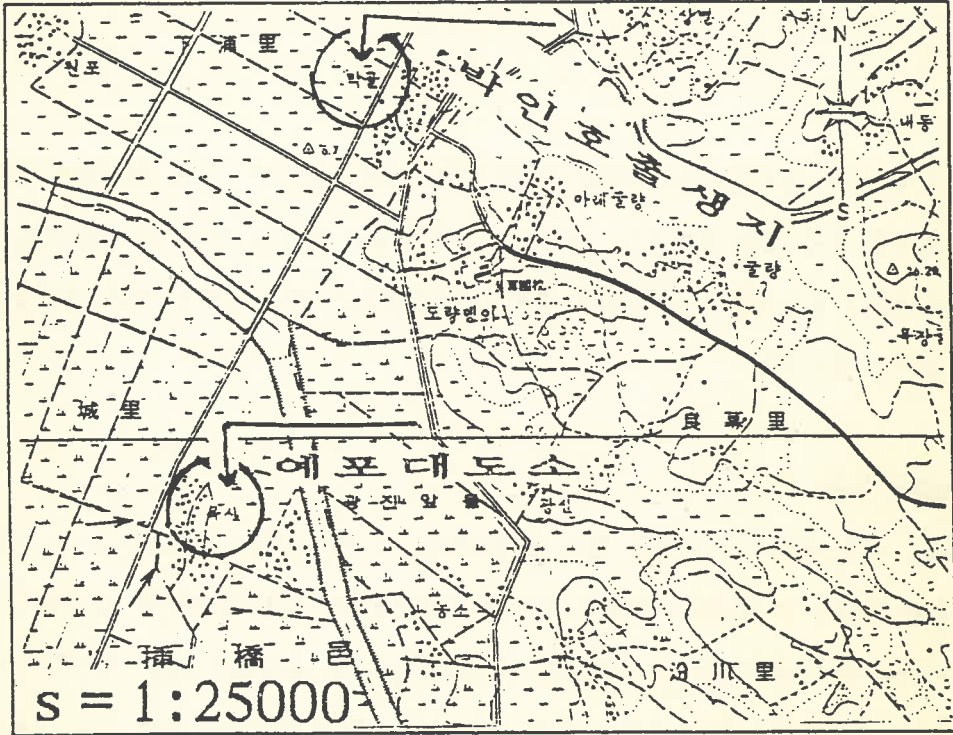
79) 천도교중앙총부교사편찬위원회, 『천도교백년약사(상권)』, 미래문화사, 1980. 264~265. 쪽

80) 10월 11일의 청산대회에 박인호 등 충청 서북부지역 동학 두령이 몇명이 참석했는지 불분명하나 다음은 朴熙寅이 崔時亨을 만나기 위해 청산에 갔었음을 알려준다.

“ 그런데 이때 대접주(박희인 - 필자주)가 法所(崔海月 선생의 장식)에 간지 7,8일이 지났으나 歸還치 않았으니 행동을 결정할 수 없어 ... 수일을 기다리기로 했다.”(『北接日記』, 『한국사상』 제13집, 1975. 408쪽) (일자)참고

81) 『北接日記』 갑오 10월 11일자 일병 300명이 목소대도소를 공격했다는 이 기록은 일본군 특히 赤松國封이 이끈 병력의 이동 날짜를 고려할 때 입증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상감의비」에는 “甲寅(10월 11일)討木沼賊”이라 하여 이승우 관군의 목소 공격 사실을 확인만 해 준다.

[그림6] 목소대도소 주변상세도



홍주관군의 예포대도소 습격이 있는 10월 11일 이후부터 동학군의 대세가 점점 약해져,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일시에 기포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⁸²⁾

82) 「복집일기」 갑오년 10월11일. 320~321.쪽

2) 재2기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은 10월 15일에 다시 기포하였다.⁸³⁾ 10월 15일부터 홍주전투에서 패전한 10월 29일 밤까지는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는 朴寅浩가 총대장이 되어 朴熙寅, 홍중식 등 諸接主가 충남 서북부지역의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다고 생각된다.

가. 승전국 전투

朴寅浩는 해월 崔時亨의 명령을 받아 起兵하였다. 이 때 참여한 사람들은 노인, 어린이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고 각 촌에 총가진 사냥꾼들까지 자진 참가하여 그 수효만 육천에 가까웠다⁸⁴⁾. 각 지역에서 再起包한 동학농민군은 그 움직임이 태안 지역에서 먼저 파악된다. 10월 22일(음력)에 예포 대접주 朴熙寅이 道衆을 인솔하고 태안 동면 역촌리에 주둔했다가 23일에는 해미 구밀리에서 유숙하고 24일에는 해미 여미평(서산군 운산면 여미리-필자주)에 집합했다.

이 무렵 앞서 말한 復菴 이 설은 洪州 목사 이 승우에게 海美의 東學農民軍을 奸計를 사용하여 토벌할 것을 건의했다.

“대저 도적은 무리로 거하면서 하루의 계획도 없어서 장차 병졸이 복종하지 않을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른바 두령이라는 자는 죄를 범하여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卒徒들은 혹은 속임을 당하여 따르고, 혹은 협박을 받아 따르니 간계를 사용하여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게 하면 괴를 흘리지 않고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⁸⁵⁾

83) 『北接日記』 갑오 10월 15일.

84) 『동학사』 174쪽에는 박덕칠(회인), 박인호 등이 7천명으로 기포했다고 기록하였다.

85) 이 설, 『與洪牧書』, 『復菴集』, 대전:미화음셋출판사, 1990, 145쪽. 이하 『復菴集』으로 약함.

한편, 여미평에 집합한 농민군은 경성으로 가기 위해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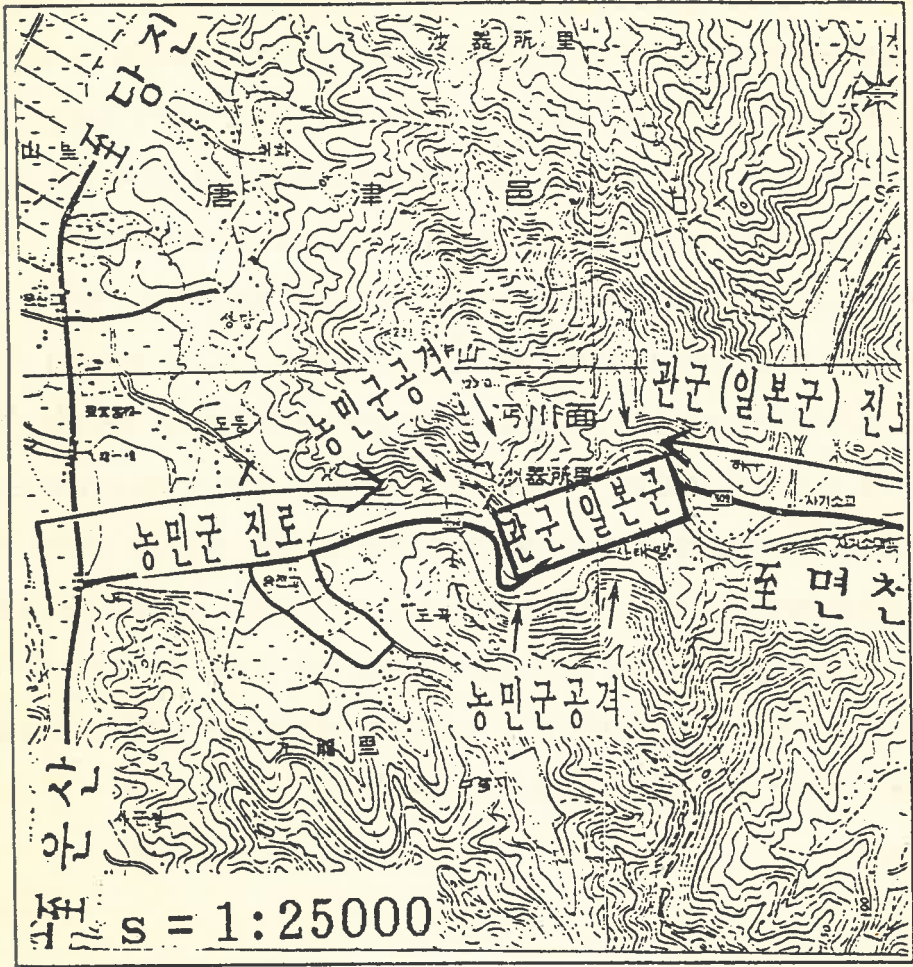
10월 24일(양력 11월 21일) 저녁 동학농민군이 면천 승전곡에 이르렀을 때 농민군 최후병이 관군이 행진해 음을 알렸다. 농민군은 승전곡 양쪽 산으로 올라가 복병을 하고 있었다. 관군이 골짜기에 들어서자⁸⁶⁾ 농민군은 戰端을 일으켜 교전 한 시간여만에 박인호 등의 지휘 아래 무기가 열세인 상황에서도 결사적 각오로 싸워 승리했다고⁸⁷⁾한다. 승전곡은 면천 사기소리와 당진 사기소리가 만나는 험한 지형으로써 勝戰谷이란 지명에서 의미하는 바 지형의 잇점을 잘 이용하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吉地다. 이승우 관군측이 이 전투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赤松國封 지대가 농민군과 교전했다고 파악된다. 적송국봉 지대는 11월 21일(음력 10월 24일) 면천에서 출발하여 해미·여미 방향으로 나갔는데, 농민군은 勝戰谷의 협애(狹隘)를 끼고 방어했으며 그 수가 4·5백은 되었지만, 드디어 격파하고 여미의 고지를 향해 전진했다. 그러나 농민군은 사방의 고지를 점령하고 방어했는데, 그 수는 각처에 5천여명씩 있었으며 1개소대의 병력으로 이를 공격하기에 중과부적이라서 洪州로 퇴각했다 한다.⁸⁸⁾ 이상의 박인호 및 적송국봉이 전하는 전투 상황을 토대로할 때 승전곡 전투 상황은 「그림7」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86) 『공사관기록』6. 232~239쪽에는 赤松國封 소위 지휘의 제2중대 지대 약 70명의 병력이 승전곡에서 전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87) 승전곡전투에 대해 조석헌은 농민군 대항 병력을 일본군 400명과 관군 500명, 유희군 수천명으로 보고, 전과로서 농민군이 일관군 10여명을 살상했으며, 군기와 군복을 다수 빼앗았다고 한다. 그러나 적송국봉의 일본군은 1인의 희생자도 없었다고 한다.

88) 『공사관기록』1. 222쪽. 박인호와 적송국봉 말하는 전투상황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군이 퇴각한 것은 사실이라 판단된다

[그림기] 승전곡 전투상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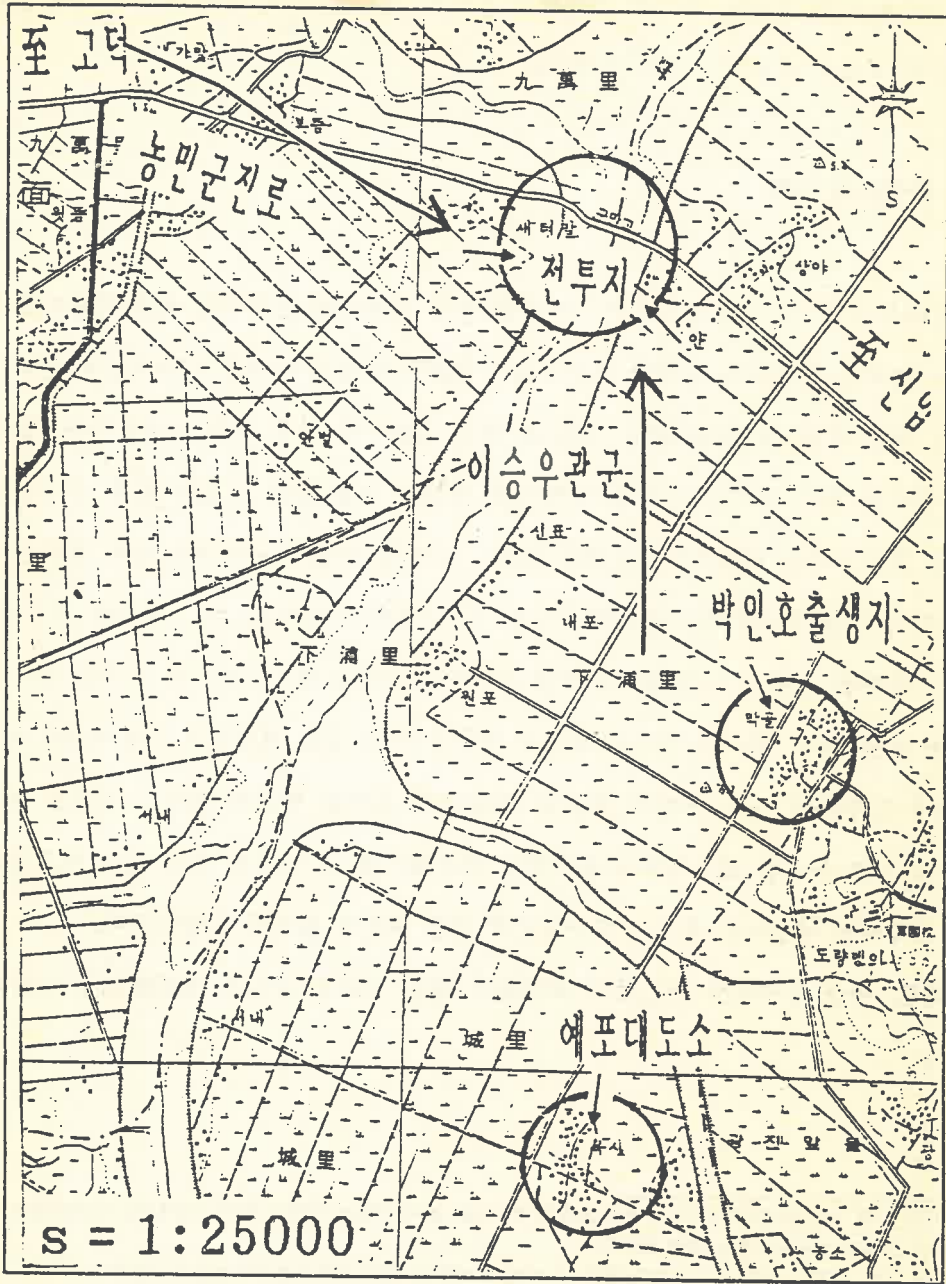


나. 구만포 전투

동학 충남 서북지역 농민군은승전곡 전투를 끝내고 10월 25일 동학농민군은 예산을 향하여 행진 중 면천을 함락시켰다. 다음날 덕산 구만포를 통과하다가 호연초토사 이승우의 관군과 2차 교전을 하여 역시 물리쳤다 한다.⁸⁹⁾

89) 『갑오동학기병실담』, 47.조석헌,문장준,홍종식 등의 기록은 이 때의 전투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8] 구만포 주변 상세도



[그림 8]을 통해 이해할 수 있듯이 구만리는 넓이 약 천여 정보의 평야지대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이 바닷물이 드나드는 구만포에서 집결되어 외부로 나가는 곳이다. 또 지역적으로 박인호의 출생지인 하포리와 예포대도소가 위치한 목소와 인접해있다.『負商感義碑』에

의하면 癸亥日(10월 20일)에 合浦에서 농민군을 물리쳤다고 하는데, 농민군의 이동으로 보아 이는 10월 25일 구만포 전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앞서 또다른 농민군과 이승우관군의 교전이 있었는지 파악이 안된다.

다. 예산산성 전투

구만리포 전투 후 동학농민군은 그 수를 점차 늘려가며 전진하여 예산 역탑리로 향했다. 이어서 신혜원 관작리에 집결한 호연초토사 李勝宇가 보낸 김병돈의 유회군을 만나 교전했다. 또 다른 전황으로 10월 26일 관군은 예산 山城⁹⁰에 진을 치고 대포로 동학군을 격파시킬 준비를 했다. 농민군은 관군이 산성에 매복한 것을 알고 산성을 열결, 스무점으로 에워싸고 포위공격을 하였다⁹¹.)([그림9] 참조) 그런데 선봉에 올라가는 것은 총가진 동학군이 아니고 道童(홍의동자)이었다⁹². 관군은 이 전투에서 패했고, 이 싸움에 중군대장으로 나왔던 金秉嘯, 영관 이창욱(중욱), 주홍섭, 주영섭 그리고 당시 나이 열 여섯인 한기경 등이 전사를 하였다⁹³). 여기서 관군을 물리친 동학군은 그 길로 예산읍으로 들어갔다. 예산군수는 먼저 도망하여 아무 저항이 없었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 하루를 유진했다. 이 후의 진로 문제를 고심하다가 홍주행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한바 경성으로 직행하면 예상되는 홍주 이승우관군에 의한 後患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신혜원, 예산 전투에서 농민군과 교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赤松國封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 90) 예산산성은 무한산성이라고도 불리며, 둘레가 약 655m, 높이 약 2.4m(8척) 정도이다.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우리고장 충남 고적과 지명편 (하)』, 1988. 564쪽
예산 산성 전투에 대해서는 朴寅浩만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갑오동학기병실담, 참조])
- 91) 『북절일기』와 『문장준역사』에 의하면 10월 27일 새벽에 홍주목사 이승우가 유회장주 김 덕경(병돈) 등 10여명의 두목들로 하여금 수십군 사병들과 유회군 45천명을 파송하여 예산군 금평면 신혜원 앞 병현 상봉에 대진을 설치하고 동학군을 향해 수십문의 대포를 발사했다 한다. 그러나 『갑오동학기병실담』에는 이 내용이 없다.
- 92) 『동관잡화』 중 “홍의소년” 에화에는 동학군 중에 12세쯤된 어린 소년이 있어 신혜원에서의 전투 중 용감하게 관군과 접전하여 동학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한다. 참조, 『나라사랑』 제15집, 1974. 177~178쪽.
- 93) 『북절일기』 갑오 10월 27일자에는 신혜원 전투의 결과 이승우 관군의 1등 상수 6,7명과 병졸 7,8백명이 다 물사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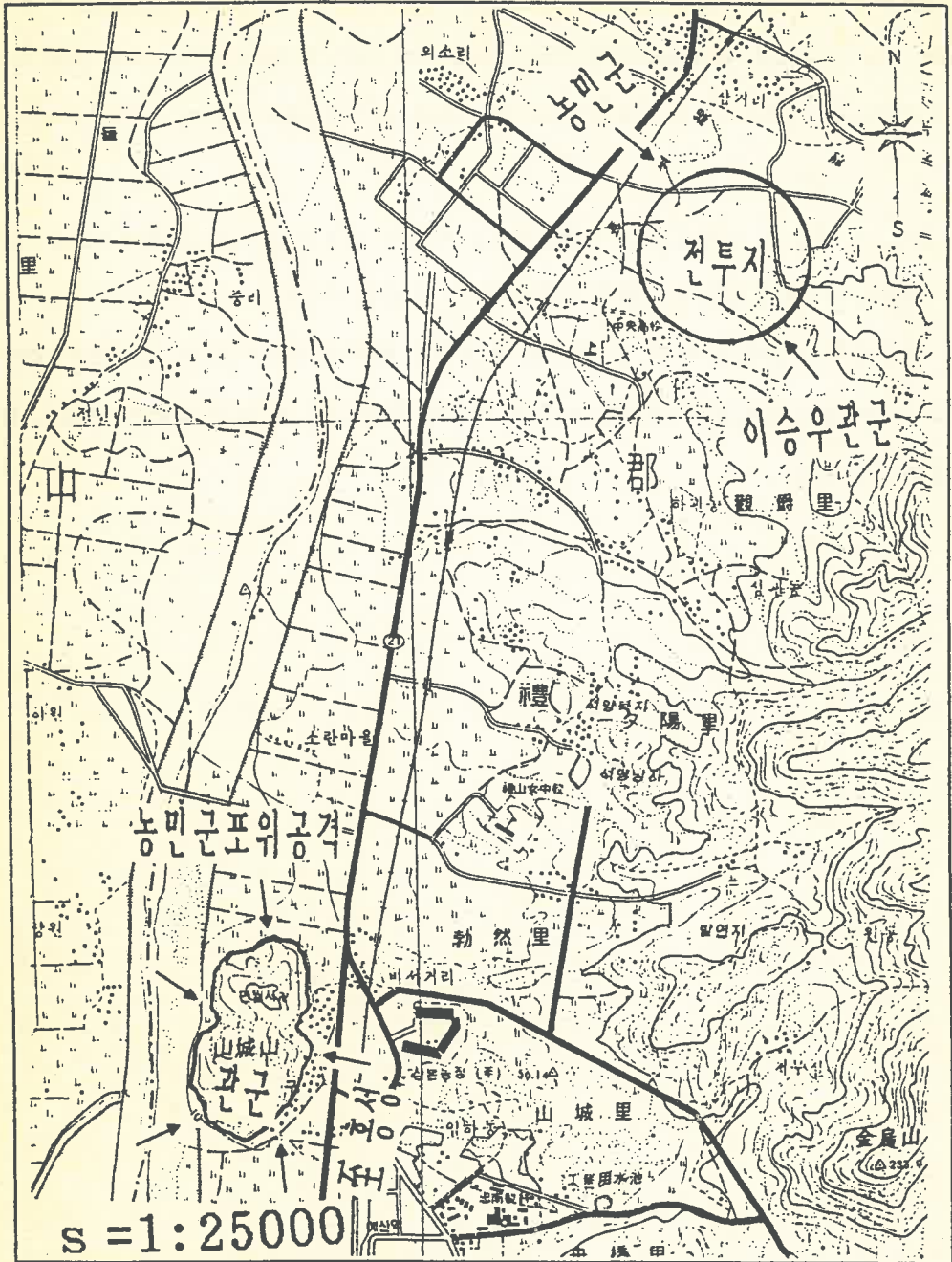
"어제 23일(음력 10월 26일) 오전 6시 예산과 신례원에 동학도가 모여 있다는 것을 듣고, 洪州의 민병 약 1,000여명이 이를 격퇴할 목적으로 먼저 떠난다고 우리 소대에 알려 왔다. 그러므로 곧 저녁 식사를 준비한 후 출발하여 驛里의 고지에 이르렀을 무렵, 先發하였던 민병이 포위를 당해 패해서 퇴각하고 있었다. 적병 2萬은 고지를 점거하고 그밖에 5,000명쯤은 중앙의 밭에 위치해서 점차 예산을 향해 행진하여 京城으로 행진하려는 상황이었다."94)

일본군이 왜 뒤늦게 신례원으로 향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다만 결과적으로 예산, 신례원 전투에서 호연초토사 李勝宇 관군만이 큰 희생을 치렀다.

앞서 농민군의 진로에서 살펴 본 것처럼 농민군은 洪州를 함락시킨 후 경성으로 향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군의 작전은 이승우 관군과 일본군이 쳐 놓은 그물에 제발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었다.

94) 『공서관기록』1. 2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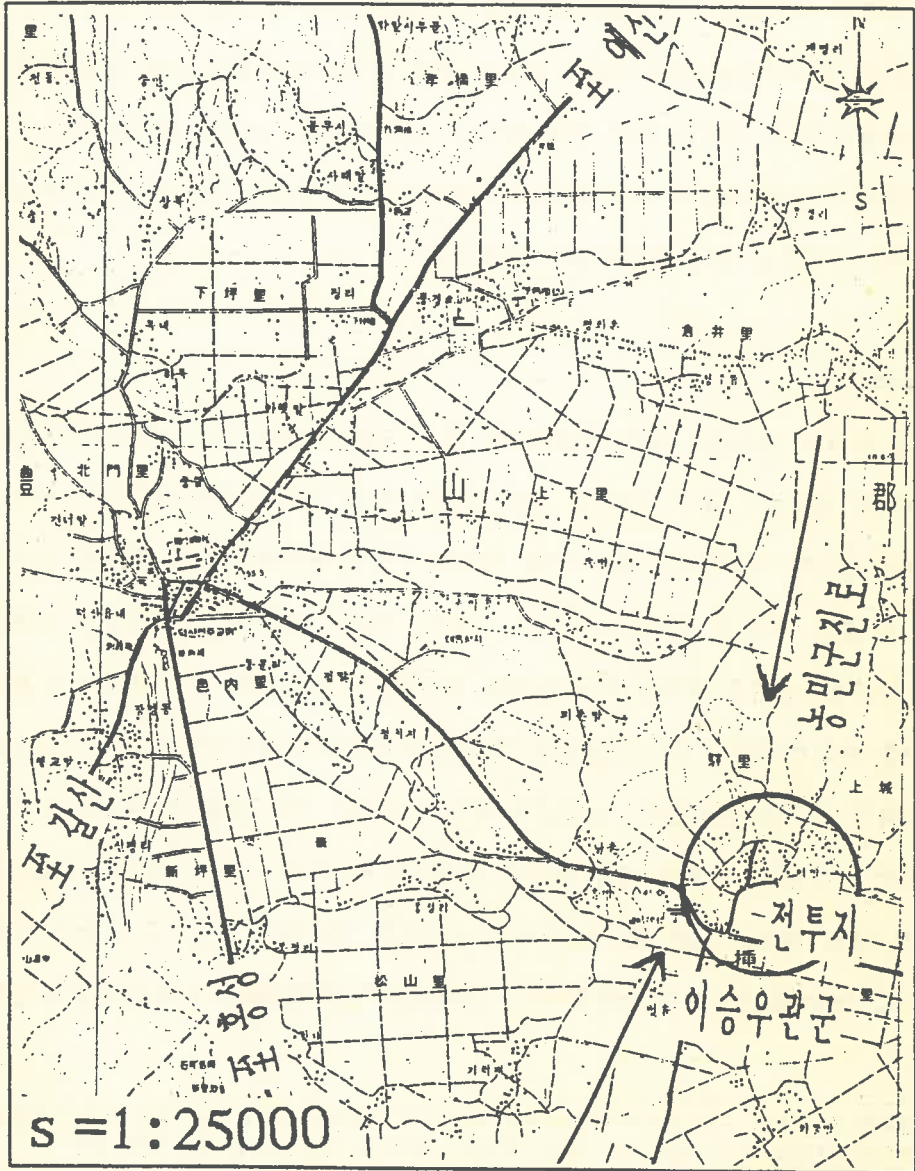
[그림9] 예산산성 주변 전투 상세도



라. 덕산 역말 전투

택하여 예산에서 홍주를 향해 출발한 농민군이 덕산 역말까지 나아갔을 때 관군이 진을 치고 있음을 발견했다.([그림 10] 참조) 이승우 관군은 덕산 역말 주위에 대포를 은폐시켰다.

[그림10] 덕산 역말 상세도



그리고 우물에는 독약을 풀고, 풀속에는 마름쇠를 감추어 놓고 농민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은 밤이면 주문을 외는 규율이 있어서 全軍이 저녁후에 청수를 피시고 주문을 외고 있었다. 그 동안에 덕산 역말의 관군 사이에는 큰 야단이 났다. 관군이 농민군을 공격하려고 준비했는데 밤중에 역말에 사는 술장사 노파 한사람이 이 동리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무죄한 사람이 곤욕을 당할 것이라고 우물로 가서 물을 퍼다가 관군이 감추어놓은 대포 구멍에 물을 부어 놓았다. 이튿날(28일) 그것을 발견한 관군은 동학군은 총구멍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조화를 가졌다고 그냥 도망쳤다⁹⁵⁾. 이 덕산 역말 전투는 박인호만이 전해주고 있어, 사실규명이 곤란하다.

마. 홍주전투

박인호 지휘의 농민군은 10월 28일(음력) 오후 덕산 역말을 지나 洪洲로 진격해 갔다. 이때 관군과 일본군은 홍주 향교 뒤 산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농민군의 세에 압도되어 홍주성 안으로 후퇴했다. 홍주 향교 주변에 주둔한 농민군은 洪州 鄉校를 지키고자 한 서재생, 오경근, 최민지, 방세용, 방석규, 이준복, 서종득, 최학신 등 7명만을 살해했다.⁹⁶⁾ 한편 농민군은 홍주성 공격을 위해 회의를 했는데, 이 때 3·4일 동안 포위하여 洪州 성내의 반란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하느님이 조화로써 돕는다"(역말전투 상기)는 생각으로 성급한 공격을 감행했다. 농민군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짚을 한 묶음씩 가지고 성 밑으로 가서 그것을 쌓아 놓고 성을 넘기로 했다. 관군은 이 때 성밖의 민가에 불을 놓았으며 성밖으로 쏘는 대포에 의해 짚단을 가지고 성안으로 진격하던 농민군은 타죽는 사람, 총에 맞아 죽는 사람 등 죽는자가 속출했다⁹⁷⁾. 赤松國封의 戰鬪詳報를 참조하여 홍주전투의

95) 「동란잡화」에 수록된 "대포 구멍에서 물이 나던 이야기"의 근원지는 신해원 전투 때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갑오동학기병실담」에 근거하면 덕산 역말이 되겠다. 『나라사랑』 제15집, 1974. 178~179쪽 참조.

96) 宋容禧, 「동학란과 칠의비」, 『항토연구』 제7집, 충남항토연구회, 1990, 46~48쪽.

97) 「갑오동학기병실담」에는 농민군 전사자를 3만으로 기록하고 있고, 『공사관기록』1, 211~212쪽에는 200여명이라 기록되어 있다.

시말을 살펴보면, 홍주로 진격한 농민군은 3만명⁹⁸⁾ 정도였는데 이에 대응한 이승우의 관군과일본군은 도합 2천여명이었다. 鷹峰(매봉재 -필자주)의 嶺山에서 덕산 방면으로부터 진격하는 농민군을 관측하고 홍주성으로 퇴각한 일본군은 [그림11]과 같이 1개소대와 2개분대 약70명의 병력을 조선병사 8명씩 섞어 성 주위에 배치하여 농민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10월28일(양력 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10월 29일 오후 5시 농민군의 주력이 해미방면으로 퇴각하기까지의 전황을 요약하면,

11월25일(양력) 오후 4시 농민군이 덕산가도 왼쪽 고지를 점령했다.

오후 4시25분 농민군 한 부대가 氷庫 언덕을 향해 공격해 오자 이에 응사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언덕 위의 일본군은 성 안으로 후퇴했다.

제5분대는 덕산가도 서쪽 북문 가까이에 있는 농민군을 향해 세번 일제히 사격했다.

洪州兵이 북문에 배치했던 대포 2발을 발사했다.

농민군의 한 부대가 동문 전방 약 600미터에 있는 숲 속으로 들어가 다시 홍주성 100미터 전방까지 전진하여 맹렬히 공격하여 용원대를 동문으로 증파시켰다.

농민군은 밤이 되자 야음을 이용하여 대포를 동문 앞 40미터 지점에 끌고 와 동문에다 마구 쏘았다.

오후 7시30분 총소리가 거의 멈추었다.일본군과 홍주 민병은 성벽에 의지해서 밤을 새워 경계했다.

11월 26일 오전 6시 농민군은 세 방면에 엄호병을 남기고 약 1,500미터 되는 곳에 있는 鷹峰 고지로 퇴각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오후 4시 30분 폐잔병을 용봉으로 모아(빙고 언덕은 제외) 퇴각했다.

오후 5시 氷庫 언덕의 농민군 해미 방면으로 퇴각했다.

홍주전투의 전개를 살펴볼 때 농민군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무모하게 공격을 감행했다.낮에는 성문을 부수고 입성하고자 했고,밤에는 짚단을 이용하여 성벽을 넘고자 했다.전투의 결과는 일본군은 피해가 없었고,洪州 민병 4명이 부상,賊徒(농민군) 전사자 200여명,부상자 미상,탄약 소비 3,139발이었다.⁹⁹⁾

98) 『大阪朝日新聞』(明治27년 12월 16일자)에는 홍주 전투에서 포로 金載鉉은 농민군의 수를 6만이라 했다 한다. 통일촉진범국민협의회편,『꺼지지 않는 동방의 빛』,(서울:백양출판사,1989),46쪽 참고.

한편 홍주전투 중 湖沿招討使 이승우의 활약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데 황현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승우는 막객(幕客) 홍건(洪健)의 건의로, 동학의 종교적 '조화'가 있다고 맹신하는 농민군을 다음과 격퇴했다고 한다.

"이때 적이 大隊 만여명을 합해서 성을 세 겹으로 포위했다. 이에 승우는 대포를 들고서 탄환을 빼고 쏘니, 적들 중에서 말하기를, '일찌기 들으니 탄환이 道人을 쏘지 못한다고 하더니 그말이 맞는구나.' 하고 드디어 성을 꺾박하여 대들었다. 이때 승우가 비로소 탄환을 넣고 일제히 쏘니, 적은 이미 뒤가 막혀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못하고, 탄환에 맞은 자가 서서 죽는다 다시 돌이킬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쌓여서 시체가 城보다 높아 마치 긴 독과 같은 것이 셋이 되었다.¹⁰⁰⁾

이제 다시 농민군의 움직임을 보면 10월 29일(양력 11월 26일) 날이 밝아오면서 동학농민군 진은 깨어지고 갈산방면, 덕산 등 사방 팔방으로 농민군은 흩어졌다. 이때 총대장 박인호는 홍주전투에서 서산의 이창구, 예산의 이군자 등 농민군 지도자를 잃고 삼교 근처로 피신했다. 그 후 박인호는 김명배, 김의형, 엄주동 등과 함께 해월 崔時亨을 찾아갔다 한다.¹⁰¹⁾

홍주전투와 관련하여 우리는 홍주지역의 동학농민군의 동향에 대해 살펴 보아야겠다. 이는 필자가 수집한 몇 가지의 촌노들의 구전에 근거한다.

사례-1) 結城 龍湖里(옛 장터)에서는 농민군이 북과 괘곡리의 장단에 맞춰 대장을 가지고 훈련했다.¹⁰²⁾

사례-2) 은하 장척리는 배씨 집성촌이다. 갑오년에 고달집이란 사람이 동학을 포교했는데, 동네 어른들이 입도하지 말라고 했다. 배채원이란 분은 경을 잘 읽었는데, 전라도에 왕래하면서 동학을 접했다. 점학삼이란 사람이 말을

99) 『공사관기록』 1. 211~212쪽

100) 황 현 저, 이민수 역, 『東學亂(東匪紀略草叢)』, (서울: 을유문화사, 1985), 224~225쪽.

101) 朴寅浩, 『갑오동학기병실담』, 48쪽

102)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박동선 옹의 증언.

이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있는데 이 설의 문집인 『復菴集』 소수 『與洪牧書』에 "龍湖諸處其尤焉者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설은 승정원에서 승지로 있다가 갑오년 6월에 낙향하여 홍주목사와 함께 농민군 토벌에 관여했다.

연안이씨충정공파중증, 『復菴集』, (대전: 미화음셋출판사, 1990), 150쪽.

타고 와서 동학을 선전했다. 김돈옥의 배부 정하연이 동학 가입을 권유하다가 흥동으로 이사갔다. 즉 고달집, 정학삼, 정하연이란 세사람이 장척리에 와서 동학에 입도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학에 입도한 아낙네들은 입도하지 않은 부녀자들이 물을 길어 가지 못하게 방해했다.”¹⁰³⁾

사례-3) 선친 이윤택은 용호리에서 머슴살이를 했다. 그러던 중 농민군에 가담하여 흥주 서문밖에서 참전하였다가 패전 후 도망하여 강경으로 피신하였고 선친과 함께 참전한 조공오는 안면도로 도망했었다.¹⁰⁴⁾

사례-4) 홍산도인 김현필은 흥주접전에 갔다가 관병에게 사로잡혀 수백명의 많은 인원을 한모퉁이에 몰아넣고 총을 난사하여 죽이는 속에 무더기로 쓰러져 관군이 불질러 오던 중에 시초(설)의 결핍으로 참화를 당하지 않고 돌아왔다.¹⁰⁵⁾

구전이러서 신빙성이 낮지만, 사례-1,2,3,4)는 흥주 지역의 당시 상황을 단편적으로 알려 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흥주 전투시 인근 지역민의 호응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호연초토사겸 흥주목사 이승우는 흥주전의 승리로 전라감사로 승진되었으나 흥주 사람들이 유임을 원해 유임하는 한편 고종임금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친서를 받았다.

“ 비적의 무리가 영남과 호서 사이에 난을 일으킴으로부터, 요망한 기운이 사방에 흩어져 성과 동리가 곳곳마다 깨지고 부서졌으며, 한사람도 능히 막아본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오직 너 흥주목사 겸 초토사 이승우만은 능히 여러 사람들의 마음으로 성을 삼아 아전과 백성을 거느리고 여러 번 미친 칼을 찍어 호서 좌우에 있는 수십개의 고을로 하여금 장성같이 의지하게 되어 그 공이 대단히 나타났으므로 내가 꼭 아름답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으로부터는 도내 각 진영 고을의 군사를 병부와 신호를 기다릴 것이 없이 형편에 따라 징발하게 하고 대소의 관민을 약속하여, 상과 징벌을 행하게 하되 혹 공이 있어 군부에 동용할 사람이 있거든 제도대로 벼슬을 주고 그 뒤에 아리게 하며 관할한 모든 군무를 편의한대로 행사하기 바란다. 이에 유서로써 부월을 주노니 너는 삼가 이대로 행사하여 나의 위탁하는 뜻을 저버리지 말지어다.”¹⁰⁶⁾

103)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배신회 용의 증언

104)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이연준 용의 증언

105) 『동학사』 188쪽

106) 『官報』 개국 503년, 10월 24일조.

이후 나라에서는 목사 이승우 이하의 將官, 守令, 戰卒에게도 賞을 내렸다.¹⁰⁷⁾

복암 이 설(1850-1906)과 지산 김복한(1860-1924)은 갑오년에 중앙의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홍주목사의 농민군 토벌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⁰⁸⁾ 비교적 많은 기록을 남긴 복암 이 설은 정부에서 司諫으로 있을시 “論南搖陳所懷疏”를 올려 고종에게 동학란에 대한 대책을 개진했으며¹⁰⁹⁾, 갑오년 4월 홍주 구항으로 낙향하여, 10월에 동학란이 일어나자, 호연초토사 이승우와 동학도의 진압책을 논의하고, 월산(月山)에 나가 백제의 옛성 유허에 진지를 닦고 곡식을 많이 저축하여 일방으로 지키고 망보는 장소로 하였다.

110)

충남 지역에서 儒會를 결성한 지역으로는 서산·공주·홍주·천안·보령·비인·천안·예산·대흥¹¹¹⁾·덕산 등이다.

홍주전투는 충남 서북부지역 농민군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 주었다. 이후 사방팔방으로 패퇴한 농민군의 주류는 해미로 이동해 해미성에 응거하였다.

3) 제3기

10월 29일(음) 이후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은 해미와 서산지역에서 관군에 추격을 당하면서 흩어지게 되었다. 한편 홍주의 관군, 일본군은 보령·남포지역에서의 농민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였다.

107) 『日省錄』, 고종31년 10월 24일조

108) “是歲冬東匪猖獗洪州牧使李勝宇方在討伐先道寓邑下仍往赴多所參助躬自巡撫軍卒得其歡心焉” 김복한, 『志山先生文集』 권, (김중일 발행, 서울: 경인문화사, 1990). 458쪽.

109) 『復菴集』 권 四, 69~73쪽.

110) 이 설 의 저, 송창준역, 『福堂唱酬錄』, 대전: 향지문화사, 1992. 2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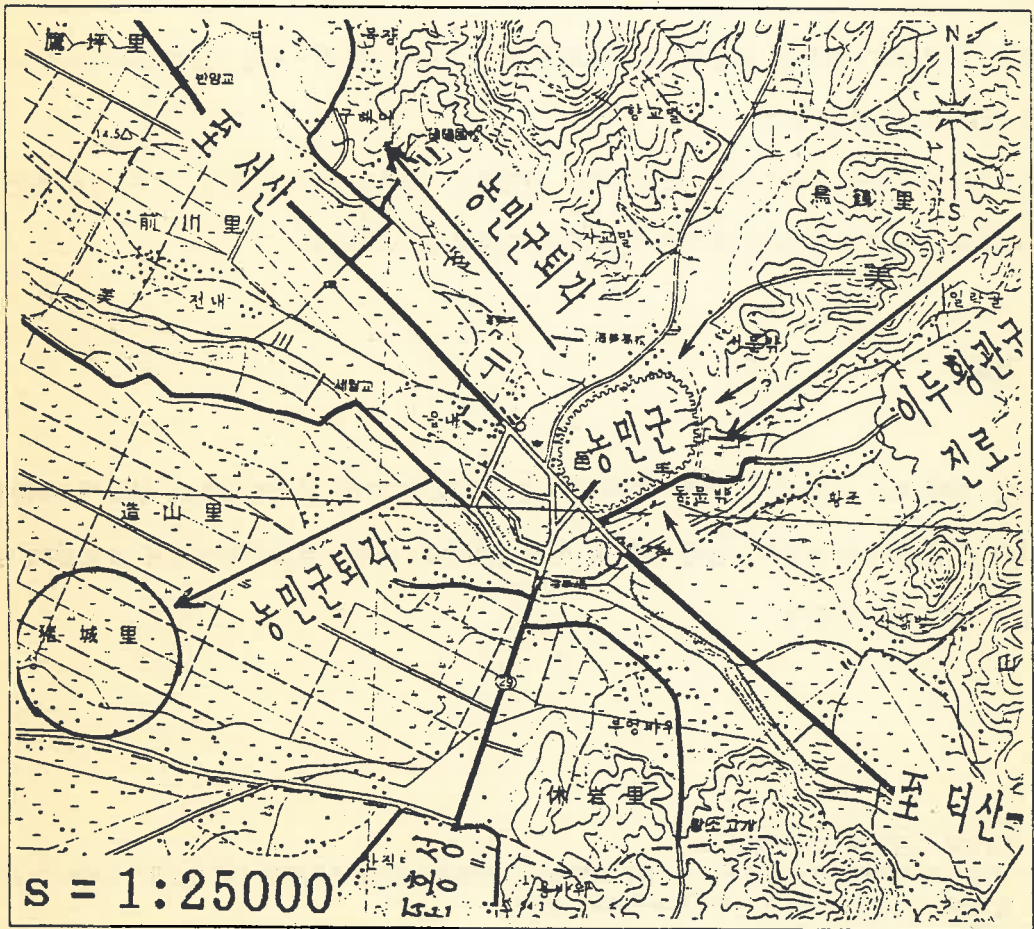
111) 갑오 동학란 당시 대흥에서는 군수 李昌世가 儒會의 都正이 되고 儒會, 守備, 下吏를 합한 201인이 합심하여 동학란을 무사히 넘겼다고 한다.

『任城同苦錄』, (충남향토연구회, 『향토연구』 제2집, 1986) 32~34쪽 참조.

가. 해미전투

홍주 패전 후 박인호 대장 등 동학지도자의 대부분이 이탈된 가운데¹¹²⁾, 10월 29일(음) 덕산·갈산 등을 거쳐 해미성에 입성한 동학농민군은 11월 7일 새벽 일락치로부터 잠입해 온 이두황의 관군과 하루 동안 접전끝에 패하고 말았다.([그림12] 참조) 해미 전투에서 박치용, 진삼달 등 29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양호우선봉 일기에 의하면 이두황군이 해미전투에서

[그림 12] 해미 전투 상세도



112) 홍주전투 후 박희인, 조석현, 문장준 등도 피신했다고 한다.('북접일기' 및 '문장준역사' 참조)

동학농민군으로부터 노획한 전리품은 다음과 같다.

佛郎器 十一坐, 大砲 四坐, 子砲銃 二二桶, 槍 八十五桶, 鳥銃 四三桶 千步銃 十桶, 環刀 九桶, 大鉦 三坐, 小鉦 三坐, 鼓 二坐, 砲丸 百三十斤, 長袋 四浮, 鉛丸 六棒, 火藥 五百斤, 浸水器 八, 水鎗桶 四斤¹¹³⁾

이날 해미현에서 패전한 동학농민군은 한 무리는 북쪽으로 구산성에 집결하였고, 다른 또 한부대 4·5백명은 성의 남쪽 10리에 있는 저성에 집결하여 저항하였으나, 관군의 추격으로 서산 매현으로 패주하였다. 이 해미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동학농민군측 자료가 없는 실정 이어서 이상의 사실을 달리 확인해 주지 못한다.

나. 서산 매현 전투

해미 지역에서 패주한 동학농민군은 이두황의 양호선봉일기에 의하면 11월 8일(음) 저녁 밥을 먹을 무렵부터 두 시간동안 관군과 접전했다. 농민군은 패하여 흩어졌으며 이때 관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농민군은 이금봉 등 5명이며, 매현 싸움에서 관군이 노획했다는 무기는 大砲 一坐, 千步銃 七柄, 鳥銃 七柄, 槍 十六柄, 銅 四介, 光劍 一介, 環刀 二柄, 砲卵 一升 등이었다.

충남 서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의 관군과의 마지막 전투지라 할 수 있는 서산 매현의 위치는 불분명한데, 「부상감의비」에는 관군과 유병이 서산 도비산까지 농민군을 추격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투지는 도비산과 서산읍내 주변으로 추정된다.

홍주 전투와 해미·서산 전투후의 농민군의 상황은 한 마디로 처참했다. 농민군측의 자료에 의하면 홍주전투 후 충남 일대의 접주(소두목)들은 전부가 관군에 사로잡혀서 총살되었고 남은 이들은 밤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굴에서 잠을 자고 낮이면 촌으로 들어가 걸식

113)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서울:금강출판사), 1980. 144~145.쪽

을 해가면서 연명을 하기도 하였다.¹¹⁴⁾

한편, 문장준은 홍주전투 후의 경험을 소상하게 밝히고있다 문장준은 홍주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하게 되자, 목욕리(삼교목리-필자주)에서 방황하다가 동지 수백인과 함께 해미와 서산을 지나 태안 본가로 돌아갔다. 수일이 지난 11월 15일 민보군에게 체포되어 고문과 취조를 당했다.이후 서산으로 끌려갔다가 이범서가 영장으로 있는 해미영에 수감되었다. 11월 23일에 물금표를 주어 귀가케 하는 관의 조치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으나 민군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동지들과 가족을 데리고 서천 개주, 안면도, 황해도로 도피 생활을 했다.¹¹⁵⁾ 문장준의 이와 같은 경험은 동학 농민군에 참여하였다, 관군에 희생되지 않은 이들의 대표적 경험일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동학농민전쟁 후 농민군의 동향에까지 연구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 보령·남포지역의 움직임

남포 지역은 朴寅浩 휘하의 접주 추용성이 起包한 곳이없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움직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이 지역은 충남 서북부 지역 농민군의 주된 이동로와는 떨어져 있다.이 보령·남포 지역은 부여·홍산 등지와 더불어 朴寅浩의 농민군과는 다른 농민군들이 활동했음이 나타난다.

1894년 10월에 한산, 서천 지방에는 운동접, 임천접 등이 연합하여 곡식과 돈을 거두어들이며 군사 연습을 했다. 이 지역 대접주 이종필은 10월 15일 농민군 수천을 이끌고 임천으로 향했고, 22일에는 전라도 농민군 수천명이 임천읍에 들어 닥쳐 군기를 빼앗았다¹¹⁶⁾.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 의하면 홍주 전투 후의 한산, 남포지역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월 7일(음력 11월 13일) 홍주목사 이승우는 홍주 전투 직후에 인천에서 증파되어온 산

114) 「갑오기병실담」, 48쪽.

115) 「문장준 역사」, 77~79쪽

116) 10월14일(음)에는 임천에서 도인 수만명이 기포하였고,동 22일에는 전라도 동학도 천여명이 임천 관아의 무기를 탈취해 갔다. 최덕기,「동학란기록」

촌대위에게 동학도 수천명이 한산, 남포 방면에 집합해 홍주로 내습하려 한다는 내용을 알렸다.¹¹⁷⁾ 이에 그 방면으로 척후병을 파견했던 일본중원군 중대장 산촌은 1개 소대를 홍주에 남겨 놓고, 본대는 해미, 태안, 서산을 경유하면서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홍주에 남겨진 일본군 1개 소대는 재등소위가 지휘했으며, 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한산과 남포방면 농민군의 내습에 대비한 것이었다. 12월 13일 보령에서 홍주목사에게 보고 된 바에 의하면, 농민군이 홍산을 略取하고 猪洞으로 나와 보령을 공격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홍주에 남겨진 일본군은 자신들의 임무 밖의 일이라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한산, 남포지역의 농민군이 잠잠해지자 재등 소대는 본대와 합세하여 인천으로 귀대했다.¹¹⁸⁾

117) 농민군들이 11월 12일에는 한산을 함락시켰다. 11월 22일 이후 일병과 京兵이 홍산, 남포 등지에서 동학군 진압을 담당했다. 최덕기 「동학란기록」 참조.

118) 「공사관기록」, 1. 234-239쪽

맺 음 말

본고는 1894년 東學農民戰爭 당시의 농민군의 활동을 충남지역, 특히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증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 본고를 장별로 요약하면서, 충남 서북부지역 농민군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성격을 정리해 보자.

제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충남 서북부 지역은 여타지역에 비해 교통이나 농·어업 생산과 상업활동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만연된 19세기 후반의 조선 사회의 말기적 양상이 동학농민 봉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측면에서는 朴寅浩 등의 포교에 힘입은 동학의 교세 확장이 예포, 덕포의 성립을 가져왔고, 이것이 1894년 농민전쟁의 조직적 봉기를 가능케 했다고 판단된다.

제2장에서는 농민전쟁을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고찰했다. 1차 농민전쟁기에는 전라도와 인접한 충청지역에서 갑오년 4월 7일 청산에 모인 농민군이 회덕현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진잠현으로 진격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남쪽에 호응 필기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이 시기 충남 서북부지역 홍종식이 전하는 홍주 원벌 집회와 김윤식이 전하는 면천에서의 향약 조직 등을 볼 때 동학농민의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홍주 원벌 집회는 양반들의 동학탄압과 그에 대한 동학도들의 저항으로 2차 농민전쟁기 태안·서산의 봉기 원인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차 농민전쟁기에는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뚜렷한 농민군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들 농민군은 홍주목사 겸 호연초토사 이송우군과 이두황의 관군 그리고 적송국봉소위와 산촌대위가 지휘한 일본군과 교전했다. 농민군은 신례원과 예산 산성 전투에서는 이송우軍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洪州 전투에서는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홍주 전투는 한발 앞서 전개된 세성산 전투와 홍주전투 직후 전개된 남·북접 연합군의 공주 전투의 전개는 동학농민군 전투의 극성기였다. 그러나 무기와 전투력의 劣勢로 농민군은 이들 전투

에서 패전했고 경성 진공의 목표는 실패했다.

충남 서북부지역 농민군이 보여준 특징은 무엇일까?

2차 농민전쟁 시기만 국한하여 살펴본다면, 첫째 그 농민군의 진로가 될 것이다. 농민군의 진로는 태안, 서산 지역에서 봉기하여 덕산, 예산, 홍성을 거쳐 해미, 서산, 태안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농민군의 대다수가 서산, 태안 지역민이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그러면 왜 태안, 서산 지역민들이 봉기의 주축을 이루었을까? 그것은 앞서 고찰한바 홍주목에서는 태안·서산 지역이 가장 동학교세가 성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동학도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봉기의 주된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전봉준이 2차봉기의 주된 이유가 斥倭洋 인접을 고려할때 더 깊은 연구를 요한다.

둘째, 봉기 시점에 있어 충남지역은 전라도의 전봉준의 2차 봉기(9월 12일)보다 늦은 9월 18일 최시형의 기포 명령에 의해 일어났다. 이는 이 지역이 北接 교단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고, 전라도에 비해 종교적 순수성이 강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세째, 충남 서북부지역의 농민군 전투력의 약세가 나타난다. 일본군은 스나이다소총을, 농민군은 대창 외에 後裝銃과 야포를 소유하였지만, 농민군의 화력은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네째, 충남 서북부지역 농민군 최대의 참패인 홍주패전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하나는 동학의 "조화"를 맹신하고 성급하게 공격한 점이다. 때문에 攻城戰의 도구로 구하기 쉬운 짚단을 이용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예군인"이 아닌 오합지졸로 표현되는 "농민군"이었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필사적인 전투력 발휘는 곤란했을 것이다. 이점은 참여계층을 살펴볼때도 나타나는바, 박인호, 홍종식, 조석현, 문장준의 기록을 종합하면 농민군은 道衆(동학도), 사냥꾼, 장정, 어린애, 노인, 부호, 雜人(수도하는 데는 마음이 없고 재물약탈에 힘씀), 가난뱅이, 상놈, 백정, 종놈 등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지도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다섯째, 충남서북부지역 농민군이 가지는 성격과 의의다. 이 지역 농민군은 2차 농민전쟁의 성격인 척왜양 성격 이외에도 양반층과 관리의 학정에 대해 보복하는 반봉건적 성격도 드러난다고 판단된다. 농민, 천민층의 양반에 대한 보복은 양반들이 소극적으로는 피신책을 적극적으로는 지방관과 함께 유희군을 조직하여 농민군 진압을 하는 이유가 되었다. 충남 서

북부지역에서 유희군의 활약이 컸던 곳은 홍주,면천,보령,대흥 등이며,보령과 대흥의 유희군은 농민군 진압에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朴寅浩,朴熙寅 지휘의 충남 서북부지역 농민군은 관군,일본군에 의해 홍주전투의 패배로 경성으로의 진격이 차단되었지만, 반면 관군,일본군의 농민군 진압작전에 분산을 초래했다.

본고는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의 시말을 다룬 첫 시도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연구의 진전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자 료

- 『東學亂記錄』 上,下, 國史編纂委員會.1959.
吳知泳저,李章熙역,『東學史』,서울:博英社,1974.
李敦化,『天道教創建史』,경성:大同印刷所,1933
黃玆저,李民樹역,『東學亂』,서울:乙酉文化社,19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國史編纂委員會 1986 - 91.
曹錫憲 「北接日記」,『韓國思想』 13,1975.2.
崔德基 「東學亂日記」,忠南鄉土研究會,『鄉土研究』제7집,1990.
文章峻 「文章峻歷史」,天道教新人間社,『新人間』,1979년11월.
車相瓚 「東亂雜話」,天道教新人間社,『新人間』,1926년4월.
洪鍾植 「東學亂實話」,天道教新人間社,『新人間』,1929년4월호.
朴寅浩,「東學起兵實談」,朝鮮中央日報社,『中央』16,1935년2월.
『舊韓國 官報』,韓國學資料叢書 제1권,亞細亞文化社,1973.
金允植,『續陰晴史』上(第七 沔陽行遣日記),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0.
東學亂史料,『日省錄編』 其 一~三 『亞細亞研究』 3:1~2,4:1 1960.6.~12,61.6.
村山智順저,崔吉城,張相彥공역,『朝鮮의 類似宗教』,계명대학출판부,1991.
延安李氏忠靖公派宗中,『復菴集』,대전:미화읍섯출판사.1990.
復菴 이 설 외,宋昌準역,『福堂唱酬錄』,대전:鄉志文化社,1992.
金福漢,『志山先生文集』,乾坤,서울:京仁文化社,1990.
林翰周,「洪陽紀事」,『獨立運動史資料集』 제2집,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1979.

2. 저서 및 논문

- 동학농민전쟁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편,『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서울:여강출판사,1991.
서울대학교인문대학독일학연구소편,『한국근대사에 대한 자료』,서울:신원문화사,1992.
우윤,『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서울:창작과비평사,1993.
村山智順 저,최길성.장상언 공역,『朝鮮의 類似 宗教』,대구:계명대학출판부,1991.

- 노태구역음, 『동학혁명의 연구』, 서울:백산서당, 1982.
- 한우근, 『동학과 농민봉기』, 서울:일조각, 1983.
-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1』, 서울:역사비평사, 1991.
- 구양근, 『갑오농민전쟁원인론』, 서울:아세아문화사, 1993.
-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서울:금강출판사, 1980.
- 류종기편, 『동학혁명』, 서울:동광출판사, 1979.
- 이선근, 『한국사』 현대편, 진단학회. 서울:을유문화사, 1963.
-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서울:청아출판사, 1982.
- 천도교중앙총부敎史편찬위원회, 『천도교백년略史』, 상권, 서울:미래문화사, 1980.
- 이용우, 『꺼지지 않는 동방의 빛』, 서울:백양출판사, 1979.
- 일기자, 『갑오동학과 충청남도』, 『개벽』, 1924년 1월호.
- 송용재, 『동학난과 칠의비』, 『향토연구』 7집, 충남향토문화연구소, 1990.
- 김중규, 『신동학기행』, 대전일보, 1989.10.25 - 1990.7.3.
- 박상건, 『당진지역 중심의 동학농민전쟁』, 『내포문화』 제4호, 당진향토문화연구소, 1992.
- 이이화,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 7-10호, 역사비평사, 1989-90.
- 이광재, 『동학농민혁명과정에 있어서 남북접의 대립』, 『순천대학논문집』, 제5집, 1986.
- 최덕수, 『청일전쟁과 아산』, 『아산의 문화유적』, 아산군, 1993.
- 장영민, 『동학의 대선생신원운동에 관한 일고찰』,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 1991.
- 박맹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의 인식』, 1991.
- 박래원, 『춘암상사의 행적』, 『신인간』, 1972.1-4.
-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1.
- 양상현, 『1894년 농민전쟁과 함일의병전쟁』, 『남북한역사인식비교강의』 근현대편, 일송정, 1989.
- 한우근, 『開港 후 日本 어민의 침투(1860-1894)』, 『동양학』 제1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1.
- 洪性讚, 『1894년 집강소기 설포하의 향촌 사정 - 부여 대방면 일대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제39집, 1983.
- 梁晋錫, 『충청지역 농민전쟁의 전개 양상』, 공주대학교 개교 45주년 학술발표, 1993.11.4
- 吉野誠, 『영사관 보고를 통해 본 조선의 내지 시장 - 1900년의 충청남도』,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서울:비봉출판사, 1989.

[부록] 충남 서북부지역의 동학농민전쟁 관련 금석문 자료 소개

현재까지 파악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세워진 東學農民戰爭 관련 금석문 자료는 14개가 있다. 이 중 13 개가 비석이고, 하나는 정려문 현판이다.

이 자료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동학농민전쟁 당시 충청감사 박제순 비 1기
· 觀察使朴公齊純愛民善政碑
- B) 홍주목사 겸 호연초토사 이 승우 비 6기
 - 招討使李公勝宇清德碑
 - 行牧使兼招討使李公勝宇斥邪善政碑
 - 招討使李公碑
 - 行牧使兼招討使李公勝宇百世不忘碑
 - 行牧使兼招討使李公勝宇清德永慕碑
 - 湖泊招討使李公勝宇紀蹟碑
- C) 김병돈 비 2기
 - 贈軍務參議金公秉墩有公之碑
 - 贈軍務參議金公秉墩忠節戰忘碑
- D) 유희장 박순식 비 1기
 - 儒會長幼學朴舜熄著德碑
- E) 한기경 정려기 1기
 - 義士韓基慶旌閭記
- F) 홍주향교에서 농민군에게 희생된 희생자 위령비 1기
 - 七義碑
- G) 동학농민군측에서 세운 비석 2기
 - 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
 - 春菴上師朴寅浩遺墟碑

이상의 금석문 자료를 다시 건립 시기별로 하나씩 소개하기로 한다.

1. 招討使李公勝宇清德碑

A. 소재지: 아산군 도고면 향산리(용호원)

B. 건립 시기: 을미년(1895) 3월

C. 비 신: 높이 116cm 폭 45cm 두께 17cm

D. 연 혁: 홍주목사 이승우는 갑오년 10월 7일부터 을미년 3월 29일까지 호연초토사를 겸임했다. 이 비석은 이승우가 호연초토사를 사임할 무렵에 세워진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승우에 관한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그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E. 비 문:

百	一	招	有	民
里	片	討	范	安
春	秋	使	軍	賊
風	月	李	中	破
虎	隣	公	威	誠
略	境	勝	振	功
鴻	威	宇	擊	拱
功	賴		東	北
		清		
乙		德		
未		碑		
三				
月				
日				

2. 行牧使兼招討使李公勝宇斥邪善政碑

A. 소재지: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가곡국교 앞 경노당 내

B. 건립시기: 을미년(1895) 4월

C. 비 신: 높이 134cm 폭 52.5cm 두께 22.5cm

D. 연 령: 이 비는 충청감사 박제순 비와 나란히 서 있는데, 이곳은 서산에서 홍주로 가는 지름길이 통과하는 곳이다. 홍주목사 이승우가 을미년에 홍주부관찰사로 재직시 을미의병 주모자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이 비석이 파손될 뻔했으나, 사적 가치를 고려해 보존해 왔다고 한다. (갈산면 신안리 김현구 옹의 증언)

E. 비 문:

(전면)

節
鉞
齊
光

同
教
太
平

豎
石
無
渾

公
勿
遞
歸

行
牧
使
兼
招
討
使
李
公
勝
宇
斥
邪
善
政
碑

千
里
保
障

教
民
善
政

洪
陽
一
片

鐵
甃
撐
功

(후면)

乙
未

四
月
日
高
南
下
道
各
里
立

3. 觀察使朴公齊純愛民善政碑

A. 소재지: 흥성군 갈산면 가곡리 가곡국교 앞 경노당 내

B. 건립 시기: 을미년(1895) 5월

C. 비 신: 높이 129cm 폭 50.5cm 두께 24cm

D. 연 혁: 朴齊純은 갑오년 7월에 충청감사로 부임하여 동학란을 진압했는데, 이승우의 공적 비와 나란히 서 있다. 비문으로 볼 때 큰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E. 비 문:

(전면)

(후면)

儒	邦	觀	恩	亞	乙
風	說	察	威	節	未
大	不	使	周	臨	五
振	作	朴	編	止	月
		公			日
一	福	齊	積	頌	高
路	壘	純	著	登	南
踏	所	愛	樂	恤	下
行	照	民	愚	民	道
		善			各
		政			里
		碑			立

4. 拓討使李公碑

A. 소재지: 서산군 고북면 가구리

B. 건립 시기: 을미년(1895) 5월

C. 비 신: 높이 130cm 폭 51cm 두께 17cm

D. 연 혁: 비문을 지은 이가 분명치 않지만 내용은 홍주 목사 이승우가 이끄는 관군이 광천, 목시, 합포 등지에서 동학군을 진압하고 신례원 전투에서는 패하여 희생자가 있었다는 기록이다. 이는 광천에 있는 부상감의비와 함께 사료적 가치를 지닌 비석이다.

E. 비 문:

碑 公 李 使 討 招
 公 洪 渠 數 驚 命 〇 毅 往 公
 其 陽 魁 萬 廣 至 廟 橋 滋 名
 活 之 政 乃 川 〇 堂 築 欲 勝
 之 禍 懋 簿 咽 公 止 無 試 宇
 汝 甚 掃 城 強 示 〇 不 〇 以
 迷 於 化 〇 永 必 公 弔 公 循
 既 洪 洪 公 盡 死 特 策 起 吏
 覺 水 之 具 輟 衆 〇 二 遣 顯
 我 匪 士 含 鉅 不 賜 大 列 及
 危 直 女 玉 効 二 溫 賊 守 東
 亦 也 呼 誓 挫 心 論 屹 洪 賊
 安 洪 舞 孤 鋒 賊 節 爲 洪 馳
 民 淪 單 城 木 戎 斧 洪 新 張
 之 胥 稱 興 市 泰 升 流 禱 道
 永 以 巫 亡 合 使 秩 砥 繹 帥
 賴 死 國 賊 浦 瑞 兼 柱 驛 州
 有 維 參 承 徒 守 招 旋 〇 郡
 如 比 辭 突 之 所 討 觀 公 去
 泰 全 辭 不 卽 之 使 察 及 畏
 磐 省 日 能 新 劫 便 完 州 不
 〇 殆 〇 入 禮 勝 宜 南 募 能
 〇 靡 〇 退 院 〇 行 內 吏 氣
 〇 有 〇 如 將 公 賞 湖 民 多
 〇 遺 〇 甫 卒 敏 罰 七 彈 聞
 〇 神 〇 山 多 下 以 邑 赤 以
 〇 與 〇 〇 氣 殘 生 民 該 失
 〇 爲 〇 公 義 軍 湖 交 該 守
 〇 謀 〇 劉 死 與 人 走 騎 〇
 〇 〇 〇 止 賊 賊 〇 額 騎 朝

乙未五月日高北面立

新禮院戰亡中軍金秉噉領官李鐘旭

韓基慶年十六朱洪燮

永燮

5. 行牧使兼招討使李公勝宇百世不忘碑

A. 소재지: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둔전

B. 건립 시기: 을미년(1895) 5월

C. 비 신: 높이 116 cm 폭 51 cm 두께 19.5 cm

D. 연혁: 이 비석 역시 홍주목사 이 승우의 공적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며, 맨처음 세운 곳에서 약간 이동되었다. 위치로 볼 때 갑오년 10월 8일 광천에서의 동학군 격퇴와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E. 비 문:

(전면)

(후면)

		行			
借	不	牧	仁	義	乙
泰	動	使	以	以	未
以	聲	兼	濟	制	五
安	免	招	人	中	月
		討			
愆	隨	使	扶	獻	日
赤	不	李	植	清	躬
能	徵	公	網	相	耕
斷	舊	勝	倫	兼	立
		宇			
百	生	百	出	捐	
世	成	世	俸	凜	
陽	之	不	興	滅	
春	澤	忘	賓	布	
		碑			

6. 行牧使兼招討使李公勝宇清德永慕碑

A.소재지: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B.건립 시기: 을미년(1895) 7월

C.비 신: 높이 120 cm 폭 55.5 cm 두께 21.5 cm

D.연 혁: 홍성에서 청양으로 약 4킬로미터쯤 가다가 홍동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길 옆에 암행어사 이견창 비와 나란히 서 있는 이 비 또한 이승우의 공적을 찬양한 비다.

E.비 문:

(전면)

(후면)

道	忠	行	牧	宣	濟	洪	乙
德	信	使	使	世	衆	金	未
城	甲	兼	動	策	策	西	七
池	胄	招	崑	紆	紆	面	月
		討				立	日
陽	忠	使	光	筐			
春	章	李	燿	齊			
不	自	公	河	北			
拂	總	勝	魁	斗			
		宇					
明	豈	清	鄉	除			
監	可	德	學	布			
在	該	永	選	施			
斯	兮	慕	才	惠			
		碑					

7. 儒會長幼學朴舜熄著德碑

A.소재지: 서산군 고북면 가구리

B.건립 시기: 을미년(1895) 8월

C.비 신: 높이 95 cm 폭 44 cm 두께 17 cm

D.연 혁: 『동학란기록』에는 홍주,서산,보령 등 여러 곳에서 유희가 조직되어 활동했다고 한다.유희장 박순식 비는 홍주 주변 유희군의 활동에 관해 관심을 갖게 하는 비석이다.

E.비 문:

(전면)

(후면)

衆	軍	儒	勢	時	乙
因	需	會	愛	倚	未
難	保	長	成	倡	
背	益	幼	黨	亂	八
		學			月
籌	財	朴	爲	何	
紂	貴	舜	儒	辛	立
忘	施	熄	之	斯	
稅	懋	著	長	人	
		德			
心	曰	碑	被	勉	
銘	惠		在	以	
高	而		應	歸	
楊	德		響	化	

8.湖沿招討使李公勝宇紀蹟碑

A.소재지: 홍성군 구항면 오봉리 면사무소 옆

B.건립 시기: 을미년(1895) 10월

C.비 신: 높이 141 cm 폭 55.5 cm 두께 25 cm

D.연 혁: 홍성에서 결성으로 가는 가로변에 위치한 이 비석은 이승우의 다른 비석과 마찬가지로 공적을 찬양하고 후세에 경계하는 의미를 갖는다.

E.비 문:

(전면)

國之屏翰民曰父母頌斯銘斯海岳同久

湖沿招討使李公勝宇紀蹟碑

(후면)

治洪膺兮伐義發吁文障狂瀾派清沿湖

乙未十月立

9.贈軍務參議金公秉暎有公之碑

A.소재지: 홍성군 광천읍 용암리

B.건립 시기: 을미년(1895) 10월

C.비 신: 높이 168 cm 폭 62.5 cm 두께 35.5 cm

D.연 령: 「負商感義碑」로 알려져 있는 이 비는 유희군으로 활약한 북암 이 설이 비문을 지었는데, 비문 중에 김병돈이 일찍이 보부상에 임록되어 있었다 한다. 이 비석의 원래 위치는 광천읍 구장터로서 관군에 의해 동학농민군이 격퇴된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광천에서 대천으로 가는 국도 21호선 옆에 있다. 비문은 이 설의 「復菴集」에도 실려있고, 「大保文化」 제2호(대보문화연구소, 1992)에 소개된 바 있다.

E.비 문:

(전면)

贈軍務參議金公秉暎有公之碑

(좌측면)

舊任

安學龍
李宗玄
金甫國
李用孫
崔聖九

戰亡人

李鐘旭
朴定連
徐奉祐
白石 梁聖學

新差班首

朴德信

閑官接長

劉漢奉

漢産班首

李安州

本房

李在浩

韓東一

本所本房

李寬五

金秉夏

崔八文

?洞新差

李? 三

? 成泌

本所新差

韓泰德

金應七

都公員

尹佰眞

(序文)

嗚呼尚忍言哉甲午東學之亂往牒所未有之變也一種狂誕之說陷溺民心不數月而水滋火熾八方之赤子盡化爲盜 當是時以一身而作長城隻手而住頽派屹然獨立以斥邪禁暴爲己任竟能持倚器奠于妊席之安者惟洪州牧兼湖沿招討使李公一人而已其麾下從事之士多不碌碌而故中軍 贈軍務參義金君秉暉尤傑然者也君字德卿其先出光山世居洪州常試於討捕營爲兵校既而從武舉出身而服役役如舊有膽略多才能君雖欲自免爲討捕使者輒愛而不捨也及是年夏東學漸起勢甚猖獗方伯以下皆屏息坐待罔知攸措而招討公方新蒞洪牧日事捕治特差君爲本府中軍以董城役凡事皆諮焉人或謂此賊名爲入道不與他等民與賊無以區別不如目置勿問徐以圖之君尤忿憤唾罵痛心切齒殆若與之不俱生者招討公益賢之冬賊兵四起暴掠群縣聲言將屠洪州於是州城戒嚴設五陳固守君爲中軍領官又力言此賊氣啖雖暴盛直不過鋤擾棘矜之娶無終日之計以斧鉞而臨之勢必駭散宜出兵剿捕以滅樵類招討公可之十月辛亥奉令出討廣川賊即破之殺獲甚多先時城中器械多未備識者爲慮至是得大砲三十餘座以爲戰守之資甲寅討木沼賊癸亥又討合浦賊連破之官軍乘勝統氣日壯人皆踊躍爭先追至于禮山新禮院時賊兵之散者合亡者赴咸衆一處衆可數萬見官軍援絕勢孤圍而蹴之甚急君自度不得脫已諭士卒使各逃生目拔劍力鬪賊不敢近已策馬突圍而出行未數里馬蹶追至遂遇害至死口不絕罵即十月二十六日己巳也招討公聞之大傷痛若麥左右手君有母年七十餘嘆曰吾兒死於王事可無悲也癸三日辛未賊遂大舉席卷至洪州城外翌日壬申大敗奔海美海美賊懼已棄城出遁官軍及儒兵追及於島飛山大敗之於是內浦諸賊悉平招討公以君效勞及立瑾之事聞于朝特贈軍務參議以褒其忠嗚呼趣哉近日論者或有以輕進敗績爲君之失然抑有所不幸而幸者余竊念其時事勢君若無恙則賊必不敗入洪不入洪則亦未必遽敗也若使收合徒衆曰禮山直向公州與南匪合勢而挾攻則錦營之不陷未可保也錦營陷而京師危矣由此觀之君之一敗寔出於誘敵之計而天亦未必不有意於其間也死得其所功存民國不亦壯哉余於君重有感焉君著入錄於負商爲班首御衆有法臨難而多獲其力今其徒又爲君勒石紀功以圖不朽之傳吁可嘉已夫商末技也國俗禘士重農而以商爲賤余觀昨年從叛硬化之民盡起於農卦之中而近日士大夫之所爲者果甚事耶觀於此事或可以知愧也哉祭嘗讀招討公瀨君之詞久而悲之今於銘君之碑無容改贊已述其意爲銘銘曰官欲其生賊欲其死必有以兮君謂之忠母謂之孝他何校兮

當于三十二年乙未十月上旬

永膺 李 楔 撰
全州後人 李錫範 書

10. 義士韓基慶旌閭記

A. 소재지: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B. 건립 시기: 병신년(1896) 2월

C. 크 기: 가로 70cm 세로 38cm

D. 연 혁: 한기경은 16세에 신례원에서 동학군 진압에 참여했다가 순절했다. 이후 나라에서 정려를 내렸는데, 한기경충렬비도 있었다 하는데(『忠節의 고장 洪州』, 홍성군, 1982, 170쪽에 사진이 게재됨) 아직 찾지 못했다. 정려는 홍성에서 예산으로 가는 길목인 동경자마을에 세워졌다가 허물어졌다. 지금은 그 후손 한환규씨가 정려에 있었던 현판을 보관하고 있다.

E. 정려문:

義士韓基慶旌閭記

歲在 甲午湖西賊大起招討李公在洪陽募集我旅力謁迅鋒大小數十戰未嘗敗戮惟禮山之役衆寡不敵官軍失利同時殉難者金秉暎李昌旭朱弘燮朱昌燮韓基慶申泰鳳若干人而 韓甫成童申未勝冠猶執戈力戰視死如歸何其壯也洪之人不挫於一時之敗而有感於諸君之義收拾殘兵實勇而進竟能殲除妖氣廓清一逼人以爲生者之免死者之功云 朝廷特贈金李兩朱官職有差 韓君施以旌閭之典間值有事棹楔未豎人無不齎咨嘆息余來守是邦課及於伊時同事諸人各捐義金鳩財伐仁不日而功造成於是乎過者必式曰此洪陽義士韓君基慶之閭之雖古之注錡何以加此惜乎申泰鳳之事尙無聞于朝者不得與韓君與被恩典也基亦有幸不幸歟 仍念余惠值國難不能捐軀就義苟且圖活竊取祿位今欲此葦而記君之事不亦 乎

歲丙申復月三日

知郡事 李應翼

11. 贈軍務參議 金公秉噉忠節戰忘碑

A.소재지: 서산군 해미면 천주교 순교성지 내

B.건립 시기: 병신년(1896) 4월

C.비 신: 높이 144cm 폭 52cm 두께 20cm

D.연 령: 이 비석은 김병돈에 관한 두 개의 비석 중 하나이며, 원래는 해미면 대곡리 저수지 주변에 세워졌다. 해미순교 성지에서 흩어져 망실될 우려가 있는 비석을 모아 놓았는데 그 중의 하나다. 현재는 바로 서 있지 않고 눕혀져 있다.

E.비문:

(전면) 贈軍務參議 金公秉噉忠節戰忘碑

(좌측면) 泰安 負商 接長 鄭寅愚

本房 朴 樞 謹記

(후면) 丙申 四月 立

12. 七 義 碑

A.소재지: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홍주향교 앞

B.건립 시기: 1935년

C.비 신: 높이 160 cm 폭 66 cm 두께 27.5 cm

D.연 혁: 칠의비는 동학란 때 홍주 향교를 지키다 농민군에 의해 희생된 7인을 추모하기 위해 일제 시대에 건립되었다. 이 비석의 비문은 송용재씨가 『향토연구』 제7집(충남향토문화연구소, 1990)에 소개한 했다.

(전면)

(후면)

七 義 碑	勳六等 全城人李莊魯 書	洪城郡守從六位河俊煥 撰	辭謹攝其慨撰之如右而係以銘曰 於玃烈哉七齋生以身殉義明大經炤揭耳目炳丹青垂之百歷不朽嗚呼烈哉七齋生 昔擊共子論生三事一之義曰惟其所在則致死焉夫孔子萬世之師也人人而有致死之義況齋生乎 吳景根崔敏志方世應方錫奎李準馥徐宗得崔學信洪陽人也爲孔子廟西齋生往往在甲午東匪之賊 簿郡城肆焚掠七人者相與謀曰此賊制旬無所不爲我聖廟不可不謹守且我輩既爲齋生爲聖廟死 職耳遂與家人訣入聖廟殿鎖躍整巾服羅立門外而守之器而賊果至要開門居首者曰聖廟尊嚴不 可以擅入餘六人者亦一口無畢辭郡賊劫之不得遂亂用凶器一竝燒殺而去當是時聖廟之無事卽 七人之力也嗚呼悲夫七人者死於當死然死於當死者有幾人哉復庵李公謂服儒冠儒而斃不夫其 正章觀金公謂章甫之微者而能卓然者立皆確論也朱子於山僧衛士之死猶皆表出而獎之世有東 春秋之筆者得七人之事則其大書特書而不一書也明矣今距死殆四紀之久而舉一郡人士每語 及輒涕道之如昨日事非大義之感人深者能若是乎直員李莊魯及掌議諸人協議境內捐財出力闡 而碑之甚數舉也僉意以俊煥泰爲郡長謂宜有一言以銘之余愧匪其人而既慕其義亦不敢以不文
---------------------	-----------------	--------------	--

13.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

A.소재지: 태안군 태안읍 백화산 (태안국교 뒤편)

B.건립 시기: 1978년 10월

C.비 신: 총높이 4.5 M

D.연 혁: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동학농민군 위령탑으로는 첫번째의 것이다.근래에 세워진 것이라 사료적 가치가 떨어지나,내용이 농민군의 활동을 담은 것이라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비 문: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문(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文)

오호! 부양천지님들의 대의는 일월마저 관천하고 그 대지는 청사에 영원하게 광휘할 것이외다. 도즉 천도요 학즉 동학이라 창명하신 최제우 교조의 심법을 전수한 해월 최시형 제2세 교조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가렴 주구로 인하여 도탄에 빠진 민생고 그리고 열강의 와중속에서 풍전등화격이 된 국운을 보국 안민코자 결심하고 그 영도하에 님들은 갑오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해월교조는 시역 천운이라 하고 춘암 박인호 선생을 중덕포 대접주, 상암 박현인 선생을 예포 대접주로 임명하고, 천불변 도불변이란 친필의 영기를 박인호 선생에게 내리었다. 이 때 님들은 분연히 일어나 혁명군으로 무장하고 갑오 9월 그믐날에 예산 본포로부터 선타 철성선호로 각포 상용하에 일제히 기포하였다.

이 때 예포는 이원면 포지리와 원북면 방갈리에서 혁명기를 높이들고 총궐기하여 태안을 점거한 것이 갑오 10월 1일이였다. 그 대세 충천하니 10월 1일 홍주 판군과 왜병이 합세하여 수천이 태안을 공격하여 음으로 혁명군과 대도소 목소리에서 일대접전이 벌어졌다. 또한 덕포는 10월 초에 아산 신창에서 기포하여 해미 여미에 집결하고 아와 합세하니 그 기

세 당당하여 해미 승전곡에 이르렀을 때 왜병 400명 관유군 수 천이 복명 돌격하여 와 일 대 접전이 벌어졌으나 결국 혁명군의 승전으로 끝났다. 승승장구한 동학혁명군은 동월 26 일 예산 역탈리 본포에 결진하고 관작리에 유진한 왜병 및 관유군 수천명을 대파하였다.

그러나 동월 28일 혁명군은 홍주 교동에서 관군과 대혈전하니 폭우같은 시탄속에 피차 고성대질하는 소리 천지 진동하고 일광이 무색한 중 혁명군은 악전고투하였다. 그러나 오 호라 구국의 진충 갈력도 시리를 얻지 못했으니 어찌하랴 중과부적이라 시산 혈하의 사투 도 보람없이 수연히 옥쇄되고 말았으며, 민족대망의 혁명과업은 좌절되고 남들의 위국 단심 은 초로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남들이 가신지 80여년 5·16혁명 이후 제3공화국은 동학혁명의 순국정신을 되살림에 있어 이 땅에 잠든 남들의 영령을 영원히 신원하고자 석탑을 세우노니 온 겨레여 우리들은 이 거룩한 보국 안민 정신을 자자손손이 이어 받아 길이 길이 선양할 것을 다짐하여 삼가 남 의 고힬앞에 묵념을 올립니다.

포덕(布德) 119년(1978) 무오(戊午) 10월 2일

서산·당진·예산·홍성·아산·지역 동학혁명기념탑 건립위원회 일동

14. 春菴上師 朴寅浩 遺墟碑

A. 소재지: 예산군 삼교읍 하포리 1구

B. 건립 시기: 1985년 5월

C. 비 신: 높이 210 cm 폭 73 cm 두께 44cm

D. 연 혁: 1894년 박희인과 함께 농민군을 지휘한 박인호의 출생지를 고중하여, 삼교읍 하포리1구에 유허비를 세웠다. 비문은 현 예산 임성중학교 교장 이상재씨가 썼다.

E. 비 문:

(전면) 춘암 상사 박인호 유허비

(후면)

근세 조선의 기운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조를 지탱 해준 유교적 도덕이 통제력을 잃어 국민정신은 해이해지고 산업은 위축되었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권신의 횡포는 무소부재하고, 양반의 수탈과 유적의 행패는 그 도를 넘어 국민들은 생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이때에 영남의 수운대신사 최제우께서 창생을 구하려 인내천 종지의 동학을 창도하시니 새시대의 희망이라 믿는 교주가 구름같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에 해월신사 최시형의 명에 따라 호남의 전공봉준이 제폭구민과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아래 동학혁명의 횃불을 들어 오장에서 기포하니 그 세 기름에 불붙인듯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갔습니다. 이때 호남에 한 위인이 있어 그분이 바로 이자리에서 나고 자라온 민족의 귀감이 되신 박공인호이십니다.

공이 가신지 반백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공의 위업을 밝히고 추모하여 후학의 지남으로 삼고자 여기 비를 세워 그 공을 기리는 바입니다.

공은 1855년 밀양인 박공명구와 온양 방씨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성이 총명 성실하시고 담력이 남달리 건장하셨으며 부군이 근엄하시고 방정한 덕성에서 나온 가규를 이어 받아 십년을 하루같이 의관을 불해하시고, 어육주초를 단절하시며 낫자루를 베게하시오와 신의 지성으로 독공하셨습니다.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생각하는바가 없으셨고 한번의 실수는 두번 다시 되풀이 하시지 않았으며 하고자 하는바가 중도에서 그치는 법이 없으셨습니

다. 만인의 장이되실 품격을 닦으셨던 것입니다. 이십구세에 보국 안민의 큰 뜻을 품고 동학에 입도하였고 사십 일세때 제폭구민, 척양척왜의 일념으로 덕포 칠천 동학군으로 충청도에서 기포하시니 그세 오만을 넘어 충청하였습니다. 허나 막강한 일병과 면천의 승전목예산의 신례원 접전을 마지막으로 후일의 기약을 안고 출사의 기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세의 개입으로 갑오 혁명이 좌절되자 1904년에 의암성사 손병희의 밀명에 따라 갑진혁신운동을 전개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후 의암성사 손병희를 모시고 민족항쟁의 대장정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모든 일을 한치도 어김없이 성사의 지도를 받아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현도하고 교단을 정비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에 교세가 삼백만이요 대교구가 삼십육개소요, 교구가 수백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중학원을 세워 교역자를 양성하시고 성미제도를 만들어 인적, 물적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계몽 사업의 대중은 옥영만 한것이 없음을 깨달으신 의암성사의 명에 따라 공은 보성전문학교, 보성중학교, 보성소학교를 인수 경영하고 동덕여학교와 경향에 유명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재정에 허덕이는 수십개의 학교에 보조금을 주셨습니다. 한편 문학 매체의 대중화를 위해서 보성사를 경영하여 문화의 대중화에 힘쓰셨고 만세보를 발행하는 등 대중교화에 힘써 내것을 찾고, 알고, 가꾸고, 지키는 의식을 키우는데 만반을 기하셔서 민족자존의 역사적 과업에 정진함으로써 민족종교의 기틀을 다지고 과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공의 역량이 은무리를 뛰어넘으니 오십 사세에 천도교 대도주로 승통되시어 새로 펼쳐지는 민족개화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은 거교적인 역사로 그 임을 자담하시니 그 조직과 교인들이 출렁하는 막대한 재원은 때를 얻어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에 활력소를 불어 넣은 것입니다. 이에 1919년의 3·1운동에 앞장섰던 공은 48인의 한분으로 피검되어 옥고를 치루셨고, 출감후 계속 사회개혁과 독립운동을 음양으로 지도하시어 3·1운동이후 천도교는 잡지 『개벽』을 발간하여 대중교화에 힘썼고 『농민』을 발간하여 농촌 계몽에 힘썼으며 『어린이』를 발간하여 민족개조의 대역사를 소리없이 진전시켜나갔던 것입니다.

공은 한번 손을 댄 일이면 어떠한 경우라도 물러서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3·1운동에 실질적인 역사를 맡았던 공은 그 생이 다할때까지 민족을 위한 굳은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셨

습니다. 신간회가 창설됨에 그 아들 래홍씨를 독립의 제단에 바쳐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무인 멸왜 기도는 일제 침략에 대한 민족 최후의 항쟁이라 할지니 공의 진면목이 여실히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1936년 일제의 폭력이 극에 달하여 거의 대부분의 애국운동가들이 체념 상태로 있을 때에 공은 전국 교인에 밀명을 내려 일제의 멸망을 기도케 했습니다.

이 운동은 3년후 무인년에 왜경에게 탄로되어 많은 교도들이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조선의 독립이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하니 항쟁은 더 처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에 의해 적당히 처리되어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위해 평생을 바친 공은 1940년 4월 3일 팔십 육세를 일기로 환원하셨습니다. 공이 가신지 오년 일제는 망하고 조국은 광복이 되니 공이 전개한 멸왜운동은 실로 비장한 역사적 결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식어가던 광복의 의지를 소생시켰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선열의 유훈을 명심하고 구천에 계신 공의 혼령을 위로하면서 새 역사 창조에 정진하고자할 따름입니다.

西紀 1985년 5월 7일 11시

白山 이 상 재 짓고

靜峰 김 영 덕 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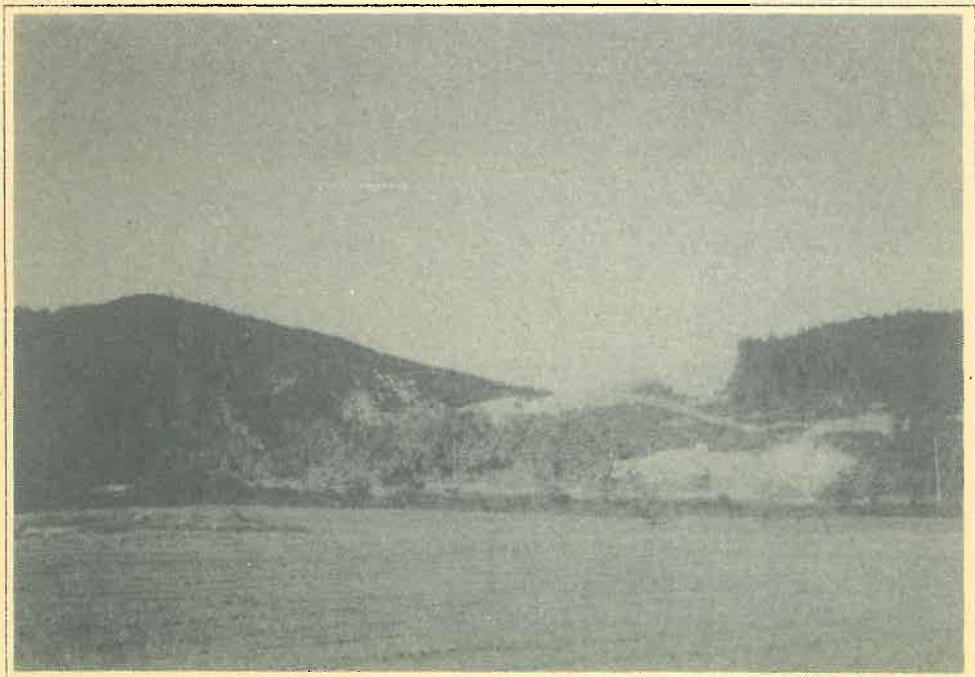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춘암상사 박인호 유허비건립추진위원회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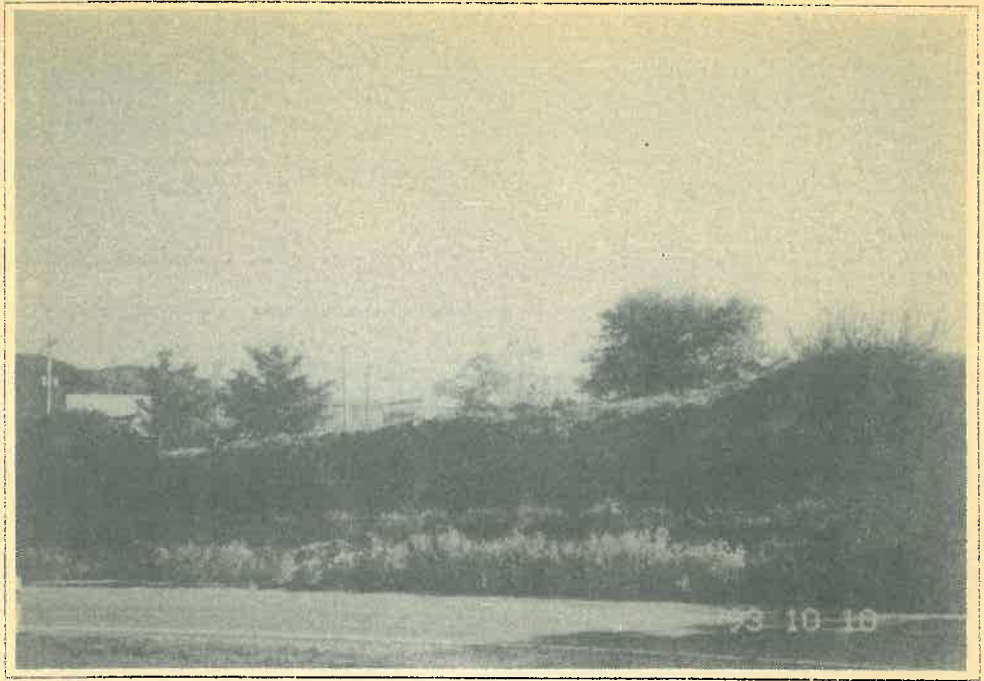
[부록] 충남 서북부 지역 동학 농민 전쟁 주요 전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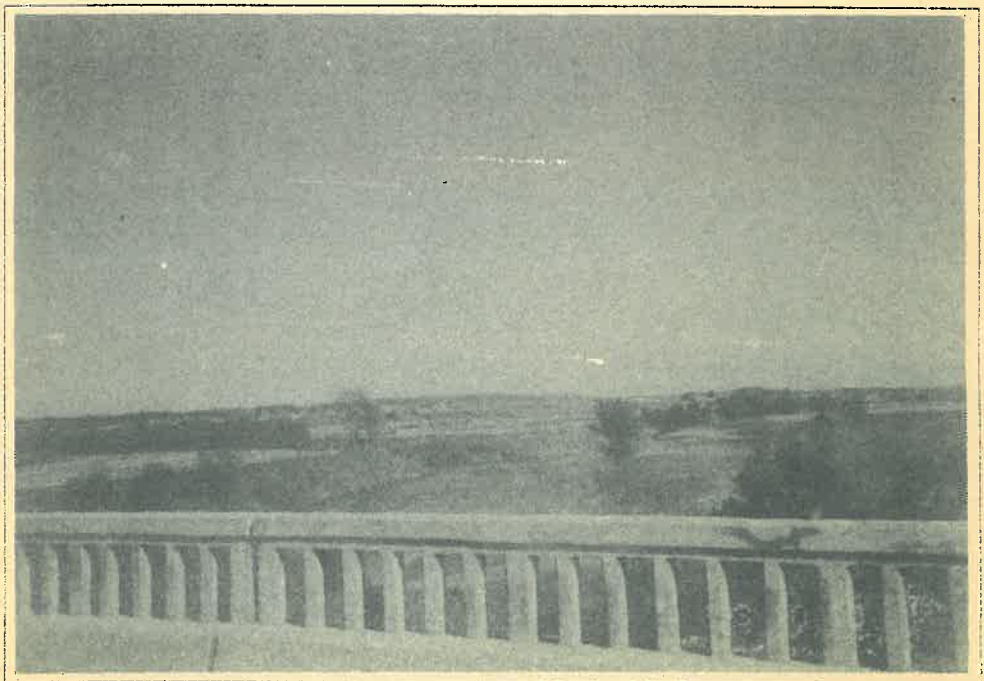
[그림1] 동학농민군의 해미 여미평 집결지(현 운산면 여미리)



[그림2]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을 격퇴한 면천 사기소리 승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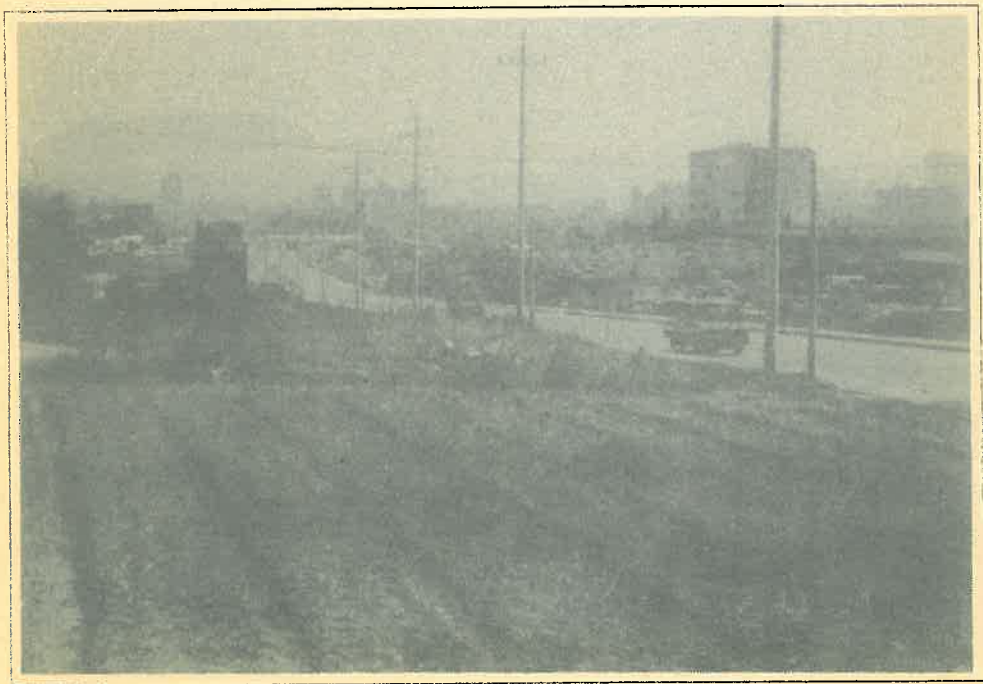
[그림3] 동학농민군이 점령한 면천읍성 (음력 10. 25)



[그림4] 농민군 총대장 박인호가 말하는 구만포 전투지



[그림5] 동학농민군이 김병돈의 유회군을 대파한 예산산성(음력 10. 26)



[그림6]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격퇴한 홍성 빙고치 (음력 10. 28)



[그림7] 동화 농민군이 공성전을 편 홍주성 (음력 10. 28)



[그림8] 추정 동화 농민군의 무덤이 있었던 곳(소향리 갈마지)

